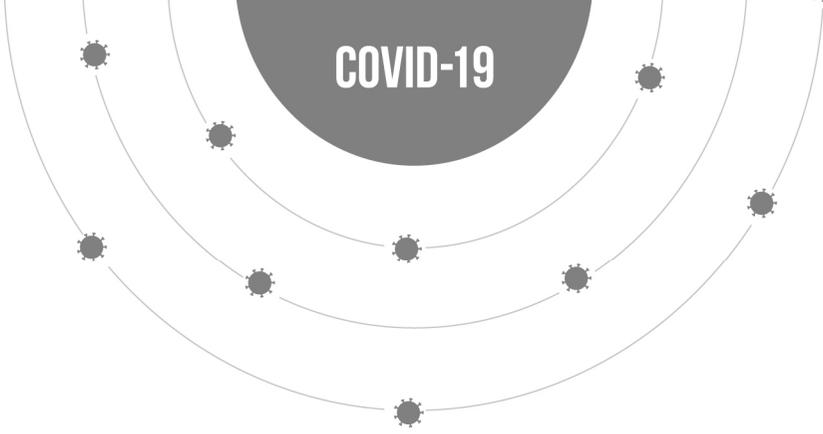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



COVID-19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책임연구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화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선우진희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대리)
장희선 (前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발간사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 사회 및 개인의 삶에서 겪게 된 막대한 변화의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범위한 일상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된 변화의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피해 정도는 모두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위축은 가구소득 감소를 가져왔고 소득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돌봄 및 교육 기관의 운영 중단이 반복되면서 아동의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 당연했던 일상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상 변화의 지속은 아동이 학업을 수행하고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능력을 발달시켜 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동 간 교육의 격차 및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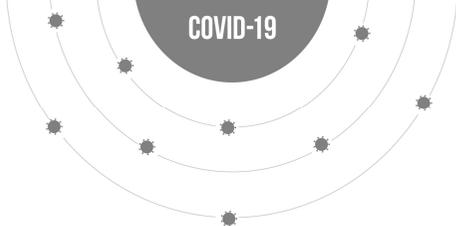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은 길어지고 있고, 이러한 장기적 재난 상황은 아동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연구들이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목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굿네이비스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Ⅰ에 이어, 2021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Ⅱ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아동 삶의 변화를 상세히 확인하여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삶의 변화와 적응 추이를 살펴보는 한편 아동간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수행해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님과 굿네이비스 아동권리연구소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가 코로나 19로 움츠러들었던 아동의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비스 사무총장

김웅철



목 차

연구요약	1
I. 서 론	21
1. 코로나19와 아동 삶의 변화	22
2. 코로나19와 아동발달	26
3. 연구 개요	30
II. 조사 설계	33
1. 조사 개요	34
2. 지표 체계	34
III.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기초 분석	41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2. 지속되는 재난 상황과 아동권리	45
3. 아동발달 추이와 대응 방안	87
IV.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심층 분석	135
1. 심층 분석 개요	136
2. 코로나19와 심리정서	139
3. 코로나19와 폭력	144
4. 코로나19와 교육격차	148
V. 결론 및 제언	157
1.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아동 삶의 변화 ..	158
2. 제언	165
참고문헌	175
부 록	183

표목차

〈표 1〉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	28
〈표 2〉 아동 재난대응 실태 조사개요	34
〈표 3〉 아동용 지표 구성	35
〈표 4〉 부모용 지표 구성	38
〈표 5〉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42
〈표 6〉 지역 분포도	44
〈표 7〉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습관 변화	46
〈표 8〉 코로나19 이후 미등교/등교 기간 중 하루 세 끼 섭취 여부	47
〈표 9〉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미등교 결식 사유	48
〈표 10〉 결식 이유	49
〈표 11〉 아동의 수면 및 여가 활동 시간	51
〈표 12〉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취미 및 개인활동	52
〈표 13〉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 비율	52
〈표 1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미취학 아동)	53
〈표 15〉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초등 저학년생)	54
〈표 16〉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초등 고학년생)	55
〈표 17〉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중학생)	56
〈표 18〉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고등학생)	57
〈표 19〉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58
〈표 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 환경(보호자)	60
〈표 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환경(아동)	61
〈표 22〉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사항	63
〈표 23〉 등교/온라인 수업 만족도	64
〈표 24〉 학교 성적	64
〈표 25〉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	65
〈표 26〉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	66
〈표 27〉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돌봄 상황	67
〈표 28〉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홀로 아동	68
〈표 29〉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홀로 아동 증가 비율	68
〈표 30〉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주로 함께 있었던 사람(아동)	69

〈표 31〉 대면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70
〈표 32〉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71
〈표 33〉 일평균 돌봄시간(자녀 돌봄 담당자 1순위)	72
〈표 34〉 코로나19 이후 양육자가 경험한 어려움 등의 정도	73
〈표 35〉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74
〈표 36〉 자녀의 수업방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	74
〈표 37〉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느낀 양육스트레스	75
〈표 38〉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6
〈표 39〉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77
〈표 40〉 아동연령별 아동학대 경험(아동 및 보호자)	79
〈표 41〉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80
〈표 42〉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81
〈표 43〉 가정 내 체벌 경험 현황	81
〈표 44〉 가정폭력 목격 경험 현황	82
〈표 45〉 온라인 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현황	83
〈표 46〉 코로나19에 대해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	84
〈표 47〉 재난 정책에 관한 아동참여	85
〈표 48〉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시간활용	87
〈표 49〉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 변화	88
〈표 50〉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일상 변화	88
〈표 5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만족도 변화	89
〈표 52〉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만족도 변화	90
〈표 53〉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건강상태 변화	91
〈표 54〉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건강상태 변화	91
〈표 55〉 코로나19와 안정감	92
〈표 56〉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감정 변화	93
〈표 57〉 코로나19 이후 아동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감정 변화	95
〈표 58〉 최근 3개월간 아동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96
〈표 59〉 최근 3개월간 보호자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97
〈표 60〉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심리정서 반응	99
〈표 6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코로나 블루 정도(아동)	100
〈표 62〉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정도(보호자)	100
〈표 63〉 코로나19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코로나 블루 수준	101
〈표 64〉 코로나19 직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수준	102
〈표 65〉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경험한 코로나 공포 정도	103
〈표 66〉 코로나19 이후 보호자가 경험한 코로나 공포 정도	104

〈표 67〉 2주 이상 슬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비율	105
〈표 68〉 아동 연령 범주화별 어려움 정도	106
〈표 69〉 아동 연령범주화별 어려움 정도(연도 비교)	107
〈표 70〉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108
〈표 71〉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들 해소 방안	110
〈표 72〉 코로나19 이후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아동, 보호자)	111
〈표 73〉 코로나19 이후 상담을 이용해본 경험(아동, 보호자)	112
〈표 74〉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아동)	113
〈표 75〉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보호자)	115
〈표 76〉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아동)	117
〈표 77〉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보호자)	119
〈표 78〉 재난 상황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121
〈표 79〉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신경써야 할) 아동권리	122
〈표 80〉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의 어려움	124
〈표 81〉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 가장 힘들게 하는 것	126
〈표 82〉 국가나 지역사회만족도	127
〈표 83〉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아동)	128
〈표 84〉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보호자)	130
〈표 85〉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아동)	131
〈표 86〉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보호자)	132
〈표 87〉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 및 돌봄 공백 현황	137
〈표 88〉 아동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 및 돌봄 공백 현황	138
〈표 89〉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심리정서	140
〈표 90〉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상담희망(초등 고학년생 이상)	140
〈표 91〉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정서	141
〈표 92〉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상담희망	141
〈표 93〉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심리정서	142
〈표 94〉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상담희망(초등 고학년생 이상)	143
〈표 95〉 돌봄 공백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정서	143
〈표 96〉 돌봄 공백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상담희망	144
〈표 97〉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가정 내 학대피해(초등 고학년생 이상)	145
〈표 98〉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폭력 이슈(초등 고학년생 이상)	146
〈표 99〉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가정 내 학대피해(초등 고학년생 이상)	147
〈표 100〉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폭력 이슈(초등 고학년생 이상)	148
〈표 101〉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초등 고학년생 이상)	149
〈표 102〉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온라인 수업 준비 정도(초등 고학년생 이상)	150

〈표 103〉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환경(초등 고학년생 이상)	151
〈표 104〉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초등 고학년생 이상)	152
〈표 105〉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온라인 수업준비 사항(초등 고학년생 이상)	153
〈표 106〉 돌봄 공백에 따른 온라인 수업환경(초등 고학년생 이상)	154

그림목차

[그림 1] 코로나19 이후 장점	86
[그림 2] 코로나19 이후 단점	86
[그림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점	86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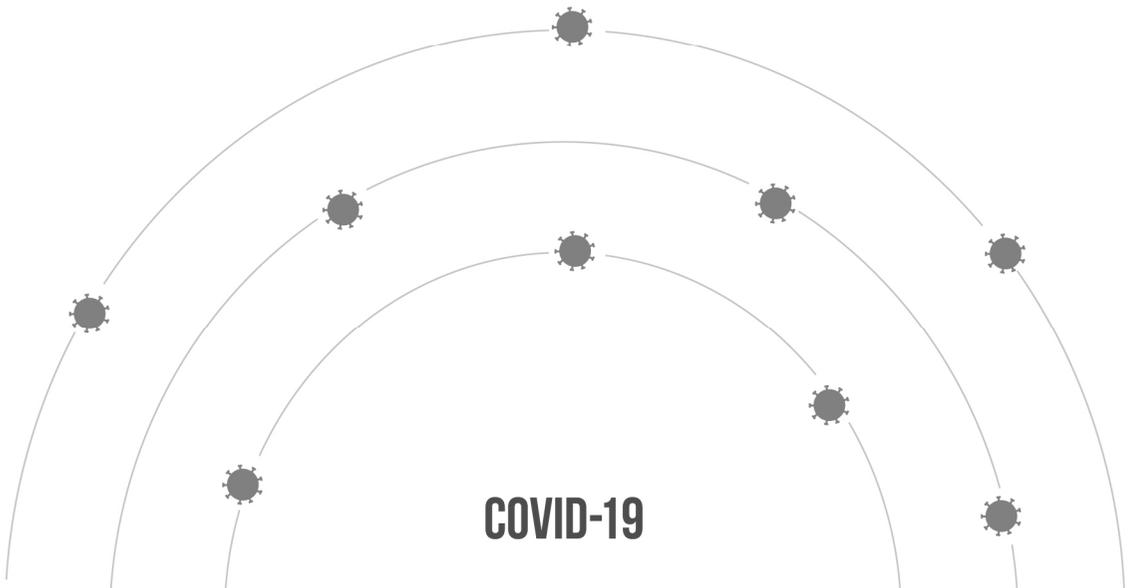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연구요약





연구요약



I. 서론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지역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지출규모가 줄어들고,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가구 경제 상황 약화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변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 변화는 아동의 심리정서, 행동, 일상생활 변화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며, 가정 내 학대와 방임,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학업격차 등에 아동이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음
-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4대 권리의 측면에서 확인하고, 가구 소득변동과 돌봄공백에 따른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후 수집된 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아동의 삶의 변화와 적응 추이를 분석하였음

II. 조사 설계

■ 조사 개요

〈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개요

구분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조사 대상	만 4세~고등학교 3학년 아동 및 보호자 (*만4세~9세 아동은 보호자 대리 응답)	
조사 규모	아동 3,308명, 보호자 3,308명	아동 3,927명, 보호자 3,927명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년 6월 19일~25일(7일간)	2021년 4월 1일~5월 3일(33일간) ※ 2020년 동일패널 수집으로 조사 수행 기간 증가

■ 지표 체계

- 아동용 지표체계: 코로나19 이후 식습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심리정서, 가정환경, 온라인 학습(초등 이상), 여가시간, 코로나 참여 및 지원, 아동권리
- 부모용 지표체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 온라인 개학 및 사교육, 아동 증상, 돌봄 및 양육 스트레스, 심리정서, 정부대응

III.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기초 분석

■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021)

● 아동요인

- 아동 성별: 남자(52.1%)>여자(47.9%)
- 아동 학년: 초등 저학년생(25.6%)>미취학 아동(24.1%)>초등 고학년생(18.4%)>중학생(16.4%)>고등학생(15.5%)

● 보호자 요인

- 보호자 성별: 여자(56.3%)>남자(43.7%)
- 보호자 연령: 만40세-44세(39.0%)>만45-50세(25.5%)>만35세-39세(25.3%)>만30-34세(6.4%)>만51세 이상(3.8%)
-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56.3%)>아버지(43.7%)
- 최종학력: 대졸(76.7%)>대학원졸(12.6%)>고졸(10.4%)

● 가정요인

- 가구형태: 양부모가정(95.0%)>한부모가정(3.8%)>조손가정(0.6%)
- 주관적 소득 수준: 중위권(40.2%)>중하위권(39.9%)>하위권(11.4%)
- 월평균 소득(코로나19 이후): 400~600만원 미만(36.9%)>200~400만원 미만(29.7%)>600~800만원 미만(18.7%)
- 소득 변동성: 코로나19 전과 동일(57.2%)>코로나19 전보다 감소(35.3%)>코로나19 전보다 증가(7.5%)

■ 지속되는 재난상황과 아동권리¹⁾

○ 생존권

● 코로나19와 아동의 식습관

-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 69.4%(2018)→65.8%(2020)→60.3%(2021)
-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2021): 미등교 기간(32.6%)>등교/등원 기간(20.3%)
-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 아동: 50.1%(2018)→35.3%(2020)→37.5%(2021) 여전히 아동 10명 중 6명이 결식위험에 노출, 제대로 된 식사 책임을 받지 못함
-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먹지 못한 아동: 1.3%(2018)→8.8%(2020)→8.2%(2021)

○ 발달권

● 코로나19와 아동의 수면 및 여가활동 변화

- 수면시간: 7.6시간(2018)→8.3시간(2020)→8.3시간(2021)
- 놀이 및 휴식 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 제외): 2.8시간(2020)→3시간(2021)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시간: 2.2시간(2020)→2.2시간(2021)
-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한 아동: 47.4%(2020)→48.8%(2021)로 나타나 약 2명 중 1명의 아동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 문제로 보호자와 갈등

❖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미 및 개인활동 변화에 대한 인식(10점 만점)

- 초등 고학년생(4.2점)=중학생(4.2점)>초등 저학년생(4.0점)>미취학 아동(3.9점)> 고등학생(3.8점)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 평가

❖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가장 많이 한 활동

- 미취학 아동의 1순위는 '영유아 교육 외 내용의 TV 및 유튜브 시청하기(26.7%)', 2순위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16.4%)', 3순위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시청(15.7%)'으로 2020년과 1,2,3 순위가 동일
- 초등 저학년생 아동의 1순위는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19.7%)', 2순위는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18.7%)', 3순위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8.3%)'로 2020년과 1,2,3 순위가 동일

1) 2018년은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년은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의미한다.

- 초등 고학년생 아동의 1순위는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22.0%)', 2순위는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9.2%)', 3순위 '학교 정규 수업 외 공부(17.2%)'로 2020년과 1,2,3 순위가 동일
- 중학생 아동의 1순위는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22.0%)', 2순위는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18.5%)', 3순위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8.1%)'로 2020년과 2, 3순위가 서로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
- 고등학생 아동의 1순위는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22.8%)', 2순위는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18.2%)', 3순위는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6.1%)'로 나타나 2020년과 2021년 1, 2, 3순위가 동일

● 재난과 아동 교육

❖ 온라인 교육환경(100점 만점)

- [보호자]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인, 보조 선생님 등 사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응답 (2020: 45.2점→2021: 45.9점)만 증가. 나머지 자녀의 '온라인 수업 장소 및 공간 마련', '컴퓨터, 노트북 등 수업에 필요한 학습기기 준비' 등은 2020년보다 2021년 소폭 감소
- [아동]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나 환경(컴퓨터, 인터넷) 구비 정도(2020: 75.9점, 2021: 74.5점)'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진도 적합성(59.3점)과 숙제의 난이도와 양의 적절성(56.8점)은 평균 50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사항(100점 만점)

-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 사항(2021): 전용 학습도구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74.2점)를 가장 높게 평가.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는 정도(51.2점)는 상대적으로 낮아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상시 지원할 수 없는 보호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

❖ 등교/온라인 수업 만족도

- 등교수업(6.9점) > 온라인수업(5.3점)

❖ 사교육 이용 경험

-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의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 이용을 중단한 경험(35.0%): 10명 중 3명 이상의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가정 형편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 경험

○ 보호권

● 재난과 아동 돌봄

❖ 나홀로 아동

-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다는 아동: 57.2%(2020)→50.7%(2021)

❖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 부담

-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주로 함께 있었던 사람(아동):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 혼자’ 있거나 ‘18세 미만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다는 응답이 많음
-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아동의 연령이 감소할수록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 친인척’과 함께 있었다는 응답이 많음
- 일평균 돌봄시간(자녀 돌봄 담당자 1순위): 온라인 수업 기간(9.9시간) > 대면 수업 기간(7.1시간)

❖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10점 만점): 6.7점(2020)→7.1점(2021)
- 코로나19 이후 양육자가 경험한 어려움 동의 정도(100점 만점): 부모로서의 역할이 많아져 더 힘들었음(62.1점) >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짐(56.5점) >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함(54.0점)
- 자녀의 수업방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 보호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응답(81.3%).
-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느낀 양육스트레스: 보호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다고(22.3%) 응답하였으며, 보호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스트레스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다고(10.2%) 응답함
-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로서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역량 관련하여 한계가 느껴지는 것’과 ‘자녀의 인터넷/게임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논쟁하는 것’이 각각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재난과 폭력

❖ 가정 내 아동학대

- 정서학대: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기(2020: 55.8%→2021: 59.8%)
- 가정 내 체벌 및 가정폭력 목격: 체벌 경험(2020: 23.9%→2021: 25.2%), 가정폭력 목격 경험(2020: 31.6%→2021: 37.0%)

❖ 온라인 폭력 및 성 착취

- 온라인 상에서 욕설, 폭언, 악플을 받아본 경험: 20.0%(2020)→23.9%(2021)
-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험: 10.3%(2020)→13.4%(2021)

▶ 참여권

● 코로나19와 아동의 참여

❖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

- 부모님이나 가족들(29.7%)>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27.3%)=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27.3%)>교육기관(13.6%)>정부(국가) 및 정치인(2.1%)

❖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아동 참여

- 41.9점(2020)→30.5점(2021)으로 재난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

❖ 코로나19 이후 장단점 및 바람



[그림] 코로나19 이후 장점



[그림] 코로나19 이후 단점



[그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점

■ 아동발달 추이와 대응 방안

▷ 아동발달 상황 및 적응

● 일상생활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간활용(2021, 10점 만점)

- 아동(4.2점)보다 보호자(4.4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10점 만점)

- 아동: 4.2점(2020)→4.0점(2021) 부정적으로 변화
- 보호자: 3.5점(2020)→4.0점(2021) 긍정적으로 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 만족도(10점 만점)

- 아동: 집안분위기 6.3점(2020)→6.6점(2021), 부모님과의 관계 6.4점(2020)→6.9점(2021), 친구들과의 관계 5.7점(2020)→6.6점(2021), 친구들과의 연락 5.4점(2020)→6.2점(2021)
- 보호자: 집안분위기 5.4점(2020)→5.8점(2021), 자녀와의 관계 5.7점(2020)→6.0점(2021), 부부간의 관계 5.5점(2020)→5.7점(2021), 가정의 경제적 상황 4.6점(2020)→5.0점(2021)

● 건강과 심리정서

❖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상태 변화(10점 만점)

- 아동: 5.1점(2020)→4.7점(2021) 부정적으로 변화
- 보호자: 4.9점(2020)→4.7점(2021) 부정적으로 변화

❖ 코로나19와 안정감(100점 만점)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61.7점(2020)→58점(2021)
-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89.8점(2018)→75.8점(2020)→75.6점(2021)
- 동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74.3점(2018)→64.5점(2020)→62.6점(2021)
-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느낌: 71.3점(2018)→61.0점(2020)→58.5점(2021)

❖ 코로나19와 아동의 심리정서

-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아동, 보호자)
- 최근 3개월간 아동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짜증(14.8%)>평온(13.1%)>불안/걱정(12.3%)=무기력(12.3%)
- 최근 3개월간 보호자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불안/걱정(22.2%)>짜증(15.1%)>무기력(13.5%)>우울(8.8%)>화/분노(8.2%)

❖ 코로나 블루(2021)

- 코로나 블루 정도(10점 만점): 아동(4.8점)<보호자(6.0점)

❖ 자살 생각

- 2주 이상 슬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비율: 3.4%(2020)→2.9%(2021)

● 문제 상황과 대응 실태

❖ 코로나19 발생과 걱정 및 어려움(연령범주화별)

• [초등고학년생]

- 공부문제: 4.1점(2018) →5.7점(2020)→5.5점(2021)
- 친구 문제: 2.8점(2018)→4.6점(2020)→4.4점(2021)
- 가족 문제: 2.0점(2018)→3.7점(2020)→3.4점(2021)
- 외모 문제: 2.3점(2018)→3.8점(2020)→3.7점(2021)
- 경제적 문제: 1.6점(2018)→3.7점(2020)→3.1점(2021)
- 코로나 문제: 6.0점(2020)→5.2점(2021)

• [중학생]

- 공부문제: 6.1점(2018) →6.1점(2020)→6.0점(2021)
- 친구 문제: 3.7점(2018)→4.7점(2020)→4.5점(2021)
- 가족 문제: 2.6점(2018)→3.8점(2020)→3.4점(2021)
- 외모 문제: 3.8점(2018)→4.4점(2020)→4.2점(2021)
- 경제적 문제: 2.1점(2018)→3.9점(2020)→3.5점(2021)
- 코로나 문제: 5.7점(2020)→4.8점(2021)

-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2021):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22.0%)>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14.8%)>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1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담서비스 이용 현황(2021)

-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 아동(44.5점)<보호자(53.7점)
-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이용해본 경험: 아동(7.1%)<보호자(10.4%)
-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아동): 친구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28.1%)>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23.1%)>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5.3%)
-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보호자):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44.5%)>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등 방문하여 전문가에게 상담(13.7%)>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10.6%)

◎ 필요 지원 및 정책

● 재난 상황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필요성

❖ 재난 상황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 2020년: 1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2순위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3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기
- 2021년: 1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2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기, 3순위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신경써야 할) 아동권리(2021)

- 1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 2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3순위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순으로 나타남

● 재난 상황에서 아동정책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어려움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의 어려움(보호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73.2점),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71.6점), 자녀의 놀이욕구 해결(70.1점)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 1순위 자녀의 매 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2순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3순위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로 2020년과 2021년 순위와 동일함

●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아동]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22.0%),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16.1%),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13.1%)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보호자]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21.2%)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17.2%),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12.3%)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IV.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심층 분석

■ 심층 분석 개요

- 2020년과 2021년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2,734명(아동: 1,367명, 보호자: 1,367명)을 대상으로 분석
- 코로나19 시기에 가구 소득변화와 돌봄 공백이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가정 내 및 사이버상의 폭력, 학업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표〉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 및 돌봄 공백 현황

구분		N(%)
소득 변화 ²⁾	소득감소 비해당	761(55.7)
	소득감소 1회	314(23.0)
	소득감소 지속	292(21.4)
돌봄 공백 ³⁾	돌봄 공백 비해당	764(55.9)
	돌봄 공백 1회	257(18.8)
	돌봄 공백 지속	346(25.3)

■ 코로나19와 심리정서

▶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심리정서

- [아동]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의 행복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지속, $p < .001$)
- [보호자]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1회 이상 경험한 보호자와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행복감, 불안함, 외로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행복감: 비해당)지속, 1회)지속, $p < .001$ / 불안함·외로움: 비해당<1회)지속, $p < .001$)

2) 소득 변화는 '월평균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의 질문을 활용함

- 소득감소 지속 : 2020년과 2021년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
- 소득감소 1회 : 2020년과 2021년 둘 중 한 해에 소득 감소를 보고한 가정
- 소득감소 비해당 : 2020년과 2021년 모두 소득감소가 없었던 가정(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동일하거나 혹은 증가했다고 응답)

3) 돌봄 공백은 일주일에 1일 이상 아동이 성인 보호자 없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정을 돌봄 공백으로 판단함

- 돌봄 공백 지속 :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돌봄 공백을 보고한 가정
- 돌봄 공백 1회 : 2020년, 2021년 둘 중 한 해에 돌봄 공백을 보고한 가정
- 돌봄 공백 비해당 : 2020년과 2021년 모두 돌봄 공백이 없었던 가정

- [보호자]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1회 이상 경험한 보호자와 그렇지 않은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상담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1회>지속, $p<.001$)
- 가구 소득감소가 지속된 가정일수록 보호자의 상담 희망 정도와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1회>지속, $p<.001$)

② 돌봄 공백에 따른 심리정서

- [아동]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1회 이상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행복함, 불안함, 외로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행복감: 비해당)지속, 1회)지속, $p<.001$ / 불안함: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외로운: 비해당<1회>지속, $p<.001$)
- [아동]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상담희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지속, $p<.001$)
- [보호자] 돌봄 공백의 지속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행복감과 불안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행복한: 비해당)지속, $p<.01$ / 불안함: 비해당<지속, $p<.05$)
- [보호자] 돌봄 공백의 지속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상담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양육스트레스: 비해당<지속, $p<.01$ /상담희망: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01$)

■ 코로나19와 폭력

②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폭력

- [아동]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체벌 경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1회, $p<.01$)

② 돌봄 공백 여부에 따른 폭력

- [아동]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방임 경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지속, $p<.01$)
- [아동]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체벌 경험, 가정폭력 목격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 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체벌: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001$ / 가정폭력 목격: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05$ / 인터넷 스마트폰 갈등: 비해당<지속, $p<.05$)

■ 코로나19와 교육격차

▶ 소득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아동)

-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 < .01$)
-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의 학습부진 심화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 < .001$)
-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의 학습기 전용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비해당)지속, $p < .05$)
- 소득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의 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온라인 숙제 제출 수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비해당)지속, $p < .05$ / 온라인 숙제 제출 수월성: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 < .05$)

▶ 돌봄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아동)

-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학습부진 심화정도와 대면·비대면 수업이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없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온라인 수업 만족도: 비해당)지속, 1회)지속, $p < .01$ / 학습부진 심화정도: 비해당)지속, $p < .001$ / 대면·비대면 수업이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없는 정도: 비해당)지속, 1회)지속, $p < .001$)
-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학습기 전용수준과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성인 보호자 존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학습기 전용수준: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 < .01$ /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비해당)지속, $p < .05$ / 성인 보호자 존재: 비해당)1회)지속, $p < .001$)
- 돌봄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온라인 수업 부모·가족 도움, 온라인 수업 선생님 도움, 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온라인 도구·환경 구비, 온라인 접속·연결, 온라인 수업 질문·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온라인 수업 부모·가족 도움: 비해당)1회)지속, $p < .001$ / 온라인 수업 선생님 도움: 비해당)지속, 1회)지속, $p < .001$ / 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 < .001$ / 온라인 도구·환경 구비: 비해당)1회, 비해당)지속, $p < .001$ / 온라인 접속·연결: 비해당)지속, 1회)지속, $p < .01$ / 온라인 수업 질문·소통: 비해당)지속, $p < .01$)

V. 결론 및 제언

●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건강회복 지원

- 팬데믹 재난상황에서 아동 및 사회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상담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 및 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원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기관 간의 협력 외에도 지역사회 내의 아동 돌봄, 가족 지원과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이 넓게 확산되는 만큼 낙인감이나 기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상담 채널이 확보되어야 함
- 부모의 감정이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못지않게 보호자인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함

● 가정 내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예방과 개입

- 가정 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완화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학대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아동학대 업무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이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상황 업무지침이 마련될 필요 있음
- 가정 내 체벌과 학대 우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체벌과 아동학대는 경계가 모호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장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민법 915조의 징계권 삭제 이슈화하고 미디어와 지역사회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학교 차원에서 미디어 활용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담센터가 연계하여 미디어 의존과 중독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개입 필요

●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 아동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는 것'을 국가가 가장 존중해야 하는 권리로 여기고 있었고 동시에 코로나19로 가장 침해를 많이 받은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과 연결하여 논의 필요
- 우리나라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존재했으므로, 코로나19 이전 교육으로의 회귀 즉, 학교에 매일 등교하는 방식으로의 회복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지속되는 재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의 격차 영향요인을 살피고, 취약계층 아동들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재정과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
-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아동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아동과 교사의 디지털 기기활용과 질적 정보획득 역량(디지털 리터러시)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빈곤가정 등 환경적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가정과 코로나19 이후 소득 저하가 지속되는 가정의 아동들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발달 지연과 문제를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
- 탈북, 장애,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정환경에 의해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어 문해력, 디지털리터러시 격차, 비대면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등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함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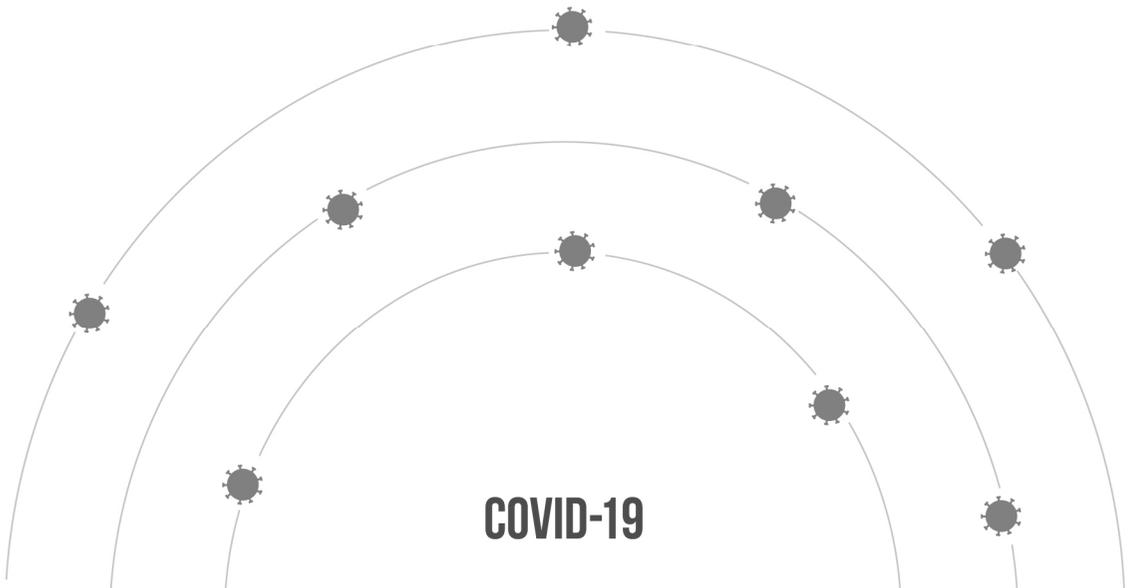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I 서론



I

서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가 광범위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봉쇄와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삶에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과거 일부 국가에만 영향을 미쳤던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상황과는 다르며, 피해가 중간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와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김태완, 이주미,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은 가구소득 변동, 돌봄 부담과 돌봄 공백 증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대면·비대면 수업 전환 등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동발달과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적 이슈이며 아동의 심리정서와 교육 등 발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을 아동 4대 권리 측면에서 논의하고 아동 삶의 변화와 적응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내 주요 이슈와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와 아동 삶의 변화

1) 가구소득 변화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는 고용 둔화, 실업 증가와 같은 경제적 위험 증가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일련의 조치들은 직·간접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이승호, 2020). 지역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지출규모가 줄어들고,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가구 비율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자 감염병 발생 직후에 수행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32.2%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며, 45.1%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업종별로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으며, 50대의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43.3%로 다른 연령대의 소득감소 경험 비율 25.9% ~ 30.6%보다 높게 나타났다(이현주 외, 2020). 한편, 2020년 6월 실시한 굿네이버스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에서는 특히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소득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수준별 소득감소 비율을 보면, 소득 수준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82.5%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 수준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에서는 15.7%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비율이 약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이봉주 외, 2020). 또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완화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소득과 지출에 변화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승호, 2020).

코로나19 발생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의 제한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엄상민, 정규철, 2021; 한정민, 2021). 회복속도도 불균등하고, 취약계층 고용 부진 등의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득 뿐 아니라 주거·교육·돌봄·자산 등 전반적인 격차 확대가 우려되며(기획재정부, 2021.6.28), 경제주체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엄상민, 정규철, 2021).

가구소득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영유아의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능력발달, 의사소통 능력발달, 운동능력 발달(김은설, 도남희, 2012; 임현주, 2019)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학업성취, 학업태도(구인회 외, 2009; 이해림, 2016; 김광혁, 2019)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여파가 근로빈곤층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은 물론 중간계층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김태완, 이주미, 2020), 빈곤·비빈곤 가구 모두 자녀에 대한 교육 관련 지출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지우 외, 2021). 부모의 재원은 가정 내 인적자본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깝게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멀게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지우 외, 2021). 코로나19로 문화생활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아동이 느끼는 안정된 환경 등에 있어서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정선영, 2020; 김지우 외, 2021),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상황의 변화가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돌봄 환경 변화와 돌봄 공백

코로나19의 또 다른 이슈는 가정 내 돌봄 가중과 돌봄 공백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사회적 불안을 낮추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이 휴업하였고, 학교에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습공백을 우려하여 온라인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도록 하였고, 가정 내 돌봄 과중과 돌봄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고, 더욱이 생계의 이유로 지속적인 돌봄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모의 경우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이봉주, 장희선, 2021b). 앞으로도 등교상황은 사회적인 코로나19의 상황과 맞물려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동 돌봄 문제는 교육환경과 연결되어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보육정책, 육아지원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돌봄,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 기관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최아라, 2020). 또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 돌봄 등을 제공하였으나 감염우려와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은 미취학 영유아 가구 46.9%, 초등자녀 가구 15.0% 수준으로 저조하였다(김영란, 2020). 굿네이버스에서 수행한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일에 자녀 홀로 혹은 자녀들끼리만 있었던 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로,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동의 결식 경험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비해 2020년 14.2% 증가했고, 식사 챙김을 받지 못하여 결식을 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이봉주 외, 2020).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 돌봄 부담 가중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최아라, 2020). 이러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은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아동의 교육 및 일상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이라는 돌봄 환경 변화와 돌봄 공백 지속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일상의 변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험수준과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나, 재난 상황이 길어질 때 그 피해는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발하여 재난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무엇보다 아동기는 인간 생애주기에서 주요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핵심 시기로 이 시기의 일상생활 변화는 아동의 심리정서와 학업, 또래관계 등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나타났다. 수면시간과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사용시간, 공부시간은 증가하였고, 운동시간과 놀이 및 휴식시간은 증가하였다(이봉주 외, 2020; 정익중 외, 2020). 또한 친구를 만나는 활동은 감소한 대신 SNS 활동과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 TV 및 IT기기를 사용한 활동이 증가하였다(이봉주 외, 2020). 다만 취학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 모두, 학교 정규수업에 참여하거나 숙제하기, 학원, 과외 참여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봉주 외, 202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의 병행으로 학습 환경에 변화가 있는 만큼 야외 참여수업 및 체육수업의 감소로 인한 활동량 감소 등 생활의 변화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아동의 식생활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나타났는데, 규칙적인 식사 비율과 신선한 채소, 육류, 고기 등의 섭취 비율은 감소한 반면 인스턴트 섭취와 결식 비율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봉주 외, 2020).

이와 같이 장기적인 재난 상황은 아동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 연구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 진행되었으므로,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된 시점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아동의 일상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코로나19와 아동발달

1) 심리정서 어려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생활습관의 변화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최아라, 2020).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한 아동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에 역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정익중 외, 2020).

아동의 행복감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고(이봉주 외, 2020),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것과 외출제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최혜정, 김형관, 2021). 또한 집중력 저하, 조르는 행동 증가, 수면장애, 악몽, 식욕저하, 초조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슬픔과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부모의 죽음에 대한 공포, 병원에 고립될 것에 대한 공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심리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발표되었다(Medical Observer. 2021. 11. 19).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히 빈곤, 만성질환 학생, 과거의 부정적 사건경험(ACEs)을 경험한 고위험 학생의 경우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소희, 2021).

아동기의 심리정서 문제는 대인관계, 학교생활적응 등 여러 발달요인에 영향을 주고 스마트폰 의존도, 음주, 비행 등의 위험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윤혜미, 남영옥, 2007; 이현정, 2011; 우유라, 노충래, 2014; 박병선 외, 2017).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정서적 어려움이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키며 학업성취 역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최혜정, 김형관, 2021)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성인기 이후의 일생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이정숙, 김성재, 2009) 아동발달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박세경 외, 2014)하는 만큼 재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문제는 예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심리정서도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73.2%로 10명 중 7명 정도는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미취학아동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 아동보다 높았다(이봉주 외, 2020). 또한 김영란(2020)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4%가 가족원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3%는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코로나 확산 이후 여성의 돌봄 부담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육아와 같은 아동 돌봄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최아라, 2020). 역으로 아동 역시 코로나19 이후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혜정, 김형관, 2021).

재난상황에서 부모와 한 공간에 장시간 같이 지내면서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을 받아내며 돌봄을 받는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자신의 힘든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서툴고 안정된 공간을 찾아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블루 상황을 고려한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정익중 외, 2020). 또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인 부모의 심리정서 상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학대와 사이버 폭력

보건복지부(2021)에서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와 판단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다만 2020년 신고건수 증가율은 2.1%로 2017년 15.1%, 2018년 6.6%, 2019년 13.7%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판단사례 증가율 또한 2020년에 2.9%로 2017년 19.6%, 2018년 10.0%, 2019년 22.1% 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수치상으로만 보면 아동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학대와 방임이 사회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음성화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감소는 아동학대의 감소를 반영한다기보다 학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휴교, 휴원과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최아라, 2020).

〈표 1〉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아동학대 신고	건수	34,169	36,417	41,389	42,251
	증가율	15.1	6.6	13.7	2.1
아동학대 판단사례	건수	22,367	24,604	30,045	30,905
	증가율	19.6	10.0	22.1	2.9

* 출처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공론화되면서 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 아동학대와 방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한계로 예방과 대응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아동들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부모 곁에서 예기치 않은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Kousky, 2016; 정익중 외, 2020에서 재인용).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서학대와 가정 내 체벌, 가정 폭력 목격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높았다(이봉주 외, 2020). 또한 외벌이 가정과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학대 노출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정익중 외, 2020).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과 가족원의 높은 스트레스 지속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최아라, 2020).

또한 재난 상황에서 부모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아동 돌봄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고 방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정익중 외, 2020). 반대로 맞벌이 부부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등교 확대 등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봉주, 장희선(2021a)의 연구에서 ‘정서학대·방임’과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 잠재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요인(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낮은 부부관계 만족도, 보호자의 높은 불안 등)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 요인(양육스트레스 증가와 소득 감소, 나홀로 아동 증가)이 ‘정서학대·방임’과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의 잠재유형에 속할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와 방임 외에도 온라인상의 폭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학 및 등교 연기, 원격 수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아동들이 장기간 자택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조상현, 정병수, 2021) 청소년 관련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1.8%에서 2020년에 20.7%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외, 2020). 과도한 미디어 이용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 공격성, 충동성, 식습관, 비만 등과 관련되어 건강상태 불균형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김효선, 2002; 임웅, 김상국, 2012; 김영미, 202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아동들의 미디어 중독은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정익중 외, 2020). 따라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와 방임, 사이버 폭력 등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가정, 보호자 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교육격차 심화

온라인 학습을 위한 환경 마련과 지원체계 없이 이루어진 온라인 강의는 디지털활용 격차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최아라, 2020). 사실 교육격차 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배경에 따라 학습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는 학교 역할이 줄어들고(김위정, 2020), 가정이 학습공간의 중심이 되면서 가정배경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업에 반영되는 환경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돌봄 공백으로 혼자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 아동,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학습 결손과 취약한 디지털 활용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최아라, 2020).

2020년 굿네이버스 연구결과, 가구 소득에 따라 온라인 수업 준비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된 가구의 아동은 소득이 동일하거나 증가한 가구의 아동에 비해 컴퓨터, 인터넷 등 온라인 수업도구와 환경이 준비되었다는 응답이 낮았으며, 수업진행에 대한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정도도 낮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았다(이봉주 외,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온라인 수업을 듣는 환경과 학습 여건이 열악하고, 온라인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선생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박미희(2020)의 연구결과와 연결된다. 또한 정익중 외(2020)의 연구에서 코로나 이전에 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코로나 이후 공부시간이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 상황에서 공교육의 공백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보다 뒤쳐질까 두려운 학습 불안이 교육과열 현상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온라인 수업 준비정도, 학습태도 등 교육 관련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속되었을 때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아동 연령에 따른 교육격차를 파악하고, 가구소득변화와 돌봄 공백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연구 개요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경제,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가구 소득수준 변화, 돌봄 부담 증가, 감염 불안에 따른 등교제한과 온라인 교육 도입은 보호자와 아동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학대와 방임,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가정폭력 목격 및 체벌 경험 등 발달상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였다. 반복되는 휴교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면서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재난이 미친 영향의 크기는 공평하지 않았고, 이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주 외(2020)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비대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 환경 또한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코로나19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소득변화와 돌봄공백에 따른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의 후속연구이다. 2020년 진행된 1차 연구의 방향이 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아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초기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면, 2021년 2차 연구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친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격차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첫째,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일상과 심리정서, 학업 상황 등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의 연구인 2018년 대한민국 아동 권리지수와 코로나19 발생 직후 실시한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결과와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권리 이슈와 지원방안을 고민한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횡단연구에 그치고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가구소득 변동과 돌봄 공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조사에 참여한 1,367명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심리정서, 가정 내 학대 및 방임, 사이버폭력,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아동과 보호자의 삶의 변화를 다방면으로 탐색하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아동의 보호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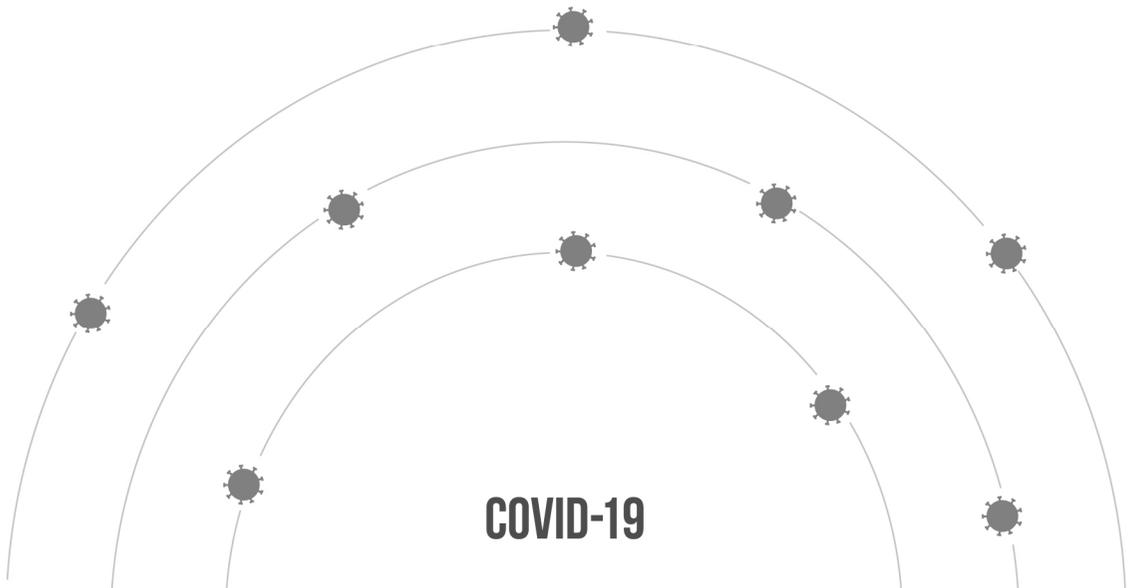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II

조사 설계



II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굿네이버스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응답이 어려운 만4세~9세 아동은 보호자가 대리 응답하였으며,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에서 지역별, 아동 연령별 비례할당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아동 재난대응 실태 조사개요

구분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조사 대상	만 4세~고등학교 3학년 아동 및 보호자 (*만4세~9세 아동은 보호자 대리 응답)	
조사 규모	아동 3,308명, 보호자 3,308명	아동 3,927명, 보호자 3,927명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0년 6월 19일~25일(7일간)	2021년 4월 1일~5월 3일(33일간) ※ 2020년 동일패널 수집으로 조사 수행 기간 증가

2 지표 체계

본 연구에서는 지표를 아동용과 부모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세한 지표의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아동용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식습관(아동의 식습관 변화, 미등교/등교 기간 중 하루 세 끼 섭취 여부, 평일 세 끼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한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가정 내 돌봄 상황, 아동의 만족도 변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 가장 많이 한 활동, 가정 내 활동 시간, 생활변화, 안정감), 심리정서(아동의 감정 변화, 최근 스트레스 요인 및 어려움 정도, 2주 이상 슬픔/죽고 싶다는 생각,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든 점, 코로나 이후 힘들 해소 방안, 최근 3개월 간 가장 많이 느낀 감정, 코로나 블루 정도, 코로나 블루 수

준, 코로나 공포,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종류/만족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 가정 환경(온라인 수업 기간 중 주로 함께 있었던 사람, 아동학대 경험, 온라인 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가정 내 체벌 경험, 가정 폭력 목격 경험), 온라인 학습(초등학생 이상: 온라인 교육 환경, 등교/온라인 수업 만족도,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 사항, 학교 성적,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인한 갈등), 여가시간(아동의 수면 및 여가활동 시간), 코로나 참여 및 지원(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_세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아동권리(코로나19 이후 장단점 및 바람, 재난 정책에 관한 아동참여, 재난 상황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 아동권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3〉 아동용 지표 구성

영역	조사 항목 ¹⁾	출처	부모 아동 매칭	문항 수	표번호
코로나19 이후 식습관	아동의 식습관 변화	이봉주 외(2018)		6	표 7
	미등교/등교 기간 중 하루 세 끼 섭취 여부*	연구진		2	표 8
	평일 세 끼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한 이유 (미등교/등교, 가정형편)	이봉주 외(2018) 수정		3	표 9 표 10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변화	가정 내 돌봄 상황	Germany(2020)		2	표 27
	아동의 만족도 변화 (집안 분위기,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연락)	Germany(2020) 수정	일부 매칭	4	표 51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이봉주 외(2018) 수정		1	표 19
	가장 많이 한 활동(순위)	연구진		2	표 14 ~ 표 18
	가정 내 활동 시간	Germany(2020), Israel(2020)		5	-
	생활변화 (취미 및 개인 활동, 시간활용, 일상생활, 건강상태)	이봉주 외(2020) 수정	일부 매칭	4	표 12 표 46 표 47 표 53
	안정감 (집/동네/우리나라/코로나바이러스)	Israel(2020)		4	표 55

영역	조사 항목 ¹⁾	출처	부모 아동 매칭	문항 수	표번호
심리정서	아동의 감정 변화 (행복한, 불안한, 지루한, 외로움)	Israel(2020)	매칭	4	표 56
	최근 스트레스 요인 및 어려움 정도 (공부/친구/가족/외모/경제적/코로나)	이봉주 외(2018) 수정		6	표 68 표 69
	2주이상 슬픔, 죽고 싶다는 생각	이봉주 외(2018) 수정		1	표 67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든 점(순위)	연구진		1	표 69
	코로나 이후 힘들 해소 방안	연구진		1	표 71
	최근 3개월 간 가장 많이 느낀 감정(순위)*	주석진(2020) 수정	매칭	1	표 58
	코로나 블루 정도*	연구진	매칭	1	표 61
	코로나 블루 수준*	연구진	매칭	1	표 62
	코로나 공포*	Ahorsu 등(2020)	매칭	7	표 65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	연구진	매칭	1	표 72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종류/만족도*	연구진	매칭	3	표 73 표 74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순위)*	연구진	매칭	1	표 76
가정환경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주로 함께 있었던 사람*	연구진		1	표 30
	아동학대 경험	이봉주 외(2018) 수정	매칭	9	표 39 ~ 표 42
	온라인 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연구진		5	표 45
	가정 내 체벌 경험	연구진		2	표 43
	가정폭력 목격 경험		표 44		
온라인 학습 (초등 이상)	온라인 교육 환경	연구진		8	표 21
	등교/온라인 수업 만족도*	연구진		2	표 23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 사항*	연구진		4	표 22
	학교 성적*	연구진		1	표 24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	연구진		2	표 25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인한 갈등	연구진		1	표 13
여가시간	아동의 수면 및 여가 활동 시간	이봉주 외(2018) 수정		6	표 11

영역	조사 항목 ¹⁾	출처	부모 아동 매칭	문항 수	표번호
코로나 참여 및 지원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세부)*	연구진	매칭	10	표 83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	Germany(2020)		1	표 46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순위)*	연구진	매칭	1	표 85
아동권리	코로나19 이후 장단점 및 바람*	연구진		3	그림1 ~ 그림 3
	재난 정책에 관한 아동참여	연구진		1	표 47
	재난 상황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침해된 권리, 순위)	연구진		1	표 78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신경써야할) 아동권리(순위)*	연구진		1	표 79
총계				120	

주1) 일부 지표명이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1차)'와 변경되어 1차와 동일 문항이나 지표명이 다를 수 있음.
2020년 조사되었던 현재 등교 여부, 아동권리인식, 충분한 음식보유, 타인 소통 방법, 코로나 예방 수칙 및 대응,
코로나 인식, 코로나 대화 참여, 등교 수업 시 걱정 등의 문항 삭제

주2) 일부 지표의 경우 조사되었으나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음

* 해당 문항은 2021년도에 추가된 신규 문항임

다음으로 부모용 지표는 건강(생활변화), 온라인 개학 및 사교육(온라인 교육 환경, 코로나 19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 아동 증상(아동의 심리정서 반응, 코로나로 인한 자녀 증상_세부), 돌봄 및 양육 스트레스(가정에서의 어려움, 현재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홀로 아동, 나홀로 아동 증가 비율, 대면 수업 기간/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 및 일평균 돌봄 시간, 부모 역할 및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대 행위), 심리정서(보호자의 감정 변화, 보호자의 만족도 변화, 양육자가 경험한 어려움 동의정도,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이 느낀 감정, 코로나 블루 정도, 코로나 블루 수준, 코로나 공포, 상담 혹은 도움받고 싶었던 경험,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종류/만족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 정부 대응(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_세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4〉 부모용 지표 구성

영역	조사 항목	출처	부모/ 아동 매칭	문항수	표번호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생활변화 (시간활용, 일상생활, 건강상태)	이봉주 외(2020) 수정	일부 매칭	3	표 48 표 50 표 54
	보호자의 만족도 변화 (집안분위기,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경제적 상황)	Germany(2020)	일부 매칭	4	표 52
온라인 개학 및 사교육	온라인 교육 환경	아동권리보장원(2020)		6	표 20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	이봉주 외(2018) 수정		2	표 26
아동 증상	아동의 심리정서 반응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참고		4	표 60
	코로나로 인한 자녀 증상(세부)			3	-
돌봄 및 양육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어려움	이봉주 외(2020)		10	표 80
	현재 가장 힘들게 하는 것(순위)			1	표 81
	나홀로 아동	이봉주 외(2018) 변형		2	표 28
	나홀로 아동 증가 비율				표 29
	대면 수업 기간/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 및 일평균 돌봄 시간(순위)*	연구진		2	표 31 표 32 표 33
부모 역할 및 양육 스트 레스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발달심리학회 (2020)		4	표 35
	자녀의 수업 방식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표 36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느낀 양육스트레스		표 3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8		
	아동학대 행위	이봉주 외(2018) 변형	매칭	9	표 39 ~ 표 42

영역	조사 항목	출처	부모/ 아동 매칭	문항수	표번호
심리정서	보호자의 감정 변화 (행복한, 불안한, 지루한, 외로움)	Israel(2020)	매칭	4	표 57
	양육자가 경험한 어려움 동의 정도	주석진(2020) 변형		9	표 34
	최근 3개월 간 가장 많이 느낀 감정(순위)*	주석진(2020) 변형	매칭	1	표 59
	코로나 블루 정도*	연구진	매칭	1	표 62
	코로나 블루 수준*	연구진	매칭	1	표 64
	코로나 공포*	Ahorsu 등(2020)	매칭	7	표 66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	연구진	매칭	1	표 72
	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종류/만족도*	연구진	매칭	3	표 73 표 75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순위)*	연구진	매칭	1	표 77
정부대응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	연구진		2	표 82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세부)*	연구진	매칭	10	표 84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순위)*	연구진	매칭	1	표 85
총계				91	

* 해당 문항은 2021년도에 추가된 신규 문항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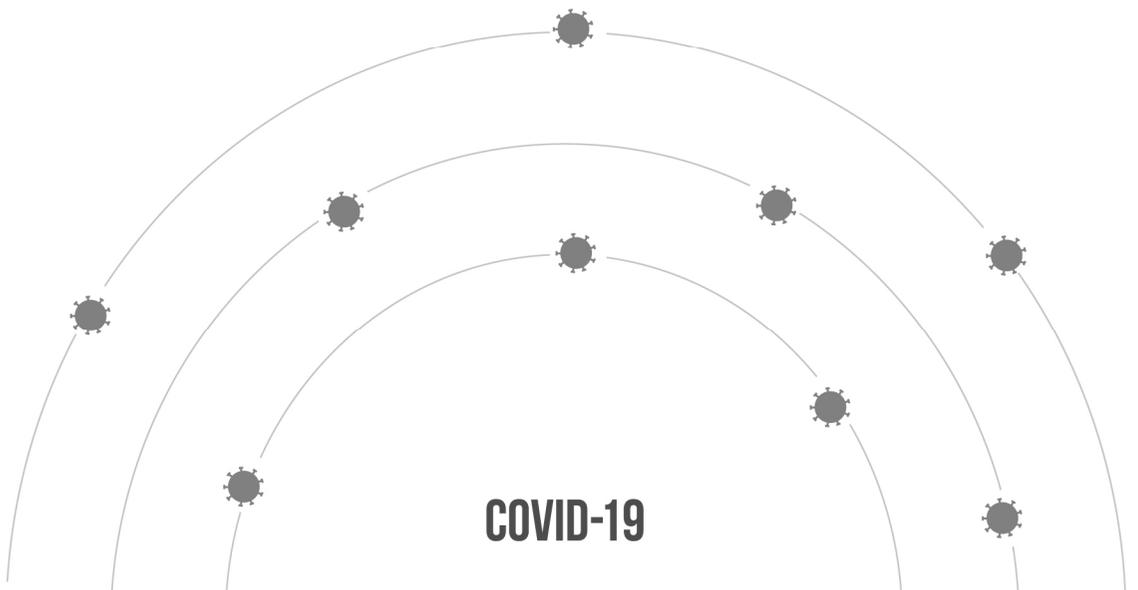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Ⅲ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기초 분석



III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기초 분석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5〉에서 2020년과 2021년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2020년과 2021년의 아동과 보호자 모두 남녀가 각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아동 연령은 초등 저학년생(25.6%)>미취학아동(24.1%)>초등 고학년생(18.4%)>중학생(16.4%)>고등학생(15.5%)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가구 형태 역시 95.0%가 양부모 가정으로 나타나 2020년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가정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나타나 2020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⁴⁾

〈표 5〉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2020년	2021년 ⁴⁾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N(%)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N(%)
아동 요인	성별	여자	1,658(50.1)	1,882(47.9)
		남자	1,650(49.9)	2,045(52.1)
	학년	미취학 아동(만4-6세)	822(24.8)	945(24.1)
		초등 저학년생(초1-초3)	830(25.1)	1,007(25.6)
		초등 고학년생(초4-초6)	570(17.2)	721(18.4)
		중학생(중1-중3)	555(16.8)	644(16.4)
		고등학생(고1-고3)	531(16.1)	610(15.5)
보호자 요인	성별	여자	1,722(52.1)	2,211(56.3)
		남자	1,586(47.9)	1,716(43.7)
	연령	만30-34세	307(9.3)	251(6.4)
		만35-39세	804(24.3)	994(25.3)
		만40-44세	1,174(35.5)	1,530(39.0)
		만45-50세	945(28.6)	1,001(25.5)
		만 51세 이상	78(2.4)	151(3.8)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2020년 통계는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한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재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보고서에 명시된 통계와 상이함을 밝힌다.

구 분			2020년	2021년 ⁵⁾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N(%)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N(%)	
보호자 요인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	1,721(52.0)	2,210(56.3)	
		아버지	1,586(47.9)	1,716(43.7)	
		할머니	-	1(0.0)	
		친인척(이모, 고모 등)	-	-	
		기타	1(0.0)	-	
	최종 학력	무학	2(0.1)	3(0.1)	
		초졸	5(0.2)	4(0.1)	
		중졸	3(0.1)	4(0.1)	
		고졸	412(12.5)	410(10.4)	
		대졸	2,502(75.6)	3,012(76.7)	
		대학원졸	384(11.6)	494(12.6)	
	가정 요인	가구 형태	조손가정 ⁶⁾	38(1.1)	23(0.6)
			한부모가정	141(4.3)	151(3.8)
재혼가정			21(0.6)	16(0.4)	
양부모가정			3,104(93.8)	3,731(95.0)	
친인척 가정			-	5(0.1)	
기타			4(0.1)	1(0.0)	
주관적 소득 수준		하위권	333(10.1)	446(11.4)	
		중하위권	1,287(38.9)	1,565(39.9)	
		중위권	1,350(40.8)	1,580(40.2)	
		중상위권	316(9.6)	315(8.0)	
		상위권	22(0.7)	21(0.5)	
월평균 소득 (코로나 이전)		200만원 미만	114(3.4)	113(2.9)	
		200~400만원 미만	1,011(30.6)	1,047(26.7)	
		400~600만원 미만	1,243(37.6)	1,534(39.1)	
		600~800만원 미만	608(18.4)	814(20.7)	
		800만원 이상	332(10.0)	419(10.7)	
월평균 소득 (코로나 이후)		200만원 미만	224(6.8)	190(4.8)	
		200~400만원 미만	1,077(32.6)	1,166(29.7)	
	400~600만원 미만	1,186(35.9)	1,448(36.9)		
	600~800만원 미만	535(16.2)	735(18.7)		
	800만원 이상	286(8.6)	388(9.9)		
소득 변동성	코로나19 전보다 감소	1,196(36.2)	1,386(35.3)		
	코로나19 전과 동일	2,056(62.2)	2,245(57.2)		
	코로나19 전보다 증가	56(1.7)	296(7.5)		
전 체			3,308(100)	3,927(100)	

5) 해당 표 이후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는 모두 2020, 2021로 연도만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지역별 집단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1순위는 경기도 (27.1%), 2순위는 서울(17.9%), 3순위는 부산(7.0%)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비율이 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세종이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 지역 분포도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서울	148(18.0)	129(15.5)	82(14.4)	117(21.1)	115(21.7)	591(17.9)
부산	55(6.7)	66(8.0)	37(6.5)	38(6.8)	34(6.4)	230(7.0)
대구	36(4.4)	53(6.4)	41(7.2)	33(5.9)	27(5.1)	190(5.7)
인천	59(7.2)	47(5.7)	31(5.4)	27(4.9)	31(5.8)	195(5.9)
광주	28(3.4)	23(2.8)	28(4.9)	34(6.1)	22(4.1)	135(4.1)
대전	23(2.8)	20(2.4)	19(3.3)	21(3.8)	22(4.1)	105(3.2)
울산	19(2.3)	20(2.4)	3(0.5)	8(1.4)	15(2.8)	65(2.0)
경기도	238(29.0)	218(26.3)	161(28.2)	152(27.4)	127(23.9)	896(27.1)
강원도	16(1.9)	16(1.9)	16(2.8)	7(1.3)	13(2.4)	68(2.1)
충청북도	28(3.4)	19(2.3)	12(2.1)	14(2.5)	15(2.8)	88(2.7)
충청남도	32(3.9)	34(4.1)	22(3.9)	12(2.2)	22(4.1)	122(3.7)
전라북도	33(4.0)	43(5.2)	24(4.2)	21(3.8)	21(4.0)	142(4.3)
전라남도	19(2.3)	27(3.3)	12(2.1)	8(1.4)	9(1.7)	75(2.3)
경상북도	29(3.5)	41(4.9)	30(5.3)	18(3.2)	17(3.2)	135(4.1)
경상남도	40(4.9)	54(6.5)	38(6.7)	28(5.0)	34(6.4)	194(5.9)
제주도	11(1.3)	13(1.6)	9(1.6)	7(1.3)	2(0.4)	42(1.3)
세종	8(1.0)	7(0.8)	5(0.9)	10(1.8)	5(0.9)	35(1.1)

앞서 살펴본 특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2021년 수집된 아동과 보호자 7,854명(아동 3,927명, 보호자 3,927명)⁶⁾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4대 권리 측면에서 아동의 삶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

6) 2020년과 2021년 모두 조손가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있으나 아동과의 관계에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현상으로 아동의 할머니 및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한부모 또는 양부모 가정이 조손가정으로 응답한 것에 기인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7)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생 아동은 부모가 대리 응답하였다.

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수행한 3개년도 연구를 비교하였다.⁸⁾ 분석 방법은 아동의 연령, 소득 수준 변화 등을 바탕으로 χ^2 검증과 t-검정, F-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을 함께 제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2 지속되는 재난 상황과 아동권리

1) 생존권

아동의 생존권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습관(식습관, 식사 현황, 결식 이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코로나19와 아동의 식습관

아동의 식습관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대면/비대면 수업 기간에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챙겨먹는 정도, 결식 사유 등을 논의하였다.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식습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습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식습관을 이해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인 2018년, 코로나 발생 후인 2020년, 코로나 1년 뒤인 2021년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규칙적인 식사(2018년 69.4%, 2020년 65.8%, 2021년 60.3%)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2018년 48.4%, 2020년 34.2%, 2021년 28.3%)는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고기반찬 섭취(2018년 15.7%, 2020년 16.4%, 2021년 24.8%)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2018년 4.7%, 2020년 6.0%, 2021년 5.9%)는 코로나19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마지막

8) 3개년도 연구란 굿네이버스가 수행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일상회복: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 이다.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는 당시에 발행된 기존 보고서에 명시된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2020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은 당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일상회복: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I'는 본 보고서의 명칭으로, 코로나 발생 1년 이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여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으로 우유 섭취(2018년 53.9%, 2020년 33.6%, 2021년 36.4%)는 코로나 발생 후인 2020년 감소하였으나 1년 후인 2021년 소폭 상승하였다.

즉, 코로나19 발생 이후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우유 섭취가 감소하고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는 증가하는 등 아동의 식생활 안전(영양)이 위협받고 있었다.

〈표 7〉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습관 변화

구분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	고기반찬 섭취	우유 섭취	배달음식	
	N(%)	N(%)	N(%)	N(%)	N(%)	N(%)	
전혀 먹지 않음	17(0.4)	107(2.7)	453(11.3)	14(0.4)	378(9.5)	482(12.1)	
1주일에 1-2일	487(12.2)	1,228(30.7)	2,402(60.1)	1,060(26.5)	1,115(27.9)	2,851(71.4)	
1주일에 3-4일	1,098(27.5)	1,536(38.5)	904(22.6)	1,933(48.4)	1,049(26.3)	561(14.0)	
1주일에 5일 이상	2018	6,368(69.4)	4,441(48.4)	431(4.7)	1,440(15.7)	4,946(53.9)	-
	2020	2,178(65.8)	1,130(34.2)	197(6.0)	542(16.4)	1,111(33.6)	-
	2021	2,368(60.3)	1,110(28.3)	230(5.9)	973(24.8)	1,428(36.4)	96(2.4)

④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식사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수업 기간(미등교 기간)과 등교/등원 대면수업 기간을 구분하여 식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주로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미등교 기간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끼 중에서는 ‘아침 결식’의 비율이 미등교 기간 32.6%, 등교 기간 20.3%로 점심 결식(미등교 기간 2.5%, 등교 기간 1.9%), 저녁 결식(미등교 기간 1.6%, 등교 기간 1.3%)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심화되었다.

〈표 8〉 코로나19 이후 미등교/등교 기간 중 하루 세 끼 섭취 여부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미등교 :아침	주로 먹지 않음	288 (30.5)	237 (23.5)	162 (22.5)	249 (38.7)	343 (56.2)	1,279 (32.6)
	주로 먹음	657 (69.5)	770 (76.5)	559 (77.5)	395 (61.3)	267 (43.8)	2,648 (67.4)
미등교 :점심	주로 먹지 않음	18 (1.9)	15 (1.5)	18 (2.5)	20 (3.1)	28 (4.6)	99 (2.5)
	주로 먹음	927 (98.1)	992 (98.5)	703 (97.5)	624 (96.9)	582 (95.4)	3,828 (97.5)
미등교 :저녁	주로 먹지 않음	8 (0.8)	7 (0.7)	3 (0.4)	15 (2.3)	28 (4.6)	61 (1.6)
	주로 먹음	937 (99.2)	1,000 (99.3)	718 (99.6)	629 (97.7)	582 (95.4)	3,866 (98.4)
등교/ 등원 :아침	주로 먹지 않음	209 (22.1)	139 (13.8)	93 (12.9)	133 (20.7)	223 (36.6)	797 (20.3)
	주로 먹음	736 (77.9)	868 (86.2)	628 (87.1)	511 (79.3)	387 (63.4)	3,130 (79.7)
등교/ 등원 :점심	주로 먹지 않음	24 (2.5)	15 (1.5)	9 (1.2)	10 (1.6)	16 (2.6)	74 (1.9)
	주로 먹음	921 (97.5)	992 (98.5)	712 (98.8)	634 (98.4)	594 (97.4)	3,853 (98.1)
등교/ 등원 :저녁	주로 먹지 않음	11 (1.2)	3 (0.3)	1 (0.1)	14 (2.2)	22 (3.6)	51 (1.3)
	주로 먹음	934 (98.8)	1,004 (99.7)	720 (99.9)	630 (97.8)	588 (96.4)	3,876 (98.7)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② 결식 이유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등교/등원(대면 수업) 및 미등교(온라인 수업) 결식사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등교/등원 시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먹었다고 응답한 아동은 48.0%이고, 미등교시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먹었다고 응답한 아동은 37.5%로 나타나 10.5%p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 동안 더 많은 결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식을 먹지 못해 결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이 더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끼니를 걸렸다는 아동이 등교/등원 시 5.1%, 미등교 시 8.2%로 미등교 시 식사 챙김을 받지 못한 비율이 3.1%p 높았다. 즉,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 동안 돌봄 공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끼니를 걸렸다는 아동은 등교/등원 시 23.6%, 미등교시 24.4%로 나타나 0.8%p의 약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모두 20%이상의 높은 비율이 유지되어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불규칙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미등교 결식 사유

구 분	미등교 결식 사유 (온라인 수업)		등교/등원시 결식 사유 (대면 수업)	
	N(%)	순위	N(%)	순위
해당 없음 (세 끼 모두 챙겨 먹음)	1,842(37.5)	1	2,200(48.0)	1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1,198(24.4)	3	1,083(23.6)	2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1,214(24.7)	2	900(19.6)	3
식사 챙겨주지 않아서	403(8.2)	4	234(5.1)	4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135(2.8)	5	70(1.5)	6
살 빠려고 혹은 건강문제 때문에	110(2.2)	6	83(1.8)	5
기 타 ¹⁾	5(0.1)	7	12(0.3)	7
전 체	4,907(100) ²⁾	-	4,582(100)	-

주1) 맛이 없어서, 재료 상태가 안 좋아서, 식곤증이 올라봐, 대면 수업 실시(비대면 수업 한적 없음), 긴급돌봄으로 등원하여 저녁만 집에서 먹음, 간식을 먹어서 등

주2) 일부 아동의 경우 중복으로 응답하였기에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조사 참여 대상 아동을 초과함.

〈표 10〉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아동의 결식경험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 끼를 모두 챙겨먹은’ 아동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0.1%)에 비해 2020년(35.3%)과 2021년(37.5%)에 약 15%p 감소하여 4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역으로 보면,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먹지 못한 아동은 2018년 49.9%이나, 2020년에는 64.7%, 2021년에 62.5%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6명 이상의 아동이 결식을 경험한 것이다.

조사된 결식 이유 중,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유는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와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이다. 이 문항의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끼니를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2018년 1.3%였으나,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8.8%,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된 2021년에는 8.2%로 증가하였다.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끼니를 걸렸다고 응답한 아동은 2018년 0.1%에서 2020년은 1.9%, 2021년은 2.8%로 증가하였다.

〈표 10〉 결식 이유

구 분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1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²⁾	
	N(%)	순위	N(%)	순위	N(%)	순위
해당 없음 (세 끼 모두 챙겨 먹음)	4,249(50.1)	1	1,344(35.3)	1	1,842(37.5)	1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2,214(26.1)	2	765(20.1)	3	1,198(24.4)	3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1,705(20.1)	3	1,147(30.1)	2	1,214(24.7)	2
식사 챙겨주지 않아서	110(1.3)	4	337(8.8)	4	403(8.2)	4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9(0.1)	7	74(1.9)	6	135(2.8)	5
살 빠려고 혹은 건강문제 때문에	178(2.1)	5	135(3.5)	5	110(2.2)	6
기 타	17(0.2)	6	7(0.2)	7	5(0.1)	7
전 체 ¹⁾	8,482(100)	-	3,809(100)	-	4,907(100)	-

주1) 일부 아동의 경우 중복으로 응답하였기에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조사 참여 대상 아동을 초과하였으며, 데이터 가중치 수정 등으로 수치 일부 변경됨.

주2) 미등교 기간(온라인 수업) 중 아동의 결식 사유

2) 발달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권을 아동의 수면 및 주요 여가활동 변화, 온라인 교육 환경, 사교육 이용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코로나19와 아동의 수면 및 여가활동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수면 및 여가활동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 및 여가활동 시간, 인터넷/스마트폰 게임시간, 놀이 및 휴식시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아동의 수면 및 여가활동 시간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수면 및 여가활동 시간의 변화는 <표 11>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수면시간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0.7시간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 변화가 없었다(2018년 7.6시간, 2020년 8.3시간, 2021 8.3시간).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을 제외한 놀이 및 휴식시간은 2020년 조사에 비해 2021년 0.2시간 상승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2020년 2.8시간, 2021년 3.0시간),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시간 또한 코로나19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2.2시간, 2021년 2.2시간).

〈표 11〉 아동의 수면 및 여가 활동 시간

(단위: 시간)

구 분 ²⁾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수면 시간	2018 ¹⁾	-	-	8.1 (1.63)	7.1 (1.59)	-	7.6 (1.69)	608.483 ***
	2020	8.6 (2.92)	8.4 (2.49)	8.8 (1.02)	8.2 (1.21)	7.6 (1.47)	8.3 (2.14)	26.075 ***
	2021	9.0 (2.62)	8.8 (2.01)	8.4 (1.84)	7.7 (1.75)	6.9 (1.93)	8.3 (2.23)	124.831 ***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시간	2020	1.5 (1.33)	1.9 (1.52)	2.3 (1.70)	3.1 (1.99)	2.9 (1.95)	2.2 (1.78)	105.536 ***
	2021	1.6 (1.49)	2.0 (1.79)	2.2 (1.82)	2.8 (1.86)	2.7 (2.12)	2.2 (1.85)	62.092 ***
놀이 및 휴식 시간	2020	3.9 (2.68)	3.0 (1.78)	2.5 (1.49)	2.1 (1.39)	2.0 (1.35)	2.8 (2.02)	115.071 ***
	2021	4.6 (3.35)	3.1 (2.09)	2.3 (1.47)	2.0 (1.67)	2.0 (1.55)	3.0 (2.46)	189.036 ***

주1)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서 아동의 수면시간은 기입식 보고의 문항 특성상, 초등 4학년을 제외한 초등 6학년 과 중등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주2) 2020년과 2021년 모두 온라인 수업기간의 아동 수면 및 여가 활동 시간을 측정함.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은 '학업 목적의 사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놀이 및 휴식시간은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 p < .05, ** p < .01, *** p < .001

③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미 및 개인활동 변화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취미와 개인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0~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미 및 개인활동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 연령의 아동이 5점 이하로 응답하여 취미 및 개인활동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취미 및 개인활동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취미 및 개인활동 인식	3.9 (1.71)	4.0 (1.83)	4.2 (1.98)	4.2 (2.02)	3.8 (1.87)	4.0 (1.87)	7.880 ***

* p < .05, ** p < .01, *** p < .001

③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인한 갈등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이 발생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2020년(47.4%)과 2021년(48.8%) 모두 절반 이상의 아동이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 비율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2020	266 (32.4)	392 (47.2)	338 (59.3)	325 (58.6)	247 (46.5)	1,568 (47.4)
2021	333 (35.2)	491 (48.8)	421 (58.4)	378 (58.7)	294 (48.2)	1,917 (48.8)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가. 미취학 아동

〈표 14〉에서 미취학 아동이 2021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순위 ‘영유아 교육 외 내용의 TV 및 유튜브 시청하기(26.7%)’, 2순위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16.4%)’, 3순위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시청(15.7%)’, 4순위 ‘성인과 함께 놀이활동 하기(15.2%)’, 5순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8.9%)’, 6순위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4.9%)’, 7순위 ‘집안일 함께하기(4.7%)’, 8순위 ‘사적인 교육활동(학원, 과외 등)(4.3%)’, 9순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1.8%)’, 10순위 ‘돌봄교실, 센터, 방과후 교실 가기(1.5%)’ 이다. 2020년과 2021년 순위는 6순위, 7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했으며 비율 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성인과 함께 놀이활동 하기, 돌봄교실, 센터, 방과후교실 가기,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집안일 함께 하기’ 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의 비율(%)은 감소하고,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시청, 영유아 교육 외 내용의 TV 및 유튜브 시청하기,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활동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미취학 아동)

구 분	2020		2021	
	점수 ¹⁾ (%)	순위	점수 ¹⁾ (%)	순위
집안일 함께하기(요리, 식사 차리기 등)	325(6.7)	6	264(4.7)	7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169(3.5)	9	102(1.8)	9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시청	712(14.6)	3	893(15.7)	3
사적인 교육활동(학원, 과외 등)	178(3.6)	8	241(4.3)	8
영유아 교육 외 내용의 TV 및 유튜브 시청하기	1,190(24.4)	1	1,513(26.7)	1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475(9.7)	5	506(8.9)	5
성인과 함께 놀이활동 하기	681(13.9)	4	863(15.2)	4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196(4.0)	7	276(4.9)	6
돌봄교실, 센터, 방과후교실 가기	82(1.7)	10	83(1.5)	10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876(17.9)	2	929(16.4)	2
총 계	4,884(100)	-	5,670(100)	-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나. 초등 저학년생

〈표 15〉에서 초등 저학년생 아동이 2021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순위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19.7%)’, 2순위는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18.7%)’, 3순위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8.3%)’, 4순위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15.7%)’, 5순위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11.9%)’, 6순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6.7%)’, 7순위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3.3%)’, 8순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2.7%)’, 9순위 ‘집안일 돕기(1.8%)’, 10순위 ‘SNS 활동하기(1.3%)’이다. 2020년과 2021년 활동 순위는 모두 동일하였다.

〈표 15〉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초등 저학년생)

구분	2020		2021	
	점수 ¹⁾ (%)	순위	점수 ¹⁾ (%)	순위
집안일 돕기	149(3.1)	9	106(1.8)	9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196(4.1)	8	164(2.7)	8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1,131(23.7)	1	1,188(19.7)	1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592(12.4)	4	950(15.7)	4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854(17.9)	2	1,130(18.7)	2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278(5.8)	6	405(6.7)	6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	245(5.1)	7	199(3.3)	7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706(14.8)	3	1,108(18.3)	3
SNS 활동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77(1.6)	10	76(1.3)	10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536(11.3)	5	716(11.9)	5
총 계	4,764(100)	-	6,042(100)	-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다. 초등 고학년생

〈표 16〉에서 초등 고학년생 아동이 2021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순위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22.0%)’, 2순위는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9.2%)’, 3순위 ‘학교 정규 수업 외 공부(17.2%)’, 4순위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12.6%)’, 5순위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7.6%)’, 6순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4.5%)’, 7순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3.9%)’, 8순위는 공동으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3.3%)’, ‘SNS 활동하기(3.3%)’, 10순위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2.5%)’, 11순위 ‘친구들 만나기(2.0%)’, 12순위 ‘집안일 돕기(1.9%)’이다. 2020년에 비해 혼자 하는 활동(영화 및 TV 등 보기,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SNS 활동하기)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6〉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초등 고학년생)

구 분	2020		2021	
	점수 ¹⁾ (%)	순위	점수 ¹⁾ (%)	순위
집안일 돕기	81(2.4)	9	84(1.9)	12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169(4.9)	6	168(3.9)	7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928(27.1)	1	951(22.0)	1
학교 정규 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571(16.7)	3	746(17.2)	3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415(12.1)	4	546(12.6)	4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56(1.6)	11	142(3.3)	8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	78(2.3)	10	107(2.5)	10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631(18.5)	2	832(19.2)	2
SNS 활동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86(2.5)	8	142(3.3)	8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250(7.3)	5	328(7.6)	5
친구들 만나기	54(1.6)	12	86(2.0)	11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101(3.0)	7	194(4.5)	6
총 계	3,420(100)	-	4,326(100)	-

주)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라. 중학생

〈표 17〉에서 중학생이 2021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순위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 하기(22.0%)’, 2순위는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18.5%)’, 3순위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8.1%)’, 4순위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11.2%)’, 5순위 ‘SNS 활동하기(7.8%)’, 6순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5.9%)’, 7순위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5.1%)’, 8순위는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3.7%)’, 9순위 ‘집안일 돕기(2.7%)’, 10순위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1.8%)’, 11순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1.6%)’, 12순위 ‘친구들 만나기(1.6%)’ 이다.

2020년과 2021년 활동 순위는 유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은 2020년과 비교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집안일 돕기,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를 제외하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활동(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SNS 활동하기)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다른 연령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확인된다.

〈표 17〉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중학생)

구 분	2020		2021	
	점수 ¹⁾ (%)	순위	점수 ¹⁾ (%)	순위
집안일 돕기	81(2.4)	9	104(2.7)	9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95(2.9)	8	143(3.7)	8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863(25.9)	1	849(22.0)	1
학교정규수업외공부(학원, 과외 등)	599(18.0)	3	716(18.5)	2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351(10.5)	4	433(11.2)	4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40(1.2)	12	63(1.6)	11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	61(1.8)	10	68(1.8)	10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652(19.6)	2	701(18.1)	3
SNS 활동하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267(8.0)	5	302(7.8)	5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22(3.7)	7	196(5.1)	7
친구들 만나기	50(1.5)	11	60(1.6)	12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149(4.5)	6	229(5.9)	6
총 계	3,330(100)	-	3,864(100)	-

주)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마. 고등학생

〈표 18〉에서 고등학생이 2021년 가장 많이 한 활동은 1순위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22.8%)’, 2순위는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18.2%)’, 3순위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16.1%)’, 4순위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12.8%)’, 5순위 ‘SNS 활동하기(10.7%)’, 6순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5.9%)’, 7순위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3.8%)’, 8순위는 ‘집안일 돕기(2.6%)’, 9순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2.2%)’, 10순위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1.8%)’, 11순위 ‘친구들 만나기(1.7%)’, 12순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1.5%)’이다.

대체로 2020년의 활동 순위와 유사하였다. 다만 앞서 살펴본 중학생과는 반대로 2021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집안일 돕기,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활동(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SNS 활동하기)의 비율(%)은 증가하여 중학생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8〉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고등학생)

구분	2020		2021	
	점수 ¹⁾ (%)	순위	점수 ¹⁾ (%)	순위
집안일 돕기	108(3.4)	8	94(2.6)	8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75(2.4)	9	79(2.2)	9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759(23.8)	1	836(22.8)	1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613(19.2)	2	666(18.2)	2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396(12.4)	4	467(12.8)	4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36(1.1)	12	54(1.5)	12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	56(1.8)	10	65(1.8)	10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490(15.4)	3	591(16.1)	3
SNS 활동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323(10.1)	5	390(10.7)	5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29(4.0)	7	140(3.8)	7
친구들 만나기	56(1.8)	10	62(1.7)	11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145(4.6)	6	216(5.9)	6
총 계	3,186(100)	-	3,660(100)	-

주)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가활동 욕구

〈표 19〉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아동 욕구를 확인한 결과, 2020년, 2021년 모두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65.0%, 2021년 46.4%). 이 밖에도 2021년에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놀거나 시간 보내기’가 40.3%로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2020년 15.4%, 2021년 7.0%)과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관람(2020년 16.5%, 2021년 5.6%)은 2020년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9〉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관광 활동(여행, 캠핑, 소풍, 놀이공원, 식물원 가기 등)	2020	417 (73.2)	351 (63.2)	309 (58.2)	1,077 (65.0)
	2021	418 (58.0)	291 (45.2)	208 (34.1)	917 (46.4)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 (배드민턴/탁구/수영/요가 등)	2020	73 (12.8)	92 (16.6)	90 (16.9)	255 (15.4)
	2021	40 (5.5)	34 (5.3)	65 (10.7)	139 (7.0)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관람 (미술활동, 악기연주, 영화/연극보기, 박물관 가기 등)	2020	69 (12.1)	83 (15.0)	121 (22.8)	273 (16.5)
	2021	32 (4.4)	28 (4.3)	51 (8.4)	111 (5.6)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놀거나 시간 보내기(2021 추가 문항)	2021	227 (31.5)	287 (44.6)	282 (46.2)	796 (40.3)
기타	2020	11 (1.9)	29 (5.2)	11 (2.1)	51 (3.1)
	2021	4 (0.6)	4 (0.6)	4 (0.7)	12 (0.6)
총 계	2020	570 (100)	555 (100)	531 (100)	1,656 (100)
	2021	721 (100)	644 (100)	610 (100)	1,975 (100)

(2) 재난과 아동 교육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동의 교육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교육 환경과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 온라인 교육 환경

온라인 교육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 구비 수준과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수업 만족도와 학업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0~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을 받기 위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가. 온라인 교육 환경(보호자)

〈표 20〉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받기 위한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있는지 확인하였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인, 보조 선생님 등 사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응답(2020년 45.2점, 2021년 45.9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받을 장소와 공간을 집안에 마련’, ‘수업에 필요한 학습기기 준비’, ‘수업시간표 및 교구, 학습통신문 등을 미리 또는 매일 확인’,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적 자원 활용’, ‘온라인 수업 이용 방법 및 진행 관련 문의사항 발생 시 정보 획득의 편리성’은 2020년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적영역의 자원 활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그 외 항목의 준비정도가 모두 감소한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준비가 미흡함을 의미하는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인지 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 환경(보호자)

(단위: 점, 3점 만점)

구분	2020	2021
	M(SD)	M(SD)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받을 장소와 공간을 집 안에 마련	2.0 (0.67)	1.9 (0.75)
	67.0점 ⁹⁾	63.8점
수업에 필요한 학습 기기 (TV, 컴퓨터, 노트북, 화상카메라 등) 준비	2.1 (0.64)	2.1 (0.68)
	71.1점	69.7점
수업시간표 및 교구, 학습통신문 등을 미리 또는 매일 확인	2.0 (0.68)	1.9 (0.71)
	65.2점	63.9점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자원 활용 (돌봄 및 센터 이용)	1.2 (0.91)	1.2 (0.86)
	41.4점	38.8점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적 자원 활용 (지인, 보조 선생님 등)	1.4 (0.87)	1.4 (0.85)
	45.2점	45.9점
온라인 수업 이용 방법 및 진행 관련 문의 사항 발생 시 정보 획득의 편리성	1.6 (0.71)	1.3 (0.72)
	52.3점	44.7점

9) 100점 환산 점수는 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100/(척도-1)이다.

나. 온라인 교육 환경 (아동)

〈표 21〉에서 아동이 인식하는 온라인 교육환경 준비정도를 살펴보았다. 2021년 응답 아동들은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 및 환경 구비 정도(74.5점)’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항목은 2020년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평균점수가 높고 긍정적으로 인식된 문항이다. 다음으로 2021년 아동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 정도’(66.9점)와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선생님의 도움 정도(61.6점)’, ‘숙제 제출 어려움 없는 정도’(61.3점), ‘원활한 홈페이지 접속 및 동영상 활용(61.1점)’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의 진도 적합성(59.3점)’과 ‘수업 과정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도(54.9점)’, ‘숙제의 난이도와 양의 적절성(56.8점)’에서는 평균 50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2021년 결과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수업 과정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아동의 경우 ‘숙제의 난이도와 적절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온라인 수업 시 과제의 양과 난이도 조절,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환경(아동)

(단위: 점, 3점 만점)

구분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 정도(2021)	2.1 (0.64)	2.0 (0.73)	2.0 (0.73)	1.9 (0.68)	2.0 (0.69)	12.679 ***
	69.5점	68.2점	65.4점	62.7점	66.9점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선생님의 도움 정도(2021)	1.7 (0.68)	1.9 (0.63)	1.9 (0.63)	1.8 (0.60)	1.8 (0.64)	20.332 ***
	57.7점	64.9점	64.2점	61.2점	61.6점	
온라인 수업의 진도 적합성(2021)	1.7 (0.71)	1.9 (0.68)	1.8 (0.64)	1.7 (0.71)	1.8 (0.69)	12.733 ***
	57.7점	63.3점	60.1점	56.3점	59.3점	

구분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 및 환경 구비 정도	2020	2.2 (0.55)	2.3 (0.53)	2.3 (0.55)	2.2 (0.59)	2.3 (0.56)	7.007 ***
		74.9점	77.7점	78.0점	73.5점	75.9점	
	2021	2.1 (0.65)	2.3 (0.61)	2.3 (0.59)	2.3 (0.62)	2.2 (0.63)	19.198 ***
		70.6점	76.4점	77.6점	75.2점	74.5점	
홈페이지 접속 및 동영상 버벅거림 없는 정도	2020	2.0 (0.64)	1.9 (0.66)	1.9 (0.72)	1.9 (0.67)	1.9 (0.67)	4.201 **
		66.7점	64.1점	63.9점	61.8점	64.4점	
	2021	1.8 (0.69)	1.8 (0.75)	1.8 (0.68)	1.8 (0.71)	1.8 (0.71)	0.459
		61.6점	60.7점	61.5점	60.4점	61.1점	
수업 과정에서 질의응답에 대한 만족 정도	2020	1.7 (0.70)	1.7 (0.68)	1.7 (0.73)	1.6 (0.67)	1.7 (0.70)	3.262 *
		56.5점	55.8점	55.6점	52.2점	55.2점	
	2021	1.6 (0.71)	1.7 (0.68)	1.6 (0.70)	1.6 (0.70)	1.6 (0.70)	7.088 ***
		53.0점	58.1점	55.0점	54.0점	54.9점	
숙제의 난이도와 양의 적절성	2020	1.8 (0.61)	1.7 (0.63)	1.6 (0.71)	1.6 (0.66)	1.7 (0.65)	9.063 ***
		59.3점	56.5점	55.0점	52.3점	56.1점	
	2021	1.7 (0.59)	1.8 (0.65)	1.7 (0.63)	1.6 (0.64)	1.7 (0.63)	6.164 ***
		57.3점	58.4점	57.0점	53.7점	56.8점	
숙제 제출 어려움 없는 정도	2020	1.8 (0.61)	1.8 (0.62)	1.8 (0.67)	1.7 (0.63)	1.8 (0.63)	3.770 **
		61.5점	61.0점	60.4점	57.3점	60.2점	
	2021	1.8 (0.61)	1.9 (0.64)	1.9 (0.61)	1.9 (0.62)	1.8 (0.62)	9.744 ***
		58.5점	63.5점	62.4점	62.0점	61.3점	

* p < .05, ** p < .01, *** p < .001

다.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사항

아동의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사항 정도를 파악한 결과(〈표 22〉), 2021년 응답 아동들은 ‘전용 학습도구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74.2점)’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온라인수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정도(69.7점)’와 ‘온라인 수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69.5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다만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는 정도(51.2점)’는 상대적으로 나타나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상시 지원할 수 없는 보호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22〉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사항

(단위: 점, 3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전용 학습도구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1.9 (0.82)	2.2 (0.74)	2.3 (0.67)	2.4 (0.64)	2.4 (0.66)	2.2 (0.74)	57.881 ***
	64.9점	73.1점	78.1점	80.8점	78.7점	74.2점	
온라인 수업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	-	1.5 (0.87)	2.3 (0.63)	2.4 (0.59)	2.5 (0.56)	2.1 (0.83)	400.784 ***
		48.8점	77.3점	81.5점	81.7점	69.5점	
온라인수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정도	-	-	2.0 (0.72)	2.1 (0.71)	2.2 (0.70)	2.1 (0.71)	8.599 ***
			66.9점	70.7점	72.0점	69.7점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는 정도	-	1.9 (0.77)	1.6 (0.92)	1.3 (0.95)	1.2 (0.90)	1.5 (0.93)	120.167 ***
		64.0점	51.8점	43.0점	38.4점	51.2점	

* p < .05, ** p < .01, *** p < .001

라. 등교/온라인 수업 만족도

아동을 대상으로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해당 문항은 0~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수업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등교수업(6.9점)이 온라인수업(5.3점)보다 수업만족도가 높았다. 등교수업은 초등 고학년생(7.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6.8점), 고등학생(6.6점) 순이었으며, 온라인수업은 초등 고학년생(5.5점), 중학생(5.2점), 고등학생(5.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등교/온라인 수업 만족도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등교수업	7.2 (1.88)	6.8 (1.91)	6.6 (1.94)	6.9 (1.93)	20.021 ***
온라인 수업	5.5 (1.96)	5.2 (2.07)	5.1 (1.88)	5.3 (1.98)	7.509 **

* p < .05, ** p < .01, *** p < .001

마. 현재 학교 성적

학교 성적은 1~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을 100점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성적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4>를 살펴보면 초등 고학년생이 73.7점으로 자신의 성적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학생(68.9점), 고등학생(69.2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교 성적

(단위: 점, 5점 만점)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학교 성적	3.7 (0.77)	3.4 (0.79)	3.2 (0.81)	3.5 (0.81)	61.114 ***
	73.7점	68.9점	64.1점	69.2점	

* p < .05, ** p < .01, *** p < .001

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지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을 0-3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평균 값을 100점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표 25>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부진 현상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불편함 정도도 증가하였다.

<표 25>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업 상황

(단위: 점, 3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부진 심화정도	1.3 (0.71)	1.6 (0.67)	1.4 (0.68)	1.5 (0.66)	1.6 (0.67)	1.5 (0.69)	40.526 ***
	42.0점	52.5점	46.5점	50.8점	54.4점	48.9점	
대면·비대면 수업 병동에 따른 불편함 정도※	1.3 (0.73)	1.4 (0.69)	1.6 (0.70)	1.5 (0.71)	1.4 (0.71)	1.4 (0.71)	19.119 ***
	43.0점	47.0점	52.6점	50.1점	47.2점	47.6점	

* p < .05, ** p < .01, *** p < .001

※ 대면·비대면 수업 병동 불편 정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수업 병동에 따른 불편함이 높음을 의미

②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

〈표 26〉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사교육 경험 현황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사교육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46.5%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가까운 아동들이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밖에도 가정 형편으로 인해 자녀의 사교육 경험이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35.0%로 나타났다. 즉, 10명 중 3명 이상의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가정 형편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6〉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자녀의 사교육 이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더 많아졌다	358 (37.9)	519 (51.5)	321 (44.5)	322 (50.0)	305 (50.0)	1,825 (46.5)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의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	251 (26.6)	336 (33.4)	301 (41.7)	230 (35.7)	255 (41.8)	1,373 (35.0)
총계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3) 보호권

아동의 보호권은 재난과 아동돌봄(가정생활, 나홀로 아동, 보호자의 양육 부담,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재난과 폭력(아동학대,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온라인 폭력 및 성착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재난과 아동 돌봄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생활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돌봄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지표는 0~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값을 100점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을 돌봐주거나 도와주는 어른이 있다는 의미이다. 2021년 아동은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 항상 있음(72.3점)’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항상 있음(76.4점)’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두 가지 모두 2020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7>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돌봄 상황

(단위: 점, 4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 항상 있음	2020	2.6 (1.29)	2.6 (1.28)	2.8 (1.24)	2.7 (1.28)	2.2 (1.36)	2.6 (1.30)	15.083 ***
		66.2점	65.2점	70.5점	67.3점	56.2점	65.3점	
	2021	3.1 (1.21)	2.8 (1.26)	2.9 (1.09)	2.8 (1.12)	2.8 (1.09)	2.9 (1.18)	9.082 ***
		76.7점	70.8점	73.5점	70.2점	69.0점	72.3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항상 있음	2020	2.6 (1.20)	2.6 (1.20)	2.9 (1.12)	2.9 (1.12)	2.6 (1.13)	2.7 (1.17)	11.015 ***
		66.0점	65.8점	72.7점	72.2점	64.1점	67.8점	
	2021	3.1 (1.14)	2.9 (1.17)	3.1 (0.97)	3.1 (0.97)	3.1 (0.93)	3.1 (1.06)	6.877 ***
		77.9점	72.7점	78.4점	77.2점	76.8점	76.4점	

* p < .05, ** p < .01, *** p < .001

②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홀로 아동

〈표 28〉에서는 자녀가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거나 자녀끼리만 집에 있는 시기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며칠 정도 되는지 측정하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50.7%이며, 12.2%는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36.8%의 아동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아동들끼리 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다’는 응답은 2020년 57.2%에 비해 2021년 6.5%p 감소하였다.

〈표 28〉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홀로 아동

구분	2020	2021
	N(%)	N(%)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음 ¹⁰⁾	1,892(57.2)	1,991(50.7)
일주일에 1-2일 정도	505(15.3)	559(14.2)
일주일에 3-4일 정도	337(10.2)	399(10.2)
주말을 제외한 5일 내내	406(12.3)	486(12.4)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¹¹⁾	154(4.7)	480(12.2)
기타	14(0.4)	12(0.3)
전체	3,308(100)	3,927(100)

〈표 29〉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홀로 있는 기간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로 2020년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표 29〉 코로나19 발생 이후 나홀로 아동 증가 비율

구분	2020	2021
	N(%)	N(%)
해당없음	1,536(46.4)	1,879(47.8)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많았음	149(4.5)	139(3.5)
비슷함	519(15.7)	533(13.6)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많았음	1,104(33.4)	1,376(35.0)
총계	3,308(100)	3,927(100)

10) 〈표 28〉의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음’은 ‘일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하며, 〈표 29〉의 ‘해당 없음(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음)’은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명 수(n)에 차이가 발생함

11) 해당 문항은 2021년에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으로 문항이 변경되었으나, 2020년에는 ‘늘 성인 보호자가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달랐음’으로 측정되었음

②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 부담

가.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주로 함께 있었던 사람(아동)

〈표 30〉에서는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자녀가 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부모님(42.3%)>18세 미만 형제자매(28.2%)>아동 홀로(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 홀로, 18세 미만 형제자매’와 함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님, 조부모, 성인 친척’과 함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0〉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주로 함께 있었던 사람(아동)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N(%)	N(%)	N(%)	N(%)	N(%)
아동 홀로	9 (1.0)	61 (6.1)	135 (18.7)	133 (20.7)	136 (22.3)
성인 형제자매	9 (1.0)	12 (1.2)	13 (1.8)	12 (1.9)	12 (2.0)
18세 미만 형제자매	9 (1.0)	38 (3.8)	86 (11.9)	149 (23.1)	172 (28.2)
친구 혹은 선후배	5 (0.5)	6 (0.6)	5 (0.7)	3 (0.5)	2 (0.3)
부모님	688 (72.8)	626 (62.2)	388 (53.8)	305 (47.4)	258 (42.3)
조부모, 성인친척	204 (21.6)	229 (22.7)	79 (11.0)	37 (5.7)	26 (4.3)
과외 및 학원선생님	5 (0.5)	8 (0.8)	5 (0.7)	3 (0.5)	4 (0.7)
돌봄 선생님 혹은 가사도우미	16 (1.7)	27 (2.7)	10 (1.4)	2 (0.3)	0 (0.0)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나. 대면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표 31〉을 살펴보면 대면 수업 기간 중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은 아동의 어머니(38.1%)>아동 홀로(27.2%)>아동의 아버지(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대면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N(%)	N(%)	N(%)	N(%)	N(%)
아동 홀로	24 (0.5)	394 (7.7)	642 (17.9)	789 (24.3)	818 (27.2)
성인 형제자매	21 (0.4)	44 (0.9)	40 (1.1)	18 (0.6)	47 (1.6)
18세 미만 형제자매	22 (0.5)	96 (1.9)	189 (5.3)	235 (7.3)	227 (7.5)
아동의 어머니	2,323 (49.4)	2,322 (45.5)	1,516 (42.4)	1,272 (39.2)	1,146 (38.1)
아동의 아버지	1,108 (23.6)	887 (17.4)	485 (13.6)	438 (13.5)	397 (13.2)
아동의 할머니/할아버지	834 (17.7)	759 (14.9)	371 (10.4)	169 (5.2)	140 (4.7)
아동의 친인척 (이모, 삼촌, 고모, 큰아버지 등)	118 (2.5)	94 (1.8)	45 (1.3)	52 (1.6)	32 (1.1)
이웃 또는 친한 학부모	32 (0.7)	73 (1.4)	22 (0.6)	21 (0.6)	17 (0.6)
과외 및 학원 선생님	43 (0.9)	158 (3.1)	140 (3.9)	184 (5.7)	149 (5.0)
아이 돌봄 선생님 또는 가사 도우미 (개인적으로 고용)	56 (1.2)	66 (1.3)	22 (0.6)	14 (0.4)	5 (0.2)
방과 후 교실 및 돌봄 시설 선생님 (정부 및 지역 지원과 자원 활용)	122 (2.6)	205 (4.0)	106 (3.0)	49 (1.5)	31 (1.0)
총계	4,703 (100)	5,098 (100)	3,578 (100)	3,24 (100)	3,009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다.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표 32〉을 살펴보면 비대면 수업 기간 중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은 아동의 어머니(38.5%)>아동 홀로(26.4%)>아동의 아버지(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대면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의 순위와 동일하다.

〈표 32〉 온라인 수업 기간 중 자녀 양육 담당 비중이 높았던 사람(양육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N(%)	N(%)	N(%)	N(%)	N(%)
아동 홀로	24 (0.5)	296 (5.7)	563 (15.4)	737 (22.5)	824 (26.4)
성인 형제자매	8 (0.2)	40 (0.8)	29 (0.8)	39 (1.2)	39 (1.3)
18세 미만 형제자매	18 (0.4)	103 (2.0)	180 (4.9)	272 (8.3)	260 (8.3)
아동의 어머니	2,363 (48.4)	2,296 (44.3)	1,547 (42.4)	1,296 (39.5)	1,199 (38.5)
아동의 아버지	1,252 (25.6)	954 (18.4)	572 (15.7)	443 (13.5)	410 (13.2)
아동의 할머니/할아버지	937 (19.2)	938 (18.1)	440 (12.1)	202 (6.2)	154 (4.9)
아동의 친인척 (이모, 삼촌, 고모, 큰아버지 등)	128 (2.6)	137 (2.6)	51 (1.4)	51 (1.6)	36 (1.2)
이웃 또는 친한 학부모	25 (0.5)	52 (1.0)	24 (0.7)	21 (0.6)	20 (0.6)
과외 및 학원 선생님	30 (0.6)	145 (2.8)	157 (4.3)	169 (5.2)	135 (4.3)
아이 돌봄 선생님 또는 가사 도우미 (개인적으로 고용)	42 (0.9)	64 (1.2)	24 (0.7)	16 (0.5)	12 (0.4)
방과 후 교실 및 돌봄 시설 선생님 (정부 및 지역 자원과 자원 활용)	56 (1.1)	161 (3.1)	64 (1.8)	31 (0.9)	28 (0.9)
총계	4,883 (100)	5,186 (100)	3,651 (100)	3,277 (100)	3,117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라. 일평균 돌봄 시간(대면/온라인 수업, 자녀 돌봄 담당자 1순위)

〈표 33〉에서 대면/온라인 수업 기간 중 1순위 돌봄 담당자의 일평균 돌봄 시간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수업 기간에 보호자의 돌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돌봄 보호자의 대면 수업 시간 중 돌봄시간은 평균 7.1시간이었고, 온라인 수업 기간 중 돌봄시간은 평균 9.9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3〉 일평균 돌봄시간(자녀 돌봄 담당자 1순위)

(단위: 시간)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F(p)
	M(SD)	M(SD)	M(SD)	M(SD)	M(SD)	M(SD)	
대면 수업 기간	7.7 (5.39)	7.4 (5.37)	7.2 (5.30)	6.8 (4.65)	5.9 (4.42)	7.1 (5.14)	12.220***
온라인 수업 기간	11.6 (5.63)	10.5 (5.74)	9.3 (5.51)	8.9 (4.96)	8.0 (4.93)	9.9 (5.57)	52.334***

* p < .05, ** p < .01, *** p < .001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표 34〉에서 코로나19 발생 동안, 양육자가 경험한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0~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상황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많아져 더 힘들었음(62.1점)’,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짐(56.5점)’,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함(54.0점)’,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부진이 더 심화(53.6점)’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아짐(18.0점)’, ‘가족들끼리 싸움이나 갈등이 더 많아짐(37.7점)’, ‘자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37.2점)’, ‘자녀가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35.3점)’에 대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시간 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취미와 특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자녀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69.0점)’는 긍정적 반응도 나타났다.

〈표 34〉 코로나19 이후 양육자가 경험한 어려움 동의 정도

(단위: 점, 3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	1.7 (0.80)	1.7 (0.78)	1.6 (0.78)	1.6 (0.76)	1.5 (0.76)	1.6 (0.78)	10.904 ***
	57.4점	55.5점	52.8점	52.3점	49.4점	54.0점	
부모로서의 역할이 많아져 더 힘들었음	1.9 (0.72)	1.9 (0.75)	1.9 (0.71)	1.9 (0.70)	1.8 (0.71)	1.9 (0.72)	3.652 **
	62.2점	63.5점	62.7점	61.9점	59.0점	62.1점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아짐	0.5 (0.73)	0.6 (0.73)	0.6 (0.75)	0.5 (0.61)	0.4 (0.63)	0.5 (0.70)	8.873 ***
	18.0점	20.2점	20.2점	15.4점	14.7점	18.0점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짐	1.6 (0.81)	1.7 (0.79)	1.8 (0.78)	1.7 (0.80)	1.6 (0.86)	1.7 (0.81)	10.991 ***
	53.2점	58.3점	60.1점	58.0점	53.0점	56.5점	
가족들끼리 싸움이나 갈등이 더 많아짐	1.1 (0.80)	1.1 (0.79)	1.2 (0.80)	1.1 (0.77)	1.1 (0.78)	1.1 (0.79)	0.610
	36.7점	37.8점	38.6점	37.3점	38.2점	37.7점	
자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	0.6 (0.74)	0.9 (0.89)	1.3 (0.99)	1.6 (1.00)	1.7 (0.93)	1.1 (0.99)	211.157 ***
	19.4점	28.8점	42.2점	53.7점	55.2점	37.2점	
자녀가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	0.7 (0.85)	1.0 (0.91)	1.2 (0.95)	1.3 (0.91)	1.3 (0.89)	1.1 (0.93)	58.763 ***
	23.7점	33.5점	40.7점	42.2점	42.5점	35.3점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부진이 더 심화	1.1 (0.84)	1.6 (0.82)	1.8 (0.80)	1.9 (0.83)	1.9 (0.83)	1.6 (0.88)	154.810 ***
	35.8점	52.7점	60.8점	64.0점	63.2점	53.6점	
시간 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취미와 특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자녀가 더 많이 할 수 있었음 ¹⁾	0.9 (0.74)	1.0 (0.74)	1.0 (0.78)	0.9 (0.75)	0.9 (0.70)	0.9 (0.74)	1.479
	69.7점	67.7 점	68.2점	70.0점	69.8 점	69.0점	

주1) 각 점수를 역산한 값(미취학: 30.3점, 초등저: 32.3점, 초등고: 31.8점, 중등: 30.0점, 고등: 30.2점, 전체: 31.0점)

* p < .05, ** p < .01, *** p < .001

〈표 35〉에서 보호자의 양육 부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다. 보호자에게 0-10점 사이로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2020년에는 6.7점, 2021년에는 7.1점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양육 스트레스	2020	6.8 (1.87)	6.8 (1.88)	6.8 (1.84)	6.5 (2.05)	6.3 (2.17)	6.7 (1.96)	9.329 ***
	2021	7.1 (1.89)	7.1 (1.81)	7.2 (1.78)	7.1 (1.89)	6.9 (1.96)	7.1 (1.86)	1.748

〈표 36〉에서 자녀가 등교·등원할 때와 등교·등원하지 않을 때 느낀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의 보호자가 등교·등원하지 않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고 응답(81.3%) 하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내 양육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표 36〉 자녀의 수업방식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정도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등교 및 등원시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음	10 (1.1)	12 (1.2)	15 (2.1)	13 (2.0)	18 (3.0)	68 (1.7)
비슷했음	166 (17.6)	174 (17.3)	123 (17.1)	100 (15.5)	103 (16.9)	666 (17.0)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음	769 (81.4)	821 (81.5)	583 (80.9)	531 (82.5)	489 (80.2)	3,193 (81.3)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표 37〉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느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발생 직후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졌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다’는 응답(24.3%)과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다’는 응답(22.3%)도 많이 선택되었다. 반대로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다’는 응답은 2.5%로 가장 낮았다.

〈표 37〉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느낀 양육스트레스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졌음	239 (25.3)	275 (27.3)	208 (28.8)	159 (24.7)	131 (21.5)	1,012 (25.8)
스트레스 수준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음	251 (26.6)	254 (25.2)	159 (22.1)	142 (22.0)	150 (24.6)	956 (24.3)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음	214 (22.6)	201 (20.0)	169 (23.4)	148 (23.0)	144 (23.6)	876 (22.3)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139 (14.7)	152 (15.1)	106 (14.7)	100 (15.5)	89 (14.6)	586 (14.9)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음	31 (3.3)	19 (1.9)	11 (1.5)	15 (2.3)	22 (3.6)	98 (2.5)
스트레스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음 (현재 가장 높음)	71 (7.5)	106 (10.5)	68 (9.4)	80 (12.4)	74 (12.1)	399 (10.2)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표 38〉에서 ‘부모로서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역량 관련하여 한계가 느껴지는 것(20.0%)’과 ‘자녀의 인터넷/게임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논쟁하는 것(20.0%)’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 돌봄 부담이 지속되고 가중되는 것(17.9%)’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부진이나 학습 결손이 심해지는 것(14.0%)’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2.2%)’과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3.4%)’, ‘우울 등 부정적 심리가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3.4%)’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응답은 적게 나타났다.

〈표 38〉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자녀 돌봄 부담이 지속되고 가중되는 것	244 (25.8)	203 (20.2)	124 (17.2)	87 (13.5)	45 (7.4)	703 (17.9)
부모로서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역량 관련하여 한계가 느껴지는 것	287 (30.4)	225 (22.3)	129 (17.9)	79 (12.3)	66 (10.8)	786 (20.0)
돌봄 공백을 메울 지원이나 자원이 부족한 것	112 (11.9)	109 (10.8)	45 (6.2)	19 (3.0)	21 (3.4)	306 (7.8)
실직이나 소득 감소, 휴직 등에 의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것	89 (9.4)	87 (8.6)	60 (8.3)	63 (9.8)	80 (13.1)	379 (9.7)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21 (2.2)	22 (2.2)	25 (3.5)	17 (2.6)	48 (7.9)	133 (3.4)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27 (2.9)	19 (1.9)	16 (2.2)	14 (2.2)	9 (1.5)	85 (2.2)
자녀의 인터넷/게임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논쟁하는 것	88 (9.3)	168 (16.7)	158 (21.9)	202 (31.4)	169 (27.7)	785 (20.0)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부진이나 학습 결손이 심해지는 것	15 (1.6)	113 (11.2)	140 (19.4)	140 (21.7)	142 (23.3)	550 (14.0)
우울 등 부정적 심리가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	39 (4.1)	39 (3.9)	15 (2.1)	18 (2.8)	21 (3.4)	132 (3.4)
기타 ¹⁾	23 (2.4)	22 (2.3)	9 (1.0)	5 (0.5)	9 (1.0)	68 (7.2)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주1) 외출 제한(30), 식사 문제(10), 경제 활동 후 피곤함(1), 조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3), 자녀들끼리의 다툼(1),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5),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움(1), 층간 소음(1), 코로나 무시한 매일등교 스트레스(1), 등교 시간이 빨라짐(1), 없다(14)

(2) 재난과 폭력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21.6.14; 이데일리, 2021.1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체벌, 가정폭력 목격, 온라인 상 폭력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① 가정 내 아동학대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9>와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대 피해 보고 보다 보호자의 학대 가해 보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주 있었음’ 응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과 보호자 모두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기(아동 5.9%, 보호자12.0%)’, ‘실제로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아동 2.0%, 보호자 4.0%)’ 응답이 높았다. 이는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정서학대 외에 신체학대와 방임은 상대적으로 보고율이 낮았다.

<표 39>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구분	아동응답 (초등 고학년생 이상) (N=1,975)			보호자 응답 (모든 보호자 응답) (N=3,927)		
	N(%)			N(%)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 때리기	1,801 (91.2)	165 (8.4)	9 (0.5)	3,451 (87.9)	465 (11.8)	11 (0.3)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	1,892 (95.8)	71 (3.6)	12 (0.6)	3,786 (96.4)	130 (3.3)	11 (0.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 이용하여 엉덩이나 신체의 일부를 때리기	1,896 (96.0)	69 (3.5)	10 (0.5)	3,762 (95.8)	152 (3.9)	13 (0.3)
실제로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	1,422 (72.0)	513 (26.0)	40 (2.0)	2,301 (58.6)	1,468 (37.4)	158 (4.0)

구분	아동응답 (초등 고학년생 이상) (N=1,975)			보호자 응답 (모든 보호자 응답) (N=3,927)		
	N(%)			N(%)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기	793 (40.2)	1,066 (54.0)	116 (5.9)	971 (24.7)	2,483 (63.2)	473 (12.0)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하거나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함	1,596 (80.8)	348 (17.6)	31 (1.6)	2,981 (75.9)	863 (22.0)	83 (2.1)
혼자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게 함	1,834 (92.9)	128 (6.5)	13 (0.7)	3,519 (89.6)	366 (9.3)	42 (1.1)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음	1,710 (86.6)	250 (12.7)	15 (0.8)	2,879 (73.3)	936 (23.8)	112 (2.9)
술에 취해 있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느라 나(아동)를 잘 돌보지 않음	1,873 (94.8)	93 (4.7)	9 (0.5)	3,601 (91.7)	308 (7.8)	18 (0.5)
M(SD) ¹⁾	1.6(2.01)			2.3(2.08)		

주1) '전혀 없었음(=0)', '몇 번 있었음(=1)', '자주 있었음(=2)'에 점수를 부여하여 모든 9가지 항목에 대한 개인별 점수를 합산한 이후 전체의 평균을 구한 값

아동 연령별로 아동학대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40>과 같다. 먼저 '소리지르거나 고함치기'는 모든 대상이 60% 이상으로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응답한 학대 피해 응답률과 부모가 응답한 학대 가해 응답률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학대 피해 응답률은 고등학생에서 방임에 해당하는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18.0%)'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신체·정서학대 관련된 모든 항목은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12.6%)',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4.9%)', '도구 이용해 엉덩이 및 신체 때리기(6.5%)',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39.4%)', '소리지르거나 고함치기(69.3%)', '욕, 모욕적인 말, 내쫓겠다고 말하기(22.5%)', '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8.3%)', 술, 인터넷게임, 쇼핑 등 때문에 못 돌봄(5.7%)은 초등 고학년생 아동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대 가해 응답을 살펴본 결과 신체적·정서적 경험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미취학 13.0%, 초등 저학년 13.0%, 초등 고학년 13.6%)'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보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도구 이용해 엉덩이 및 신체 때리기(5.3%)',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47.2%)',

‘소리지르거나 고함치기(80.3%)’는 초등저학년생 보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5.1%)’, ‘욕, 모욕적인 말, 내쫓겠다고 말하기(27.9%)’는 초등 고학년생 보호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과 관련한 학대 양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중학생 15.8%, 고등학생 15.9%)’,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중학생 36.0%, 고등학생 47.7%)’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술,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느라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경험(9.1%)’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하고 있었다.

〈표 40〉 아동연령별 아동학대 경험(아동 및 보호자)

구분 (경험보고=1)	아동 (N=1,975)					보호자 (N=3,927)				
	N(%)	N(%)	N(%)	N(%)	N(%)	N(%)	N(%)	N(%)	N(%)	N(%)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	-	-	91 (12.6)	48 (7.5)	35 (5.7)	123 (13.0)	131 (13.0)	98 (13.6)	67 (10.4)	57 (9.3)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	-	-	35 (4.9)	24 (3.7)	24 (3.9)	24 (2.5)	34 (3.4)	37 (5.1)	21 (3.3)	25 (4.1)
도구 이용해 엉덩이 및 신체 때리기	-	-	47 (6.5)	17 (2.6)	15 (2.5)	44 (4.7)	53 (5.3)	35 (4.9)	18 (2.8)	15 (2.5)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	-	-	284 (39.4)	185 (28.7)	84 (13.8)	407 (43.1)	475 (47.2)	330 (45.8)	258 (40.1)	156 (25.6)
소리지르거나 고함치기	-	-	500 (69.3)	373 (57.9)	309 (50.7)	742 (78.5)	809 (80.3)	561 (77.8)	448 (69.6)	396 (64.9)
욕, 모욕적인 말, 내쫓겠다고 말하기	-	-	162 (22.5)	121 (18.8)	96 (15.7)	183 (19.4)	268 (26.6)	201 (27.9)	168 (26.1)	126 (20.7)
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	-	-	60 (8.3)	43 (6.7)	38 (6.2)	17 (1.8)	88 (8.7)	104 (14.4)	102 (15.8)	97 (15.9)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	-	-	71 (9.8)	84 (13.0)	110 (18.0)	147 (15.6)	191 (19.0)	187 (25.9)	232 (36.0)	291 (47.7)
술, 인터넷게임, 쇼핑 등 때문에 못 돌봄	-	-	41 (5.7)	33 (5.1)	28 (4.6)	86 (9.1)	83 (8.2)	56 (7.8)	52 (8.1)	49 (8.0)

코로나19 기간 중 아동학대 현황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0~2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아동학대, 신체학대(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및 신체 때리기), 정서학대(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 소리지르거나 고함치기, 욕, 모욕적인 말이나 내쫓겠다고 말하기), 방임(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겨주기, 술/인터넷/게임/쇼핑 때문에 제대로 못 돌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정서학대가 높았다.

<표 41>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단위: 점, 2점 만점)

구분	2020		2021	
	M(SD)		M(SD)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신체학대	0.1(0.50)	0.2(0.64)	0.2(0.64)	0.2(0.59)
정서학대	1.1(1.24)	1.4(1.28)	1.2(1.25)	1.6(1.31)
방임	0.3(0.70)	0.5(0.86)	0.3(0.70)	0.5(0.86)

<표 42>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과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이 지난 2021년에 아동과 보호자를 통해 보고된 아동학대 경험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신체학대),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기(정서학대), 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방임),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방임), 술, 인터넷게임, 쇼핑 등 때문 못 돌봄(방임)은 학대 가해·피해 모두 2020보다 2021년 증가하였다.

문항별로 아동과 보호자의 응답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눈에 띄는 증가율은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2020년에 비해 2021년 방임 3문항에 대한 학대 피해·가해 응답률이 둘 다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구분	2020		2021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	8.3	11.1	8.8	12.1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	2.7	3.7	4.2	3.6
도구 이용해 엉덩이 및 신체 때리기	3.0	5.1	4.0	4.2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	29.2	38.3	28.0	41.4
소리지르거나 고함치기	55.8	68.2	59.8	75.3
욕, 모욕적인 말, 내쫓겠다고 말하기	19.2	22.6	19.2	24.1
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	6.8	9.0	7.1	10.4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	12.9	24.9	13.4	26.7
술, 인터넷게임, 쇼핑 등 때문 못돌봄	5.1	7.8	5.2	8.3

▶ 가정 내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표 43〉에서 가정 내 체벌 경험을 살펴본 결과 2020년(23.9%)에 비해 2021년(25.2%) 1.3%p 증가하여 가정 내 체벌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에서 체벌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감소하였다.

〈표 43〉 가정 내 체벌 경험 현황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2020	259 (31.5)	244 (29.4)	132 (23.2)	90 (16.2)	67 (12.6)	792 (23.9)
2021	313 (33.1)	319 (31.7)	189 (26.2)	97 (15.1)	71 (11.6)	989 (25.2)

〈표 44〉에서 아동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2020년(31.6%)에 비해 2021년(37.0%) 5.4%p 증가하여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 폭력 목격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4〉 가정폭력 목격 경험 현황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2020	276 (33.6)	275 (33.1)	190 (33.3)	156 (28.1)	148 (27.9)	1,045 (31.6)
2021	380 (40.2)	378 (37.5)	276 (38.3)	224 (34.8)	196 (32.1)	1,454 (37.0)

○ 온라인 폭력 및 성 착취

〈표 45〉에서 아동의 온라인 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폭언, 악플을 받는 등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2020년 20.0%에서 2021년 23.9%로 3.9%p 증가하였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껴 본 아동의 비율은 2020년 10.3%에서 2021년 13.4%로 3.1%p 증가하였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야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또한 2020년 12.7%에서 2021년 15.4%로 2.7%p 증가하였다.

이밖에도 아동이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메일/쪽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블로그/SNS 등에 찾아와 글이나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 아동도 10.5%로 나타나 10명 중 1명의 아동이 온라인 스토킹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동의 없는 개인 정보 노출 피해에 시달린 경험을 호소한 아동은 5.2%로 나타나 아동이 개인 정보 불법 활용 등에 대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에 새롭게 측정된 앞선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2020년에 비해 모든 항목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의 확대에 의해 온라인 접속빈도가 증가하면서 아동의 사이버 폭력 및 성착취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5〉 온라인 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현황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온라인상에서 욕설, 폭언, 악플을 받아 본 경험	2020	104 (18.2)	123 (22.2)	105 (19.8)	332 (20.0)
	2021	128 (17.8)	173 (26.9)	171 (28.0)	472 (23.9)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험	2020	57 (10.0)	51 (9.2)	62 (11.7)	170 (10.3)
	2021	74 (10.3)	85 (13.2)	106 (17.4)	265 (13.4)
컴퓨터, 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아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	2020	45 (7.9)	75 (13.5)	90 (16.9)	210 (12.7)
	2021	57 (7.9)	108 (16.8)	140 (23.0)	305 (15.4)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이메일/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SNS 등에 찾아와 글이나 사진 등을 계속 남김	2021	65 (9.0)	66 (10.2)	76 (12.5)	207 (10.5)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가 퍼진 경험	2021	23 (3.2)	31 (4.8)	49 (8.0)	103 (5.2)

4) 참여권

(1) 코로나19와 아동의 참여

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

〈표 46〉에서 아동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한 정보 습득, 2순위는 ‘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 3순위는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으로 나타났다.

〈표 46〉 코로나19에 대해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

구분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점수 ¹⁾ (%)	순위						
부모님이나 가족들	1,596 (36.9)	1	1,145 (29.6)	1	781 (21.3)	3	3,522 (29.7)	1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783 (18.1)	3	1,145 (29.6)	1	1,305 (35.7)	1	3,233 (27.3)	3
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	1,142 (26.4)	2	1,022 (26.4)	3	1,076 (29.4)	2	3,240 (27.3)	2
정부(국가) 및 정치인	103 (2.4)	5	61 (1.6)	5	82 (2.2)	5	246 (2.1)	5
교육기관 (학교, 대학교 등)	702 (16.2)	4	491 (12.7)	4	416 (11.4)	4	1,609 (13.6)	4
총계	4,326 (100)	-	3,864 (100)	-	3,660 (100)	-	11,850 (100)	-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②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아동 참여

〈표 47〉은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된 코로나19 이슈 및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2020년에 41.9점에 비해 2021년 30.5점으로 11.4점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재난 정책에 대한 참여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재난 정책에 관한 아동참여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전혀 없었음	260 (27.5)	248 (24.6)	211 (29.3)	167 (25.9)	145 (23.8)	1,031 (26.3)	
거의 없었음	532 (56.3)	555 (55.1)	385 (53.4)	383 (59.5)	381 (62.5)	2,236 (56.9)	
약간 있었음	141 (14.9)	193 (19.2)	116 (16.1)	90 (14.0)	83 (13.6)	623 (15.9)	
매우 많았음	12 (1.3)	11 (1.1)	9 (1.2)	4 (0.6)	1 (0.2)	37 (0.9)	
2020	M	1.2 (0.71)	1.3 (0.74)	1.2 (0.69)	1.2 (0.72)	1.3 (0.69)	1.3 (0.71)
	(SD)	41.6점	44.7점	39.5점	40.1점	42.7점	41.9점
2021	M	0.9 (0.68)	1.0 (0.69)	0.9 (0.70)	0.9 (0.64)	0.9 (0.61)	0.9 (0.67)
	(SD)	30.0점	32.2점	29.8점	29.8점	30.1점	30.5점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 코로나19 이후 장단점 및 바람(전학년)

코로나19 이후의 장단점과 극복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아동들에게 서술 응답을 받고 이후 Python을 활용한 text mining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장점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에 ‘온라인 수업의 편리성, 개인 시간의 증가, 학교를 가지 않음, 잠을 많이 잠, 위생관리 철저’ 등을 장점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의 단점은 친구를 못 만나는 것이 가장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야외활동과 외출 제한, 여행을 못 감, 놀 수 없음과 같이 주로 사람을 만나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단점으로 보고하였다.

아동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점은 ‘코로나 종식, 백신의 빠른 접종, 개인 방역수칙, 방역강화, 치료제 개발’과 같은 코로나 자체의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과 ‘정상등교, 일상생활회복, 힘내기, 마스크 벗기’와 같이 개인이 희망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림 1] 코로나19 이후 장점



[그림 2] 코로나19 이후 단점



[그림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점

3 아동발달 추이와 대응 방안

1) 아동발달 상황 및 적응¹²⁾

코로나 이후 아동의 발달 상황 및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일상생활, 건강과 심리정서, 문제 상황과 대응 실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일상생활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간활용

〈표 48〉에서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간활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응답 대상자의 평균 점수가 아동과 보호자 모두 5점 이하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시간활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동 응답자들은 연령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생 아동을 제외하고는 고등학생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시간활용(4.1점)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8〉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시간활용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아동	4.0 (1.71)	4.1 (1.78)	4.5 (1.95)	4.2 (2.02)	4.1 (1.89)	4.2 (1.86)	8.400 ***
보호자	4.4 (2.00)	4.3 (1.99)	4.4 (2.11)	4.4 (2.06)	4.4 (1.99)	4.4 (2.03)	0.449

* $p < .05$, ** $p < .01$, *** $p < .001$

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 변화정도와 건강변화정도, 시간활용정도는 0~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부정적으로 변함, 5=변하지 않았음, 10=긍정적으로 변함).

②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표 49〉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일상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4.2점)에 비해 2021년(4.0점) 0.2점 하락하였다. 2021년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상 변화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2020	4.5 (1.49)	4.4 (1.62)	3.9 (1.68)	3.9 (1.89)	3.9 (1.81)	4.2 (1.70)	18.993 ***
2021	4.0 (1.42)	4.0 (1.53)	4.1 (1.76)	3.9 (1.64)	3.7 (1.65)	4.0 (1.59)	4.579 **

* $p < .05$, ** $p < .01$, *** $p < .001$

〈표 50〉에서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일상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3.5점)에 비해 2021년(4.0점)은 0.5점 증가하였다. 2021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일상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일상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2020	3.4 (1.87)	3.3 (1.85)	3.5 (1.81)	3.8 (2.02)	3.6 (1.90)	3.5 (1.89)	5.844 ***
2021	4.0 (1.78)	3.9 (1.78)	4.1 (1.82)	4.1 (1.81)	4.0 (1.77)	4.0 (1.79)	1.571

* $p < .05$, ** $p < .01$, *** $p < .001$

③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 만족도¹³⁾

〈표 51〉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과 1년 후인 2021년의 아동의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21년 아동 연령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p < .0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안 분위기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의 연락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동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아동의 만족도가 낮은 연령을 보면, 집안 분위기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고등학생의 만족도, 친구들과의 연락은 초등 고학년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5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만족도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집안 분위기	2020	6.3 (1.80)	6.4 (1.90)	6.1 (1.78)	6.3 (1.83)	2.976
	2021	6.8 (1.84)	6.7 (1.86)	6.4 (1.88)	6.6 (1.87)	
부모님과의 관계	2020	6.5 (1.82)	6.5 (1.98)	6.3 (1.89)	6.4 (1.90)	1.812
	2021	7.1 (1.89)	6.9 (1.97)	6.5 (1.92)	6.9 (1.94)	
친구들과의 관계	2020	5.4 (1.91)	5.8 (1.96)	5.9 (1.93)	5.7 (1.95)	10.801 ***
	2021	6.6 (2.00)	6.6 (1.90)	6.6 (1.87)	6.6 (1.93)	
친구들과의 연락	2020	4.9 (2.02)	5.6 (2.06)	5.7 (2.03)	5.4 (2.07)	26.156 ***
	2021	5.9 (2.20)	6.3 (2.03)	6.3 (1.94)	6.2 (2.07)	

* $p < .05$, ** $p < .01$, *** $p < .001$

13)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만족도는 0-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매우 불만족, 5=보통, 10=매우 만족).

〈표 52〉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집안 분위기,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021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부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p < .0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가지 영역 모두에서 보호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자녀 연령별로 보호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집안 분위기,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는 고등학생의 보호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가정의 보호자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았다. 결과적으로 저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보다 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만족도 변화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SD)	
집안 분위기	2020	5.4 (1.69)	5.4 (1.59)	5.4 (1.65)	5.6 (1.69)	5.4 (1.87)	5.4 (1.69)	2.111
	2021	5.9 (1.86)	5.8 (1.73)	5.9 (1.82)	5.8 (1.83)	5.6 (1.80)	5.8 (1.81)	3.610 **
자녀와의 관계	2020	5.8 (1.72)	5.7 (1.61)	5.6 (1.67)	5.8 (1.78)	5.7 (1.89)	5.7 (1.72)	1.725
	2021	6.2 (1.80)	6.1 (1.76)	6.1 (1.83)	5.9 (1.90)	5.7 (1.96)	6.0 (1.85)	9.913 ***
부부간의 관계	2020	5.4 (1.94)	5.4 (1.81)	5.4 (1.81)	5.7 (1.87)	5.4 (1.95)	5.5 (1.88)	3.539 **
	2021	5.8 (2.06)	5.7 (2.00)	5.8 (2.05)	5.7 (2.08)	5.5 (2.08)	5.7 (2.05)	2.285
가정의 경제적 상황	2020	4.7 (2.00)	4.6 (1.98)	4.5 (2.04)	4.7 (2.19)	4.4 (2.15)	4.6 (2.06)	2.604 *
	2021	5.1 (2.09)	5.0 (2.08)	5.1 (2.16)	4.8 (2.12)	4.8 (2.23)	5.0 (2.13)	3.976 **

* $p < .05$, ** $p < .01$, *** $p < .001$

(2) 건강과 심리정서

①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상태 변화

〈표 53〉에서 아동의 건강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5.1점)에 비해 2021년(4.7점) 0.4점 하락하였다. 2021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 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3〉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건강상태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2020	5.3 (1.11)	5.2 (1.20)	4.9 (1.12)	4.9 (1.35)	4.8 (1.14)	5.1 (1.20)	22.531 ***
2021	5.1 (1.52)	4.8 (1.49)	4.7 (1.63)	4.5 (1.46)	4.4 (1.50)	4.7 (1.54)	27.066 ***

* $p < .05$, ** $p < .01$, *** $p < .001$

〈표 54〉에서 보호자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20(4.9점)에 비해 2021년(4.7점)에 0.2점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자녀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 역시 아동의 보고와 동일하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4〉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건강상태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2020	5.0 (1.22)	5.0 (1.25)	4.8 (1.25)	4.9 (1.32)	4.8 (1.27)	4.9 (1.26)	2.827 *
2021	4.9 (1.72)	4.8 (1.65)	4.7 (1.73)	4.6 (1.65)	4.5 (1.60)	4.7 (1.68)	6.877 ***

* $p < .05$, ** $p < .01$, *** $p < .001$

◎ 코로나19와 안정감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확인하였다. <표 55>를 보면 2021년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느낌’이 75.6점으로 안정감이 가장 높았고, ‘동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느낌’ 62.6점,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58.5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58.0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코로나 발생 1년 후 시점으로, 2021의 결과를 코로나 발생 이전(2018년)과 코로나 발생 직후(2020년)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코로나 이전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 초기, 코로나 1년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5> 코로나19와 안정감

구 분	코로나 바이러스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느낌	동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느낌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는 느낌
	N(%)	N(%)	N(%)	N(%)
전혀 그렇지 않다	43 (2.2)	7 (0.4)	10 (0.5)	39 (2.0)
그렇지 않다	230 (11.6)	44 (2.2)	145 (7.3)	211 (10.7)
보통이다	866 (43.8)	317 (16.1)	819 (41.5)	885 (44.8)
그렇다	725 (36.7)	1132 (57.3)	843 (42.7)	721 (36.5)
매우 그렇다	111 (5.6)	475 (24.1)	158 (8.0)	119 (6.0)
2021	2.3 (0.83)	3.0 (0.72)	2.5 (0.77)	2.3 (0.82)
	58.0점	75.6점	62.6점	58.5점
2020	2.5 (0.85)	3.0 (0.72)	2.6 (0.80)	2.4 (0.88)
	61.7점	75.8점	64.5점	61.0점
2018	-	3.6 (0.57)	3.0 (0.74)	2.9 (0.86)
	-	89.8점	74.3점	71.3점
전 체	721(100)	644(100)	610(100)	1,975(100)

② 코로나19와 아동의 심리정서

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감정변화

〈표 56〉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감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지루함’을 제외하고 모두 $p < .0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와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행복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7.7점에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6.0점으로 낮아졌고, 코로나가 1년 간 지속된 2021년에는 6.1점으로 2020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의 아동보다 행복수준이 낮았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행복 수준이 더 낮았다.

불안 역시 2020년 4.4점에서 2021 4.3점으로 0.1점 감소하였고,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루함은 2020년 5.7점에서 2021년 5.7점으로 코로나 발생 후와 1년 뒤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초등 저학년생과, 초등 고학년생의 지루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로움은 2020년 4.3점, 2021년 4.3점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감정 변화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행복한	2018	-	-	8.0 (2.14)	6.9 (2.25)	-	7.7 (2.23)	450.004 ***
	2020	6.3 (1.67)	6.0 (1.60)	6.2 (1.69)	6.0 (1.83)	5.5 (1.73)	6.0 (1.71)	15.783 ***
	2021	6.5 (1.61)	6.2 (1.69)	6.4 (1.66)	5.9 (1.72)	5.4 (1.85)	6.1 (1.74)	46.417 ***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불안한	2020	4.1 (2.14)	4.3 (2.06)	4.3 (2.28)	4.4 (2.23)	5.1 (2.21)	4.4 (2.20)	18.867 ***
	2021	3.7 (2.06)	4.1 (2.10)	4.3 (2.10)	4.5 (1.96)	5.2 (1.99)	4.3 (2.10)	48.728 ***
지루한	2020	5.7 (2.17)	5.9 (2.09)	5.8 (2.13)	5.4 (2.17)	5.7 (2.05)	5.7 (2.13)	5.632 ***
	2021	5.7 (2.08)	5.8 (2.08)	5.8 (2.07)	5.7 (1.92)	5.6 (2.00)	5.7 (2.04)	1.828
외로운	2020	4.3 (2.36)	4.5 (2.23)	4.1 (2.31)	4.1 (2.27)	4.6 (2.15)	4.3 (2.28)	6.516 ***
	2021	4.1 (2.26)	4.3 (2.29)	4.0 (2.33)	4.5 (2.17)	4.6 (1.99)	4.3 (2.24)	8.235 ***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동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감정 변화

〈표 57〉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동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감정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측정 항목은 아동과 보호자 모두 동일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감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행복함’과 ‘외로움’이 각각 $p < .001$,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와 비교·분석한 결과 행복은 2020년 4.9점에서 2021년 5.4점으로 증가하였다. 보호자의 행복감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2020년 5.9점에서 2021년 5.8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 연령에 따른 불안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루함은 2020년 5.9점에서 2021년 5.8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자녀 연령에 따라서도 지루함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로움은 2020년 5.0점에서 2021년 5.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로움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57〉 코로나19 이후 아동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감정 변화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행복한	2020	5.0 (1.77)	5.0 (1.77)	5.0 (1.76)	5.0 (1.80)	4.7 (1.77)	4.9 (1.77)	2.782 *
	2021	5.6 (1.94)	5.4 (1.78)	5.3 (1.82)	5.3 (1.91)	5.1 (1.88)	5.4 (1.87)	8.148 ***
불안한	2020	6.0 (2.17)	5.9 (2.17)	5.9 (2.21)	5.9 (2.23)	6.0 (2.25)	5.9 (2.20)	0.422
	2021	5.7 (2.20)	5.9 (2.09)	5.9 (2.10)	5.8 (2.16)	5.8 (2.11)	5.8 (2.13)	0.854
지루한	2020	6.0 (2.09)	5.9 (2.07)	5.9 (2.08)	5.9 (2.06)	5.8 (2.17)	5.9 (2.09)	0.806
	2021	5.9 (2.18)	5.8 (2.11)	5.9 (2.04)	5.7 (2.06)	5.8 (2.13)	5.8 (2.11)	0.458
외로운	2020	5.0 (2.31)	4.9 (2.16)	5.0 (2.15)	5.0 (2.19)	5.2 (2.17)	5.0 (2.20)	1.364
	2021	4.9 (2.33)	5.1 (2.33)	5.1 (2.39)	5.2 (2.37)	5.4 (2.29)	5.1 (2.34)	3.879 **

* p < .05, ** p < .01, *** p < .001

다.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아동, 보호자)

앞서 살펴본 행복, 불안, 지루함, 외로움 4가지 항목 외에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을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58〉을 보면 2021년 아동들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짜증(14.8%)>평온(13.1%)>불안/걱정(12.3%)=무기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 고학년생은 평온(14.5%)>짜증(14.4%)>따뜻한(10.8%)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짜증(15.3%)>평온(14.2%)>무기력(13.9%)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불안/걱정(17.4%)>무기력(15.4%)>짜증(14.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58〉 최근 3개월간 아동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구분 ¹⁾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불안/걱정	376 (8.7)	446 (11.5)	636 (17.4)	1,458 (12.3)
우울	105 (2.4)	132 (3.4)	209 (5.7)	446 (3.8)
외로움	250 (5.8)	147 (3.8)	123 (3.4)	520 (4.4)
무기력	349 (8.1)	539 (13.9)	564 (15.4)	1,452 (12.3)
화/분노	232 (5.4)	173 (4.5)	182 (5.0)	587 (5.0)
짜증	622 (14.4)	592 (15.3)	536 (14.6)	1,750 (14.8)
두려움/공포	63 (1.5)	56 (1.4)	63 (1.7)	182 (1.5)
충격	26 (0.6)	7 (0.2)	12 (0.3)	45 (0.4)
절망	34 (0.8)	13 (0.3)	29 (0.8)	76 (0.6)
평온	628 (14.5)	550 (14.2)	380 (10.4)	1,558 (13.1)
관심	422 (9.8)	247 (6.4)	209 (5.7)	878 (7.4)
침착함	202 (4.7)	191 (4.9)	158 (4.3)	551 (4.6)
따뜻함	466 (10.8)	312 (8.1)	167 (4.6)	945 (8.0)
희망	210 (4.9)	171 (4.4)	124 (3.4)	505 (4.3)
감사	275 (6.4)	206 (5.3)	122 (3.3)	603 (5.1)
초조함	66 (1.5)	82 (2.1)	146 (4.0)	294 (2.5)
전체	4,326 (100)	3,864 (100)	3,660 (100)	11,850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보호자도 앞서 살펴본 행복, 불안, 지루함, 외로움 4가지 항목 외에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을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59>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을 살펴보면 불안/걱정(22.2%)>짜증(15.1%)>무기력(13.5%)>우울(8.8%)>화/분노(8.2%)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동과 달리 보호자는 부정적인 감정 5가지가 상위 감정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호자가 느낀 감정의 순위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순위가 불안/걱정(미취학 19.7%, 초등 저학년생 23.1%, 초등 고학년생 22.1%, 중학생 23.2%)>짜증(미취학 15.9%, 초등 저학년생 16.0%, 초등 고학년생 15.7%, 중학생 13.8%)>무기력(미취학 13.3%, 초등 저학년생 13.0, 초등 고학년생 14.3%, 중학생 13.0%)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불안/걱정(23.6%)>무기력(14.2%)>짜증(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최근 3개월간 보호자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구 분 ¹⁾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불안/걱정	1,116 (19.7)	1393 (23.1)	957 (22.1)	897 (23.2)	864 (23.6)	5,227 (22.2)
우울	471 (8.3)	518 (8.6)	372 (8.6)	348 (9.0)	361 (9.9)	2,070 (8.8)
외로움	155 (2.7)	244 (4.0)	169 (3.9)	146 (3.8)	161 (4.4)	875 (3.7)
무기력	752 (13.3)	786 (13.0)	617 (14.3)	501 (13.0)	518 (14.2)	3,174 (13.5)
화/분노	517 (9.1)	461 (7.6)	395 (9.1)	310 (8.0)	239 (6.5)	1,922 (8.2)
짜증	901 (15.9)	967 (16.0)	678 (15.7)	532 (13.8)	478 (13.1)	3,556 (15.1)
두려움/공포	173 (3.1)	146 (2.4)	121 (2.8)	77 (2.0)	111 (3.0)	628 (2.7)
충격	30 (0.5)	30 (0.5)	32 (0.7)	6 (0.2)	16 (0.4)	114 (0.5)
절망	59 (1.0)	61 (1.0)	33 (0.8)	52 (1.3)	57 (1.6)	262 (1.1)
평온	337 (5.9)	324 (5.4)	218 (5.0)	238 (6.2)	171 (4.7)	1,288 (5.5)

구분 ¹⁾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관심	132 (2.3)	141 (2.3)	95 (2.2)	111 (2.9)	122 (3.3)	601 (2.6)
침착함	166 (2.9)	173 (2.9)	120 (2.8)	126 (3.3)	116 (3.2)	701 (3.0)
따뜻함	231 (4.1)	170 (2.8)	112 (2.6)	115 (3.0)	71 (1.9)	699 (3.0)
희망	202 (3.6)	204 (3.4)	123 (2.8)	120 (3.1)	95 (2.6)	744 (3.2)
감사	304 (5.4)	268 (4.4)	191 (4.4)	192 (5.0)	172 (4.7)	1,127 (4.8)
초조함	124 (2.2)	156 (2.6)	93 (2.1)	93 (2.4)	108 (3.0)	574 (2.4)
전체	5,670 (100)	6,042 (100)	4,326 (100)	3,864 (100)	3,660 (100)	23,562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응(보호자)

〈표 60〉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가 경험한 아동의 감정·신체·인지·행동반응을 살펴보았다. 0~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행동에 대해 부정적(‘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것으로 평균 점수를 100점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호자가 인지한 아동의 심리정서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감정반응, 신체반응, 인지반응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정반응, 신체반응, 인지반응, 행동반응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과 1년이 지난 2021년의 아동의 심리정서 반응을 비교해보면, 아동의 감정반응(불안, 우울, 무력감)은 2020년 43.2점에서 2021년 46.2점으로 3.0점 증가하였으며, 신체반응(불면, 식욕저하, 두통)은 2020년 39.6점에서 2021년 40.3점으로 0.7점 증가하였다. 인지반응(집중력 및 판단력 저하)은 2020년 39.0점에서 2021년 42.8점으로 3.8점 증가하였으며, 행동반응(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 회피)은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6.5점으로 0.1점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

면, 코로나 상황이 1년간 지속되면서 아동의 인지반응, 감정반응, 신체반응, 행동반응이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특히 집중력과 판단력 저하와 관련된 인지반응과 불안, 우울, 무력감 등 감정반응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60〉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심리정서 반응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감정반응 (불안, 우울, 무력감)	2020	1.3 (0.79)	1.3 (0.77)	1.3 (0.78)	1.3 (0.79)	1.4 (0.72)	1.3 (0.77)	2.129
		41.9점	42.9점	43.3점	42.6점	46.0점	43.2점	
	2021	1.3 (0.78)	1.4 (0.76)	1.4 (0.78)	1.4 (0.75)	1.5 (0.77)	1.4 (0.77)	4.839 **
		43.8점	45.6점	46.2점	47.2점	49.5점	46.2점	
신체반응 (불면, 식욕저하, 두통)	2020	1.2 (0.80)	1.2 (0.77)	1.2 (0.78)	1.2 (0.77)	1.2 (0.72)	1.2 (0.77)	0.702
		39.2점	39.3점	39.9점	39.1점	41.2점	39.6점	
	2021	1.1 (0.79)	1.2 (0.77)	1.2 (0.78)	1.2 (0.77)	1.3 (0.77)	1.2 (0.78)	7.105 ***
		38.2점	39.7점	39.2점	41.4점	44.9점	40.3점	
인지반응 (집중력 및 판단력 저하)	2020	1.2 (0.76)	1.2 (0.74)	1.1 (0.72)	1.1 (0.73)	1.3 (0.71)	1.2 (0.74)	2.359
		38.7점	39.1점	38.3점	37.5점	41.8점	39.0점	
	2021	1.2 (0.80)	1.3 (0.77)	1.3 (0.80)	1.3 (0.76)	1.4 (0.78)	1.3 (0.78)	9.286 ***
		38.9점	43.0점	42.7점	44.4점	46.7점	42.8점	
행동반응 (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 회피)	2020	1.1 (0.78)	1.1 (0.76)	1.1 (0.76)	1.0 (0.77)	1.2 (0.77)	1.1 (0.77)	2.914 *
		37.6점	35.9점	35.0점	34.5점	38.9점	36.4점	
	2021	1.1 (0.78)	1.1 (0.76)	1.1 (0.75)	1.1 (0.77)	1.1 (0.79)	1.1 (0.77)	1.689
		35.1점	36.2점	36.4점	37.5점	38.3점	36.5점	

* p < .05, ** p < .01, *** p < .001

④ 코로나 블루¹⁴⁾

가. 코로나 블루 정도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이 합쳐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화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뜻한다. <표 61>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경험한 코로나 블루 수준을 측정하였다. 0~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블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연령별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로나 블루 수준이 높아졌다.

<표 6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코로나 블루 정도(아동)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코로나 블루 정도	4.4 (2.25)	4.8 (2.12)	5.2 (2.06)	4.8 (2.17)	21.269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62>에서는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정도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정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나타나 아동에 비해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정도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2>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정도(보호자)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코로나 블루 정도	6.0 (2.09)	6.1 (1.96)	6.0 (2.03)	6.1 (2.00)	6.0 (1.98)	6.0 (2.01)	0.139

14)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블루 정도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매우 낮음, 5=보통, 10=매우 높음).

코로나19 직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블루 수준을 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63>과 같다. 결과적으로 ‘코로나블루 수준이 때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음(36.8%)’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정도였음(19.7%)’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음(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 코로나19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코로나 블루 수준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코로나블루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짐	122 (16.9)	97 (15.1)	68 (11.1)	287 (14.5)
코로나블루 수준이 때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음	263 (36.5)	212 (32.9)	251 (41.1)	726 (36.8)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음	40 (5.5)	38 (5.9)	49 (8.0)	127 (6.4)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정도였음	145 (20.1)	130 (20.2)	114 (18.7)	389 (19.7)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음	124 (17.2)	119 (18.5)	92 (15.1)	335 (17.0)
코로나블루 수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음 (현재 가장 높음)	27 (3.7)	48 (7.5)	36 (5.9)	111 (5.6)
전체	721 (100)	644 (100)	610 (100)	1,975 (100)

다음으로 <표 64>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직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블루 수준을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코로나블루 수준이 때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음(36.4%)’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코로나블루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짐(16.2%)’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음(15.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비교하여 종합하면, 아동은 코로나블루 수준이 중간이거나 계속 낮았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보호자는 코로나블루 수준이 계속 높거나 최근에 들어 점점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아 아동보다 보호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코로나 블루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64〉 코로나19 직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자의 코로나 블루 수준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코로나블루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짐	144 (15.2)	149 (14.8)	135 (18.7)	111 (17.2)	96 (15.7)	635 (16.2)
코로나블루 수준이 때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음	344 (36.4)	399 (39.6)	250 (34.7)	224 (34.8)	213 (34.9)	1,430 (36.4)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음	140 (14.8)	135 (13.4)	119 (16.5)	96 (14.9)	107 (17.5)	597 (15.2)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정도였음	143 (15.1)	147 (14.6)	97 (13.5)	82 (12.7)	82 (13.4)	551 (14.0)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음	77 (8.1)	74 (7.3)	50 (6.9)	49 (7.6)	40 (6.6)	290 (7.4)
코로나블루 수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음 (현재 가장 높음)	97 (10.3)	103 (10.2)	70 (9.7)	82 (12.7)	72 (11.8)	424 (10.8)
전체	945 (100)	1,007 (100)	721 (100)	644 (100)	610 (100)	3,927 (100)

나. 코로나 공포

〈표 65〉에서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코로나에 대해 느끼는 공포 정도를 살펴보았다.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하다는 응답이 5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가 가장 무서움 48.7점,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접할 때 긴장되거나 불안함이 41.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별로 코로나 공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코로나가 가장 무서움,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함,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움,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내 심장이 뛰고 두근거림 등의 지표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5〉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경험한 코로나 공포 정도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코로나가 가장 무서움	2.1 (1.02)	1.9 (0.97)	1.8 (0.94)	1.9 (0.99)	19.428 ***
	53.2점	46.7점	45.5점	48.7점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함	2.4 (0.99)	2.2 (1.00)	2.2 (1.00)	2.3 (1.00)	5.657 **
	59.7점	55.9점	55.6점	57.2점	
코로나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남	1.4 (0.99)	1.2 (0.87)	1.3 (0.90)	1.3 (0.93)	2.486
	33.9점	31.1점	32.8점	32.6점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움	1.7 (1.11)	1.5 (1.00)	1.4 (0.98)	1.5 (1.04)	15.047 ***
	42.4점	36.3점	35.3점	38.2점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접할 때 긴장되거나 불안함	1.8 (1.03)	1.6 (0.97)	1.6 (0.99)	1.7 (1.00)	3.644
	43.8점	40.5점	40.9점	41.8점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음	1.1 (0.91)	1.0 (0.88)	1.1 (0.88)	1.0 (0.89)	1.669
	26.5점	24.6점	26.6점	25.9점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내 심장이 뛰고 두근거림	1.5 (1.10)	1.2 (1.02)	1.3 (0.98)	1.3 (1.04)	10.568 ***
	36.8점	30.6점	32.3점	33.4점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66〉에서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공포 정도를 살펴보았다. 아동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함’이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가 가장 무서움’ 54.1점,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접할 때 긴장되거나 불안함’이 47.8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6〉 코로나19 이후 보호자가 경험한 코로나 공포 정도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코로나가 가장 무서움	2.2 (1.04)	2.1 (0.97)	2.2 (0.99)	2.2 (0.99)	2.1 (0.99)	2.2 (1.00)	0.951
	55.0점	53.4점	53.8점	55.1점	53.3점	54.1점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함	2.6 (0.97)	2.6 (0.91)	2.5 (0.88)	2.6 (0.90)	2.5 (0.97)	2.6 (0.93)	1.030
	64.3점	64.5점	63.6점	64.6점	62.4점	64.0점	
코로나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남	1.4 (0.96)	1.4 (0.94)	1.4 (1.00)	1.4 (0.92)	1.5 (0.95)	1.4 (0.95)	1.659
	34.4점	33.8점	35.9점	34.3점	36.4점	34.8점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려움	1.6 (1.09)	1.6 (1.05)	1.6 (1.03)	1.6 (1.01)	1.6 (1.05)	1.6 (1.05)	0.860
	40.9점	39.2점	40.5점	39.1점	39.2점	39.8점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상) 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접할 때 긴장되거나 불안함	1.9 (1.01)	1.9 (1.00)	1.9 (0.97)	1.8 (0.94)	1.9 (0.97)	1.9 (0.98)	0.976
	48.5점	48.1점	48.0점	46.2점	47.7점	47.8점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음	1.1 (0.93)	1.1 (0.93)	1.2 (0.94)	1.1 (0.92)	1.2 (0.94)	1.1 (0.93)	1.128
	28.0점	27.7점	29.7점	28.6점	29.4점	28.5점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내 심장이 뛰고 두근거림	1.6 (1.13)	1.6 (1.11)	1.6 (1.10)	1.5 (1.08)	1.5 (1.09)	1.5 (1.10)	2.301
	40.4점	39.2점	38.8점	36.5점	37.3점	38.7점	

④ 자살생각

〈표 67〉에서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슬픔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20년(3.4%)에 비해 2021년(2.9%)에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난 2주간 슬프거나 죽고 싶다고 느낀 비율이 높았다.

〈표 67〉 2주 이상 슬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비율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
2020	17 (3.0)	16 (2.9)	24 (4.5)	57 (3.4)
2021	14 (1.9)	11 (1.7)	32 (5.2)	57 (2.9)

(3) 문제 상황과 대응 실태

④ 코로나19 발생과 걱정 및 어려움

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관련 이슈 어려움¹⁵⁾

〈표 68〉에서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최근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았다. 공부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외모 문제, 가정의 경제적 문제, 코로나 문제 6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의 코로나 문제는 미취학 아동·초등 저학년생 아동의 보호자가 대신 설문 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공부 문제는 2020년 6.1점에서 2021년 6.0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20년과 2021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부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친구문제는 2020년 4.8점에서 2021년 4.4점으로 0.4점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졌으나 2021년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문제는 2020년 3.9점에서 2021년 3.5점으로 0.4점 감소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외모 문제는 2020년 4.2점에서 2021년 4.1점으로 0.1점 하락하여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어려움을 0-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전혀 느끼지 않음, 5=보통, 10=매우 많이 느낌).

외모 문제 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경제적 문제는 2020년 4.1점에서 2021년 3.4점으로 0.7 점 감소하여 6가지 문항 중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문제는 2020년 5.7점, 2021년 5.4점으로 0.3점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고등학생과 초등 고학년생의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2021년에는 초등 저학년생과 미취학 아동에서 코로나 문제에 다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각 문제에 대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아동 연령 범주화별 어려움 정도

(단위: 점, 10점 만점)

대 상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공부 문제	2020	-	-	5.7 (2.15)	6.1 (2.07)	6.7 (1.93)	6.1 (2.10)	33.383 ***
	2021	-	-	5.5 (2.19)	6.0 (2.06)	6.6 (2.06)	6.0 (2.15)	39.072 ***
친구 문제	2020	-	-	4.6 (2.40)	4.7 (2.25)	5.0 (2.23)	4.8 (2.30)	3.380 *
	2021	-	-	4.4 (2.36)	4.5 (2.29)	4.3 (2.17)	4.4 (2.28)	0.717
가족 문제	2020	-	-	3.7 (2.36)	3.8 (2.24)	4.1 (2.27)	3.9 (2.30)	4.319 *
	2021	-	-	3.4 (2.29)	3.4 (2.27)	3.8 (2.36)	3.5 (2.31)	4.455 *
외모 문제	2020	-	-	3.8 (2.32)	4.4 (2.22)	4.5 (2.22)	4.2 (2.28)	15.431 ***
	2021	-	-	3.7 (2.39)	4.2 (2.32)	4.3 (2.30)	4.1 (2.36)	15.440 ***
경제적 문제	2020	-	-	3.7 (2.54)	3.9 (2.37)	4.6 (2.45)	4.1 (2.49)	21.378 ***
	2021	-	-	3.1 (2.35)	3.5 (2.37)	3.8 (2.35)	3.4 (2.38)	18.358
코로나 문제	2020	5.3 (2.18)	5.6 (2.05)	6.0 (2.40)	5.7 (2.48)	6.3 (2.30)	5.7 (2.28)	19.437 ***
	2021	5.5 (2.16)	6.0 (1.95)	5.2 (2.45)	4.8 (2.39)	4.9 (2.25)	5.4 (2.26)	39.104 ***

* p < .05, ** p < .01, *** p < .001

〈표 69〉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와 비교·분석하였다. 각 문제별로 걱정과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초등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모든 영역에서 2018년에서 2020년 걱정과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1년 뒤인 2021년에 어려움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측정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은 코로나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발생 후인 2020년보다 1년 뒤인 2021년에 걱정과 어려움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걱정과 어려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는 평균 점수가 모두 높은 상황이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9〉 아동 연령범주화별 어려움 정도(연도 비교)

구 분	2018		2020			2021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 학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 학생
	M(SD)							
공부 문제	4.1 (2.98)	6.1 (2.71)	5.7 (2.15)	6.1 (2.07)	6.7 (1.93)	5.5 (2.19)	6.0 (2.06)	6.6 (2.06)
친구 문제	2.8 (2.89)	3.7 (2.95)	4.6 (2.40)	4.7 (2.25)	5.0 (2.23)	4.4 (2.36)	4.5 (2.29)	4.3 (2.17)
가족 문제	2.0 (2.64)	2.6 (2.71)	3.7 (2.36)	3.8 (2.24)	4.1 (2.27)	3.4 (2.29)	3.4 (2.27)	3.8 (2.36)
외모 문제	2.3 (2.85)	3.8 (2.97)	3.8 (2.32)	4.4 (2.22)	4.5 (2.22)	3.7 (2.39)	4.2 (2.32)	4.3 (2.30)
경제적 문제	1.6 (2.44)	2.1 (2.54)	3.7 (2.54)	3.9 (2.37)	4.6 (2.45)	3.1 (2.35)	3.5 (2.37)	3.8 (2.35)
코로나 문제	-	-	6.0 (2.40)	5.7 (2.48)	6.3 (2.30)	5.2 (2.45)	4.8 (2.39)	4.9 (2.25)

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로 급하게 도입되었다. 초등 고학년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 머무를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을 3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70〉).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된 2021년에 아동을 가장 힘들게 한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22.0%)>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14.8%)>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14.3%)>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 진도와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12.4%)>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아동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에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온라인 수업 참여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진도와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되는 것)과 외부 대면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인 것으로 생각된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아동들이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1년 현재 10명 중 2명 이상의 아동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표 70〉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구분	2020	2021
	점수(%) ¹⁾	점수(%)
평일 성인 보호자없이 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어야 하는 것	593 (6.0)	494 (4.2)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	2,020 (20.3)	1,694 (14.3)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진도와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	-	1,465 (12.4)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되는 것	-	2,612 (22.0)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	2,334 (23.5)	1,752 (14.8)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 활동, TV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또는 성인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것	1,280 (12.9)	1,080 (9.1)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 것	831 (8.4)	495 (4.2)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변화되는 것	294 (3.0)	148 (1.2)

구분	2020	2021
	점수(%) ¹⁾	점수(%)
부모님 사이에 혹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것	203 (2.0)	154 (1.3)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	1557 (15.7)	1,339 (11.3)
집안에서의 오랜 생활로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 되는 것	786 (7.9)	617 (5.2)
기타	38 (0.4)	-
총계	9,936 (100)	11,850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④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들 해소 방안

초등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힘들었을 때 마음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였다. <표 71>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아동이 힘들음을 해소하는 방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26.9%)>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보기, SNS활동하기(26.4%)>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기(11.5%)와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11.5%)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2020년과 2021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20년 14.6%에서 2021년 12.7%로 1.9% 감소하였다.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 하기는 2020년 11.3%에서 11.5%로 0.2% 증가하였으며,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는 2020년 8.0%에서 11.5%로 3.5% 증가하였다.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 활동 하기는 2020년 26.8%에서 2021년 26.4%로 0.4% 감소하였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는 2020년 23.6%에서 2021년 26.9%로 3.3% 증가하였다.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하기는 2020년 8.3%에서 2021년 5.5%로 2.8% 감소하였으며,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받기는 2020년 0.5에서 2021년 0.5로 동일하였다.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및 고민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는 2020년 0.5%에서 2021년 0.2%로 0.3% 감소하였고,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는 2020년 6.0%에서 2021년 4.7%로 1.3%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은 유튜브, 게임과 같은 온라인 활동이며, 다음으로 부모나 성인 가족 혹은 친구와 마음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1〉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들 해소 방안

구분	2020	2021
	N(%)	N(%)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음	242 (14.6)	251 (12.7)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 하기	187 (11.3)	228 (11.5)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	132 (8.0)	228 (11.5)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 활동 하기	443 (26.8)	522 (26.4)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	391 (23.6)	531 (26.9)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 하기	137 (8.3)	108 (5.5)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 받기	9 (0.5)	9 (0.5)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및 고민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8 (0.5)	3 (0.2)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기	99 (6.0)	92 (4.7)
기타	8 (0.5)	3 (0.2)
총 계	1,656 (100)	1,975 (100)

주1. 가) 덕질(1), 등산(1), 맛있는 음식(1), 수면(1), 없음(1), 음악듣기(1), 일기쓰기(1), 책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기(1)

②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담서비스 이용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동과 보호자는 심리정서, 행동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희망 정도, 이용해본 상담 종류와 만족도, 향후 희망하는 상담 등을 확인하였다.

가. 코로나19 이후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72>를 살펴보면 아동(44.5점) 보다 보호자(53.7점)가 상담 혹은 도움을 받고 싶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자는 아동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2> 코로나19 이후 상담 혹은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아동, 보호자)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아동	-	-	1.7 (0.79)	1.8 (0.83)	1.9 (0.85)	1.8 (0.83)	10.236 ***
			42.3점	44.1점	47.4점	44.5점	
보호자	2.2 (0.91)	2.2 (0.92)	2.1 (0.90)	2.1 (0.89)	2.1 (0.93)	2.1 (0.91)	0.643
	54.5점	54.0점	53.1점	53.0점	53.4점	53.7점	

* $p < .05$, ** $p < .01$, *** $p < .001$

나.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을 이용해본 경험

아동과 보호자가 실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표 73>을 살펴보면 앞서 ‘상담 및 도움 받고 싶었던 경험’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상담경험(7.1%) 보다 보호자의 상담경험(10.4%)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3> 코로나19 이후 상담을 이용해본 경험(아동, 보호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N(%)	N(%)	N(%)	N(%)	N(%)	N(%)
아동	-	-	54 (7.5)	44 (6.8)	42 (6.9)	140 (7.1)
보호자	105 (11.1)	103 (10.2)	81 (11.2)	54 (8.4)	64 (10.5)	407 (10.4)

다.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

<표 74>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 본 상담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이 28.1%로 가장 많았고,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23.1%,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15.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초등 고학년생은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25.5%),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20.8%),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1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중학생 30.5%, 고등학생 28.6%),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중학생 25.8%, 고등학생 23.3%),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중학생 18.4%, 고등학생 16.0%) 순으로 동일하였다.

종합하면, 아동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친구, 선후배 등 또래, 학교 상담·담임 선생님과 같이 주변의 지인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만 1-2 순위는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했으나 3순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직접 돈을 내고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는다가 높았던 반면, 중학생/고등학생 청소년은 또래관계가 고려되는 온라인 채팅과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을 선택하여 주목된다.

〈표 74〉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아동)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게시판 상담	17 (7.4)	8 (4.2)	15 (7.3)	40 (6.4)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28 (12.1)	35 (18.4)	33 (16.0)	96 (15.3)
전화 상담	21 (9.1)	9 (4.7)	21 (10.2)	51 (8.1)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	59 (25.5)	58 (30.5)	59 (28.6)	176 (28.1)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48 (20.8)	49 (25.8)	48 (23.3)	145 (23.1)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38 (16.5)	25 (13.2)	21 (10.2)	84 (13.4)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20 (8.7)	6 (3.2)	9 (4.4)	35 (5.6)
전체	231 (100)	190 (100)	206 (100)	627 (100)

주1) :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다음으로 <표 75>를 살펴보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 본 상담 종류를 확인하였다.

보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상담 방법은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44.5%)이었고,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13.7%)을 받거나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께서 상담(10.6%)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앞서 <표 74>에서 초등 고학년생 아동이 응답한 상담의 3순위에서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이 3순위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부모의 상담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초등저, 초등고)아동, 중학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순서대로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미취학아동 43.2%, 초등 저학년생 48.2%, 초등 고학년생 44.4%, 중학생 39.4%)>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미취학 아동 14.4%, 초등 저학년생 13.7%, 초등 고학년생 15.2%, 중학생 14.9%)>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에게 상담(미취학 아동 11.8%, 초등 저학년생 9.6%, 초등 고학년생 8.8%, 중학생 10.8%)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보호자는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45.9%)>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4.2%)>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께서 상담(1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5〉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해본 상담 종류(보호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게시판 상담	33 (7.1)	34 (8.2)	34 (10.0)	24 (9.6)	20 (6.8)	145 (8.2)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44 (9.5)	37 (8.9)	19 (5.6)	33 (13.3)	42 (14.2)	175 (9.9)
전화 상담	34 (7.3)	28 (6.7)	31 (9.1)	18 (7.2)	25 (8.4)	136 (7.7)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	201 (43.2)	200 (48.2)	150 (44.0)	98 (39.4)	136 (45.9)	785 (44.5)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에게 상담	55 (11.8)	40 (9.6)	30 (8.8)	27 (10.8)	36 (12.2)	188 (10.6)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67 (14.4)	57 (13.7)	52 (15.2)	37 (14.9)	29 (9.8)	242 (13.7)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31 (6.7)	19 (4.6)	25 (7.3)	12 (4.8)	8 (2.7)	95 (5.4)
전체	465 (100)	415 (100)	341 (100)	249 (100)	296 (100)	1,766 (100)

주1) :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라.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76>을 살펴보면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24.2%)>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21.3%)>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9.0%)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74>에서 아동이 응답한 ‘이용해본 상담 종류’에서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이 28.1%로 가장 많고,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23.1%,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15.3% 순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 고학년생이 희망하는 상담 종류는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28.8%),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20.1%),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4.9%) 순위였고, 중학생은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23.0%),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20.9%),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20.4%) 순이었다.

고등학생은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23.8%),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22.0%),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20.1%)으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 고학년생과 중학생은 학교 내의 상담 선생님·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가장 선호하고 주변의 친구, 선후배, 또래 혹은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를 통한 상담을 선호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먼저 친구와 선후배 등 주변 또래에게 먼저 상담을 하고 학교 내 상담 선생님·담임 선생님을 3순위로 고려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표 76〉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아동)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게시판 상담	326 (7.5)	377 (9.8)	344 (9.4)	1,047 (8.8)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645 (14.9)	807 (20.9)	804 (22.0)	2,256 (19.0)
전화 상담	443 (10.2)	362 (9.4)	382 (10.4)	1,187 (10.0)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	869 (20.1)	789 (20.4)	870 (23.8)	2,528 (21.3)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1,247 (28.8)	889 (23.0)	737 (20.1)	2,873 (24.2)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343 (7.9)	298 (7.7)	282 (7.7)	923 (7.8)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309 (7.1)	262 (6.8)	210 (5.7)	781 (6.6)
부모님	128 (3.0)	67 (1.7)	25 (0.7)	220 (1.9)
가족	12 (0.3)	13 (0.3)	3 (0.1)	28 (0.2)
종교 관련(목사 등등)	0 (0.0)	0 (0.0)	3 (0.1)	3 (0.0)
주변 어른	3 (0.1)	0 (0.0)	0 (0.0)	3 (0.0)
할아버지	1 (0.0)	0 (0.0)	0 (0.0)	1 (0.0)
전체	4,326 (100)	3,864 (100)	3,660 (100)	11,850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표 77〉에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상담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20.6%),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18.0%),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7.8%) 순이었다. 앞서 〈표 75〉에서 보호자가 응답한, 가장 많이 이용한 상담 방법이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44.5%),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13.7%),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10.6%)’인 것과 비교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보호자가 희망하는 상담종류는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21.7%),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18.2%),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6.5%) 순이었으며, 초등저학년생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21.1%),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18.7%),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8.0%)이었다. 초등고학년생 보호자는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19.8%),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17.8%),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7.5%) 순이며, 중학생 보호자는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20.8%),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18.7%),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8.0%)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보호자는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19.5%),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18.7%), 전화 상담(17.3%), 순이었다. 고등학생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3가지 상담을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표 77〉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보호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게시판 상담	408 (8.0)	446 (8.2)	392 (10.1)	285 (8.2)	293 (9.0)	1,824 (8.6)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837 (16.5)	980 (18.0)	682 (17.5)	624 (18.0)	633 (19.5)	3,756 (17.8)
전화 상담	719 (14.1)	825 (15.1)	604 (15.5)	547 (15.7)	564 (17.3)	3,259 (15.4)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	1,101 (21.7)	1,147 (21.1)	769 (19.8)	724 (20.8)	609 (18.7)	4,350 (20.6)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에게 상담	241 (4.7)	283 (5.2)	176 (4.5)	179 (5.1)	154 (4.7)	1,033 (4.9)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823 (16.2)	743 (13.6)	570 (14.6)	453 (13.0)	466 (14.3)	3,055 (14.4)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924 (18.2)	1,021 (18.7)	693 (17.8)	649 (18.7)	520 (16.0)	3,807 (18.0)
종교 활동	3 (0.1)	0 (0.0)	0 (0.0)	3 (0.1)	0 (0.0)	6 (0.0)
배우자	6 (0.1)	0 (0.0)	0 (0.0)	0 (0.0)	0 (0.0)	6 (0.0)
모름	21 (0.4)	3 (0.1)	6 (0.2)	12 (0.3)	15 (0.5)	57 (0.3)
전체	5,083 (100)	5,448 (100)	3,892 (100)	3,476 (100)	3,254 (100)	21,153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2) 필요 지원 및 정책

(1) 재난 상황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필요성

① 재난 상황에서의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표 78〉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장 침해된 권리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권리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0년에는 1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2순위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3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기로 나타난 반면 2021년에는 2순위와 3순위가 바뀌어 나타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생 아동의 경우 1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2순위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3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로 나타났다. 초등 고학년생과 중학생 아동의 경우 1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2순위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3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기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아동은 1순위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받기, 2순위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 3순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평등한 교육 받기와 아동 참여 보장이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8〉 재난 상황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	580 (11.8)	669 (11.8)	749 (15.0)	940 (15.6)	506 (14.8)	594 (13.7)	500 (15.0)	555 (14.4)	568 (17.8)	603 (16.5)	2,903 (14.6)	3,361 (14.3)
나이/성별/성적/ 종교/사는 곳/ 피부색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기	182 (3.7)	156 (2.8)	165 (3.3)	198 (3.3)	188 (5.5)	295 (6.8)	195 (5.9)	297 (7.7)	250 (7.8)	366 (10.0)	980 (4.9)	1,312 (5.6)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하기	308 (6.2)	452 (8.0)	269 (5.4)	465 (7.7)	238 (7.0)	325 (7.5)	166 (5.0)	250 (6.5)	173 (5.4)	169 (4.6)	1,154 (5.8)	1,661 (7.0)
생명, 생존, 발달 존중하기	335 (6.8)	316 (5.6)	406 (8.2)	275 (4.6)	163 (4.8)	240 (5.5)	212 (6.4)	228 (5.9)	268 (8.4)	220 (6.0)	1,384 (7.0)	1,279 (5.4)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478 (9.7)	630 (11.1)	451 (9.1)	663 (11.0)	390 (11.4)	596 (13.8)	421 (12.6)	585 (15.1)	385 (12.1)	616 (16.8)	2,125 (10.7)	3,090 (13.1)
정보를 쉽게 안내 받고 이용하기	241 (4.9)	329 (5.8)	252 (5.1)	413 (6.8)	255 (7.5)	377 (8.7)	247 (7.4)	320 (8.3)	236 (7.4)	319 (8.7)	1,231 (6.2)	1,758 (7.5)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535 (10.8)	416 (7.3)	565 (11.3)	441 (7.3)	228 (6.7)	393 (9.1)	296 (8.9)	382 (9.9)	287 (9.0)	372 (10.2)	1,911 (9.6)	2,004 (8.5)
입양/난민/장애/ 가정 밖 아동도 다른 아동처럼 동일하게 보호받기	187 (3.8)	137 (2.4)	173 (3.5)	144 (2.4)	59 (1.7)	155 (3.6)	89 (2.7)	111 (2.9)	63 (2.0)	99 (2.7)	571 (2.9)	646 (2.7)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1,212 (24.6)	1,616 (28.5)	1,039 (20.9)	1,527 (25.3)	879 (25.7)	942 (21.8)	703 (21.1)	681 (17.6)	483 (15.2)	458 (12.5)	4,316 (21.7)	5,224 (22.2)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874 (17.7)	949 (16.7)	911 (18.3)	976 (16.2)	514 (15.0)	409 (9.5)	501 (15.0)	455 (11.8)	473 (14.8)	438 (12.0)	3,273 (16.5)	3,227 (13.7)
총 계	4,932 (100)	5,670 (100)	4,980 (100)	6,042 (100)	3,420 (100)	4,326 (100)	3,330 (100)	3,864 (100)	3,186 (100)	3,660 (100)	19,848 (100)	23,562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②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신경써야 할) 아동권리

〈표 79〉에서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아동권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순위는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기, 2순위는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3순위는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은 휴식/놀이/여가 누리기(19.3%),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18.0%),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14.1%) 순이었고, 초등 저학년생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18.4%),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17.4%), 휴식/놀이/여가 누리기(16.5%) 순이었다. 초등 고학년생은 휴식/놀이/여가 누리기(15.6%),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15.2%),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11.8%)이며, 중학생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17.0%),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12.7%), 휴식/놀이/여가 누리기(11.7%),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11.7%)이다. 고등학생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17.5%),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12.8%),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12.5%),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12.5%) 순이었다.

〈표 79〉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할(신경써야 할) 아동권리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점수 ¹⁾ (%)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	800 (14.1)	1,110 (18.4)	657 (15.2)	655 (17.0)	641 (17.5)	3,863 (16.4)
나이/성별/성적/종교/사는 곳/ 피부색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기	215 (3.8)	247 (4.1)	288 (6.7)	301 (7.8)	326 (8.9)	1,377 (5.8)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하기	433 (7.6)	507 (8.4)	372 (8.6)	299 (7.7)	208 (5.7)	1,819 (7.7)
생명, 생존, 발달 존중하기	514 (9.1)	474 (7.8)	439 (10.1)	355 (9.2)	366 (10.0)	2,148 (9.1)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405 (7.1)	455 (7.5)	512 (11.8)	489 (12.7)	458 (12.5)	2,319 (9.8)
정보를 쉽게 안내 받고 이용하기	337 (5.9)	408 (6.8)	378 (8.7)	308 (8.0)	327 (8.9)	1,758 (7.5)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690 (12.2)	643 (10.6)	463 (10.7)	452 (11.7)	468 (12.8)	2,716 (11.5)
입양/난민/장애/가정 밖 아동도 다른 아동처럼 동일하게 보호받기	161 (2.8)	152 (2.5)	107 (2.5)	112 (2.9)	112 (3.1)	644 (2.7)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1,095 (19.3)	994 (16.5)	673 (15.6)	451 (11.7)	298 (8.1)	3,511 (14.9)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점수 ¹⁾ (%)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1,020 (18.0)	1,052 (17.4)	437 (10.1)	442 (11.4)	456 (12.5)	3,407 (14.5)
총 계	5,670 (100)	6,042 (100)	4,326 (100)	3,864 (100)	3,660 (100)	23,562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2) 재난 상황에서 아동정책의 필요성

①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어려움

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의 어려움(보호자)

〈표 80〉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어려운 상위 3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73.2점),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71.6점), 자녀의 놀이욕구 해결(70.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자녀의 돌봄 공백은 2020년 54.5점에서 51.9점으로 2.6점 하락하였고,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상황은 2020년 64.0점에서 2021년 62.9점으로 1.1점 하락하였다. 재택 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은 2020년 55.6점에서 2021년 56.2점으로 0.6점 상승하였고, 자녀의 놀이욕구 해결은 2020년 67.9점에서 70.1점으로 2.2점 상승하였다.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는 69.5점에서 71.6점으로 2.1점 상승,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은 2020년 60.0점에서 2021년에 61.4점으로 1.4점으로 상승하였다. 자녀와의 의견 대립은 2020년 53.3점에서 2021년 54.6점으로 1.3점 상승,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2020년 54.8점에서 2021년 52.7점으로 2.1점 하락하였다. 부부(성인들)간의 의견 대립 및 갈등¹⁶⁾은 2020년 46.9점이고 2021년에 48.5점으로 1.6점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은 2020년 68.5점에서 2021년 73.2점으로 4.7점 상승하였다.

16) 2020년에는 “의견 대립”만을 묻고, 2021년에는 “의견 대립 및 갈등”에 대해 물음. 우선 동일 템스에 제시함.

종합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택 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 자녀의 놀이욕구 해결,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 자녀와의 의견 대립, 부부(성인들)간의 의견 대립 및 갈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은 2020보다 2021년 어려움이 증가하였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의 돌봄 공백,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상황,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2020년보다 2021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감소하였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0〉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의 어려움

(단위: 점, 3점 만점)

구 분	2020	2021
	M(SD)	M(SD)
자녀의 돌봄 공백	1.6 (0.77)	1.6 (0.80)
	54.5점	51.9점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상황	1.9 (0.74)	1.9 (0.77)
	64.0점	62.9점
재택 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	1.7 (0.85)	1.7 (0.86)
	55.6점	56.2점
자녀의 놀이욕구 해결	2.0 (0.76)	2.1 (0.75)
	67.9점	70.1점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	2.1 (0.77)	2.1 (0.70)
	69.5점	71.6점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	1.8 (0.77)	1.8 (0.75)
	60.0점	61.4점
자녀와의 의견 대립	1.6 (0.75)	1.6 (0.75)
	53.3점	54.6점
가족의 경제적 상황	1.6 (0.79)	1.6 (0.79)
	54.8점	52.7점
부부(성인들)간의 의견 대립 및 갈등	1.4 (0.75)	1.5 (0.76)
	46.9점	48.5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2.1 (0.72)	2.2 (0.73)
	68.5점	73.2점

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 보았다. <표 81>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1순위는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2순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 활동 제한, 3순위는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 순으로 나타나 2020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 저학년생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의 놀이 욕구 해결,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순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고학년생 이상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TV시청 통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순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다.

각 항목별로 2020년과 2021년의 차이를 비교하면, 2020년에 비해 2021년 힘들다고 느끼는 보호자가 증가한 항목은 자녀의 돌봄 공백(2020년 8.2%, 2021년 8.7%), 자녀의 놀이 욕구 해결(2020년 13.7%, 2021년 14.4%),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2020년 14.8%, 2021년 16.4%), 부부(성인들)간의 의견 대립(2020년 2.1%, 2021년 2.4%),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2020년 16.1%, 2021년 16.8%)이다. 반대로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2020년 19.0%, 2021년 17.8%),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2020년 8.6%, 2021년 8.1%), 자녀와의 의견 대립(2020년 2.9%, 2021년 2.7%), 가족의 경제적 상황(2020년 9.9%, 2021년 7.9%) 항목은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를 1년 지나면서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2020년 4.8%, 2021년 4.8%)은 2020년과 2021년 동일하였다.

〈표 81〉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점수 ¹⁾ (%)	
자녀의 돌봄 공백	579 (11.7)	645 (11.4)	543 (10.9)	738 (12.2)	250 (7.3)	360 (8.3)	146 (4.4)	196 (5.1)	108 (3.4)	100 (2.7)	1,626 (8.2)	2,039 (8.7)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764 (15.5)	734 (12.9)	836 (16.8)	904 (15.0)	770 (22.5)	885 (20.5)	842 (25.3)	859 (22.2)	562 (17.6)	815 (22.3)	3,774 (19.0)	4,197 (17.8)
재택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	339 (6.9)	390 (6.9)	281 (5.6)	344 (5.7)	124 (3.6)	145 (3.4)	108 (3.2)	113 (2.9)	102 (3.2)	142 (3.9)	954 (4.8)	1,134 (4.8)
자녀의 놀이육구 해결	1,175 (23.8)	1,421 (25.1)	892 (17.9)	1,072 (17.7)	348 (10.2)	525 (12.1)	173 (5.2)	240 (6.2)	125 (3.9)	134 (3.7)	2,713 (13.7)	3,392 (14.4)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시청 통제	506 (10.3)	615 (10.8)	654 (13.1)	883 (14.6)	568 (16.6)	790 (18.3)	687 (20.6)	819 (21.2)	530 (16.6)	762 (20.8)	2,945 (14.8)	3,869 (16.4)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	86 (1.7)	72 (1.3)	474 (9.5)	489 (8.1)	386 (11.3)	495 (11.4)	412 (12.4)	474 (12.3)	350 (11.0)	374 (10.2)	1,708 (8.6)	1,904 (8.1)
자녀와의 의견 대립	95 (1.9)	86 (1.5)	104 (2.1)	105 (1.7)	72 (2.1)	113 (2.6)	109 (3.3)	119 (3.1)	194 (6.1)	217 (5.9)	574 (2.9)	640 (2.7)
가족의 경제적 상황	407 (8.3)	380 (6.7)	396 (8.0)	387 (6.4)	358 (10.5)	317 (7.3)	316 (9.5)	359 (9.3)	480 (15.1)	420 (11.5)	1,957 (9.9)	1,863 (7.9)
부부(성인들)간의 의견 대립	111 (2.3)	164 (2.9)	90 (1.8)	122 (2.0)	70 (2.0)	86 (2.0)	35 (1.1)	97 (2.5)	101 (3.2)	97 (2.7)	407 (2.1)	566 (2.4)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870 (17.6)	1,163 (20.5)	710 (14.3)	998 (16.5)	474 (13.9)	610 (14.1)	502 (15.1)	588 (15.2)	634 (19.9)	599 (16.4)	3,190 (16.1)	3,958 (16.8)
총계	4,932 (100)	5,670 (100)	4,980 (100)	6,042 (100)	3,420 (100)	4,326 (100)	3,330 (100)	3,864 (100)	3,186 (100)	3,660 (100)	19,848 (100)	23,562 (100)

주1)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 부여하여 점수 산출

⑤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만족도(보호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2>와 같다. 0~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는 4.4점, 국가(정부) 지원 만족도는 4.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2> 국가나 지역사회만족도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	4.4 (2.10)	4.5 (2.02)	4.4 (2.12)	4.3 (2.06)	4.5 (2.19)	4.4 (2.09)	1.278
국가(정부) 지원 만족도	4.5 (2.23)	4.5 (2.23)	4.5 (2.26)	4.3 (2.21)	4.6 (2.35)	4.5 (2.25)	1.681

나. 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세부 항목)

<표 83>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0-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의 만족도가 57.1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52.8점), 급식 및 도시락 지원(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5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 고학년생은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58.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이 56.9점으로 2번째, 급식 및 도시락 지원(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는 54.6점이었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순서가 같았는데, 위생물

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중학생 56.9점, 고등학생 55.3점), 급식 및 도시락 지원(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중학생 52.1점, 고등학생 50.3점),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중학생 50.9점, 고등학생 49.9점)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43.1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45.4점),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46.1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3〉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아동)

(단위: 점, 3점 만점)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1.8 (0.62)	1.7 (0.67)	1.7 (0.63)	1.7 (0.64)	4.380 *
	58.8점	56.9점	55.3점	57.1점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1.6 (0.70)	1.6 (0.72)	1.5 (0.70)	1.6 (0.71)	5.442 **
	54.6점	52.1점	50.3점	52.5점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1.7 (0.65)	1.5 (0.68)	1.5 (0.68)	1.6 (0.67)	19.805 ***
	56.9점	50.9점	49.9점	52.8점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1.3 (0.74)	1.3 (0.71)	1.3 (0.65)	1.3 (0.71)	2.465
	44.7점	42.5점	42.0점	43.1점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제공	1.5 (0.69)	1.4 (0.69)	1.4 (0.65)	1.4 (0.68)	2.026
	48.5점	46.6점	46.2점	47.2점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1.5 (0.67)	1.4 (0.67)	1.4 (0.63)	1.5 (0.66)	9.431 ***
	51.2점	47.3점	46.3점	48.4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4 (0.69)	1.3 (0.67)	1.3 (0.65)	1.4 (0.67)	2.809
	46.9점	44.8점	44.1점	45.4점	

구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4 (0.71)	1.4 (0.67)	1.3 (0.63)	1.4 (0.67)	3.146 *
	47.4점	46.3점	44.3점	46.1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4 (0.69)	1.4 (0.67)	1.4 (0.62)	1.4 (0.66)	1.733
	47.6점	46.6점	45.4점	46.6점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1.5 (0.75)	1.5 (0.75)	1.4 (0.74)	1.5 (0.75)	2.774
	50.2점	48.4점	46.9점	48.6점	

* p < .05, ** p < .01, *** p < .001

〈표 84〉에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0-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의 만족도가 47.3점으로 가장 높았고, 급식 및 도시락 지원(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42.9점),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41.9점) 순이었다.

아동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면, 미취학 아동 보호자와 초등 저학년생 이상 보호자 간 차이가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보호자는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저학년생 이상 아동의 보호자는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33.7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34.4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35.6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4〉국가나 지역사회 지원 만족도(보호자)

(단위: 점, 3점 만점)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F(p)
	M(SD)	M(SD)	M(SD)	M(SD)	M(SD)	M(SD)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1.4 (0.77)	1.4 (0.70)	1.4 (0.72)	1.5 (0.71)	1.5 (0.71)	1.4 (0.73)	1.773
	46.2점	47.9점	46.1점	48.5점	48.4점	47.3점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1.3 (0.74)	1.3 (0.71)	1.3 (0.74)	1.3 (0.74)	1.3 (0.74)	1.3 (0.73)	1.813
	42.0점	44.6점	41.9점	42.8점	42.8점	42.9점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1.2 (0.73)	1.2 (0.73)	1.2 (0.75)	1.2 (0.70)	1.2 (0.72)	1.2 (0.73)	2.125
	38.4점	41.0점	38.9점	38.7점	40.5점	39.5점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1.0 (0.71)	1.0 (0.70)	1.0 (0.70)	1.0 (0.65)	1.1 (0.66)	1.0 (0.69)	1.624
	33.3점	33.7점	33.1점	32.8점	35.7점	33.7점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	1.1 (0.75)	1.2 (0.71)	1.1 (0.72)	1.2 (0.72)	1.2 (0.69)	1.2 (0.72)	3.444 **
	37.8점	40.7점	38.3점	39.0점	41.6점	39.4점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1.2 (0.76)	1.3 (0.70)	1.2 (0.72)	1.2 (0.70)	1.3 (0.69)	1.3 (0.72)	4.624 **
	41.3점	44.5점	40.4점	40.3점	42.1점	41.9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0 (0.70)	1.1 (0.68)	1.1 (0.70)	1.1 (0.67)	1.1 (0.68)	1.1 (0.68)	0.942
	34.9점	35.8점	35.1점	35.4점	37.0점	35.6점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0 (0.74)	1.1 (0.75)	1.0 (0.74)	1.1 (0.71)	1.1 (0.69)	1.1 (0.73)	3.320 *
	33.9점	36.9점	34.7점	35.5점	37.8점	35.7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0 (0.68)	1.1 (0.64)	1.0 (0.65)	1.0 (0.66)	1.1 (0.65)	1.0 (0.66)	2.669 *
	33.1점	35.1점	33.3점	34.3점	36.3점	34.4점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1.3 (0.82)	1.3 (0.81)	1.2 (0.81)	1.2 (0.83)	1.2 (0.84)	1.2 (0.82)	4.197 **
	42.0점	43.7점	39.6점	38.7점	41.2점	41.3점	

* p < .05, ** p < .01, *** p < .001

(3)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필요 정책

〈표 85〉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22.0%),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16.1%),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13.1%)의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5〉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아동)

구 분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512 (11.8)	530 (13.7)	514 (14.0)	1,556 (13.1)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481 (11.1)	507 (13.1)	513 (14.0)	1,501 (12.7)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822 (19.0)	893 (23.1)	891 (24.3)	2,606 (22.0)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970 (22.4)	578 (15.0)	363 (9.9)	1,911 (16.1)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	328 (7.6)	185 (4.8)	139 (3.8)	652 (5.5)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201 (4.6)	97 (2.5)	67 (1.8)	365 (3.1)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273 (6.3)	324 (8.4)	378 (10.3)	975 (8.2)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80 (4.2)	109 (2.8)	81 (2.2)	370 (3.1)
가족관계 강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141 (3.3)	143 (3.7)	122 (3.3)	406 (3.4)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418 (9.7)	498 (12.9)	592 (16.2)	1,508 (12.7)
전체	4,326 (100)	3,864 (100)	3,660 (100)	11,850 (100)

〈표 86〉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21.2%)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17.2%),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1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86〉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보호자)

구 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N(%)	N(%)	N(%)	N(%)	N(%)	N(%)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509 (9.0)	476 (7.9)	389 (9.0)	382 (9.9)	420 (11.5)	2,176 (9.2)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235 (4.1)	371 (6.1)	427 (9.9)	489 (12.7)	473 (12.9)	1,995 (8.5)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657 (11.6)	1,003 (16.6)	862 (19.9)	798 (20.7)	722 (19.7)	4,042 (17.2)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1,034 (18.2)	808 (13.4)	493 (11.4)	309 (8.0)	175 (4.8)	2,819 (12.0)
아동 눈높이 맞춤형의 재난 관련 정보 제공	270 (4.8)	241 (4.0)	146 (3.4)	110 (2.8)	100 (2.7)	867 (3.7)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153 (2.7)	185 (3.1)	101 (2.3)	53 (1.4)	66 (1.8)	558 (2.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488 (8.6)	546 (9.0)	377 (8.7)	355 (9.2)	380 (10.4)	2,146 (9.1)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957 (16.9)	966 (16.0)	499 (11.5)	294 (7.6)	178 (4.9)	2,894 (12.3)
가족관계 강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223 (3.9)	279 (4.6)	202 (4.7)	183 (4.7)	190 (5.2)	1,077 (4.6)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1,144 (20.2)	1,167 (19.3)	830 (19.2)	891 (23.1)	956 (26.1)	4,988 (21.2)
전체	5,670 (100)	6,042 (100)	4,326 (100)	3,864 (100)	3,660 (100)	23,562 (100)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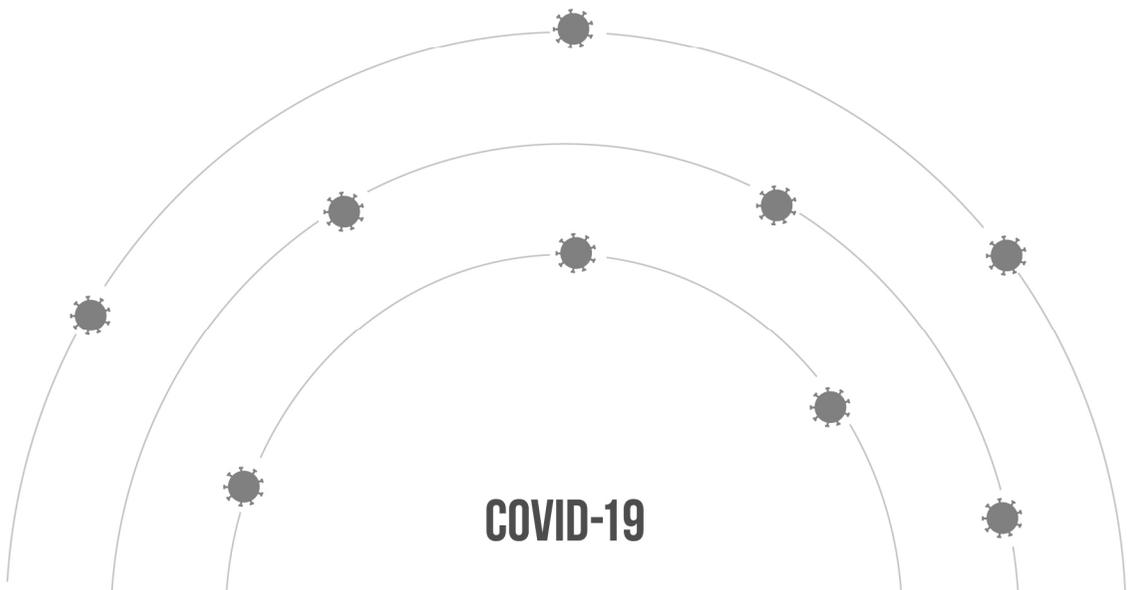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IV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심층 분석



IV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심층 분석



지난 2년 간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아동 개인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은 독립시기 전 단계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가구소득 감소와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조치, 온라인 수업 도입 등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들 환경적 변화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불안정,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음성화, 스마트폰 이용증가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증가, 학습격차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기초분석’ 부분에서는 올해 설문조사 결과를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의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매 해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가구 소득변화와 돌봄 공백이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가정 내 및 사이버 상의 폭력, 학습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1

심층 분석 개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32.1%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13.1% 보다 약 3배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22.8%에 비하면 9.3% 증가한 수치이다 (통계청 보도자료, 2021.11.17).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지원기관의 전면 휴원, 휴업, 휴관 조치가 이루어지고 기관이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녀돌봄이 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부모의 돌봄이 크게 증가하고 개별 가정에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부모와 친인척 돌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최윤경, 2020.12). 이와 같이 가구 소득 감소와 돌봄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심층 분석은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설문

조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 1,367명과 보호자 1,367명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와 ‘돌봄 공백’ 상황을 살펴보면 <표 87>과 같다. 먼저 소득 변화를 보면, 코로나19의 소득과 비교하여 2년 연속으로 소득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소득감소 비해당)는 55.7%이며, 2020년 혹은 2021년 둘 중 한 해에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소득감소 1회)는 23.0%, 2년 연속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소득감소 지속)는 21.4%이었다. 즉, 연구참여자 중 44.4%는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1일 이상 성인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있거나 아동들끼리 집에 있음을 돌봄 공백(나홀로 아동)이라 정의하였다. 돌봄 공백을 보면, 2년 연속 돌봄 공백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구(돌봄 공백 비해당)는 55.9%, 2020년 혹은 2021년 둘 중 한 해에서 돌봄 공백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돌봄 공백 1회)는 18.8%,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돌봄 공백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돌봄 공백 지속)는 25.3%이다. 연구참여자의 44.1%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변화와 돌봄 공백을 비교하면, 소득감소 비해당과 돌봄 공백 비해당이 모두 55%를 상회하여 가장 많았으나, 소득변화는 1회(23.0%), 지속(21.4%) 순이었고, 돌봄 공백은 지속(25.3%), 1회(18.8%)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87>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 및 돌봄 공백 현황

구분		N(%)
소득 변화 ¹⁷⁾	소득감소 비해당	761(55.7)
	소득감소 1회	314(23.0)
	소득감소 지속	292(21.4)
돌봄 공백 ¹⁸⁾	돌봄 공백 비해당	764(55.9)
	돌봄 공백 1회	257(18.8)
	돌봄 공백 지속	346(25.3)

17) 소득 변화는 ‘월평균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의 질문을 활용함

- 소득감소 지속 : 2020년과 2021년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
- 소득감소 1회 : 2020년과 2021년 둘 중 한 해에 소득 감소를 보고한 가정
- 소득감소 비해당 : 2020년과 2021년 모두 소득감소가 없었던 가정(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동일하거나 혹은 증가했다고 응답)

18) 돌봄 공백은 일주일에 1일 이상 아동이 성인 보호자 없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정을 돌봄 공백으로 판단함

- 돌봄 공백 지속 :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돌봄 공백을 보고한 가정
- 돌봄 공백 1회 : 2020년, 2021년 둘 중 한 해에 돌봄 공백을 보고한 가정
- 돌봄 공백 비해당 : 2020년과 2021년 모두 돌봄 공백이 없었던 가정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와 돌봄 공백 현황을 아동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 88>과 같다. 소득감소 비해당은 미취학 아동(62.7%), 초등 저학년생(56.4%) 가정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다. 소득감소 1회는 대체로 전 연령 가정에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소득감소 지속은 초등 고학년생(27.8%), 고등학생(25.6%), 중학생(23.2%) 가정의 비율이 높았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기는 대학입시와 학업성취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기로, 온라인 수업의 도입으로 소득변화가 이들의 학업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 공백 비해당은 미취학(84.2%), 초등 저학년생(66.7%) 가정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고, 돌봄 공백 1회는 중학생(27.5%), 초등 고학년생(23.0%), 고등학생(22.4%) 가정에서 높았다. 돌봄 공백 지속은 고등학생(58.4%), 중학생(48.3%) 가정의 비율이 높았다. 미취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아동 60.4%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돌봄 공백에 노출되었다고 응답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표 88> 아동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 및 돌봄 공백 현황

N(%)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생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계
소득 변화	소득감소 비해당	250 (62.7)	229 (56.4)	115 (50.0)	104 (50.2)	63 (50.4)	761 (55.7)
	소득감소 1회	74 (18.5)	104 (25.6)	51 (22.2)	55 (26.6)	30 (24.0)	314 (23.0)
	소득감소 지속	75 (18.8)	73 (18.0)	64 (27.8)	48 (23.2)	32 (25.6)	292 (21.4)
돌봄 공백	돌봄 공백 비해당	336 (84.2)	271 (66.7)	83 (36.1)	50 (24.2)	24 (19.2)	764 (55.9)
	돌봄 공백 1회	47 (11.8)	72 (17.7)	53 (23.0)	57 (27.5)	28 (22.4)	257 (18.8)
	돌봄 공백 지속	16 (4.0)	63 (15.5)	94 (40.9)	100 (48.3)	73 (58.4)	346 (25.3)
전체		399 (100.0)	406 (100.0)	230 (100.0)	207 (100.0)	125 (100.0)	1,367 (100.0)

심화분석은 지난 2년 동안의 가구 소득 감소 정도와 돌봄 공백 지속 정도에 따라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가정 내 폭력, 사이버 폭력, 학습격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범위가 넓으며, 앞서 기초분석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여러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심화분석에서는 이를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ANCOVA이며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코로나19와 심리정서

코로나19로 일상의 변화와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심민영, 2020), 발달시기에 있는 아동에게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일상의 변화는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숙, 김성재, 2009).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대급부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가족 간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높이는 위험과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신영미, 권순범, 2021).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 격차가 커지고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상태와 상담 희망 여부가 가구 소득 변화와 돌봄 공백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심리정서

〈표 89〉에서 아동의 심리정서가 가구 소득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행복은 소득감소가 지속될수록 감소하였고, 불안, 지루함, 외로움은 높아졌다. 4가지 변인 중 행복과 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이 동일하거나 증가한 가정의 아동과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의 아동 간 행복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지속적인 가구 소득 감소가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표 89〉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심리정서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행복한	6.30(1.745)	6.09(1.629)	5.97(1.729)	9.693*** (a)c)
불안한	4.27(2.103)	4.45(2.061)	4.60(2.032)	24.319***
지루한	5.58(2.045)	5.72(2.023)	5.87(1.963)	1.624
외로운	4.20(2.208)	4.44(2.191)	4.52(2.118)	2.543

* p < .05, ** p < .01, *** p < .001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음 힘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심리적 상담 종류는 게시판 상담,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전화 상담,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하기,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하기,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기 등이다. 그 결과, 상담희망은 가구 소득 감소가 지속될수록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를 2년 연속으로 보고한 가정의 아동이 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90〉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상담희망(초등 고학년생 이상)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상담희망	1.70(.816)	1.79(.844)	1.81(.813)	7.382***

* p < .05, ** p < .01, *** p < .001

보호자의 심리정서가 가구 소득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91〉을 살펴보면 앞서 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심리정서가 가구 소득감소가 지속될수록 행복은 낮아지고 불안, 지루함, 외로움은 증가하였다. 행복, 불안, 외로움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소득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정이 보호자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고 불안과 외로움은

가장 높았다. 보호자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은 아동의 심리정서와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91〉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정서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행복한	5.64(1.815)	5.39(1.730)	4.93(1.821)	12.418*** (a)c, b)c)
불안한	5.49(2.024)	5.83(2.058)	6.33(1.982)	13.409*** (a<b(c)
지루한	5.69(1.970)	5.92(1.966)	6.00(2.108)	2.218
외로운	4.88(2.151)	5.22(2.134)	5.67(2.192)	12.749*** (a<b(c)

* p < .05, ** p < .01, *** p < .001

미취학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는 동안,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표 92〉를 보면 양육스트레스는 가구 소득 감소가 지속된 가정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구 소득 감소가 지속된 가정이 상담희망 정도가 높았다.

〈표 92〉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상담희망

(단위: 점, 10점 만점/ 4점 만점)

구 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양육스트레스	6.65(1.746)	7.07(1.774)	7.40(1.733)	14.404*** (a<b(c)
상담희망	2.04(.857)	2.20(.927)	2.47(.851)	18.242*** (a<b(c)

* p < .05, ** p < .01, *** p < .001

2) 돌봄 공백에 따른 심리정서

〈표 93〉에서 아동의 심리정서가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행복은 소득감소가 지속될수록 감소하였고, 불안, 지루함, 외로움은 높아졌다. 4가지 변인 중 행복, 불안, 외로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이 없었다고 응답한 가정의 아동과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이 지속되었다고 응답한 가정의 아동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가구 소득변화에 따른 아동의 심리정서 차이를 살펴본 〈표 89〉와 유사하다. 소득변화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지속적인 돌봄 공백의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표 93〉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심리정서

(단위: 점, 10점 만점)

구 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행복한	6.42(1.718)	5.96(1.633)	5.81(1.707)	12.955*** (a>b, a>c)
불안한	3.99(2.092)	4.72(2.073)	5.00(1.867)	30.385*** (a<b, a<c)
지루한	5.57(2.106)	5.66(1.918)	5.91(1.901)	2.487
외로운	4.07(2.230)	4.44(2.099)	4.78(2.082)	9.306*** (a<b<c)

* $p < .05$, ** $p < .01$, *** $p < .001$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음 힘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표 94〉). 아동의 상담희망은 돌봄 공백이 지속될수록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돌봄 공백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4〉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상담희망(초등 고학년생 이상)

(단위: 점, 4점 만점)

구분	돌봄 공백			F(p)
	없음(a)	1회(b)	2회(c)	
	M(SD)	M(SD)	M(SD)	
상담희망	1.59(0.792)	1.78(0.817)	1.83(0.832)	8.355*** (a<c)

* $p < .05$, ** $p < .01$, *** $p < .001$

보호자의 심리정서가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95〉). 돌봄 공백이 지속되는 가정에서 부모의 행복이 낮고 불안, 지루함, 외로움은 높았다. 행복, 불안, 외로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돌봄 공백이 지속되었다고 응답한 가정이 보호자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고 불안과 외로움은 가장 높았다.

〈표 95〉 돌봄 공백에 따른 보호자의 심리정서

(단위: 점, 10점 만점)

구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행복한	5.58(1.815)	5.33(1.812)	5.17(1.798)	4.419** (a>c)
불안한	5.61(2.094)	5.84(2.024)	5.99(1.943)	3.150* (a>c)
지루한	5.79(2.024)	5.82(2.059)	5.83(1.917)	0.100
외로운	4.95(2.217)	5.29(2.107)	5.40(2.108)	5.337**

* $p < .05$, ** $p < .01$, *** $p < .001$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는 동안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질의한 결과(〈표 96〉), 양육스트레스는 돌봄 공백이 지속되는 가정일수록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상담희망은 돌봄 공백이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응답한 보호자(2.26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년 연속 돌봄 공백이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2.23점), 돌봄 공백이 없었다고 응답한 보호자(2.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담희망, 양육스트레스 모두 돌봄 공백이 있었다고 응답한 보호자들이 높게 나타났고, 돌봄 공백이 없었던 보호자들은 가장 낮았다.

〈표 96〉 돌봄 공백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상담희망

(단위: 점, 10점 만점/ 4점 만점)

구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양육스트레스	6.76(1.817)	6.98(1.656)	7.17(1.740)	4.602** (a<c)
상담희망	2.11(0.887)	2.26(0.884)	2.23(0.887)	5.362** (a<b, a<c)

* p < .05, ** p < .01, *** p < .001

3 코로나19와 폭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보호자의 가정 내 거주시간이 증가하고, 아동 역시 등교·등원 대신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한편, 병의원,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 감소와 폐쇄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통한 신고가 감소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이 음성화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소득감소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가구 소득 변화와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폭력¹⁹⁾

가정 내 학대가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초등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7>에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모두 소득감소 1회 가정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가 지속된 가정, 소득감소가 전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가정 순이었다. 가정 내 학대피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97>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가정 내 학대피해(초등 고학년생 이상)

(단위: 점, 2점 만점)

구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신체학대	0.15(.629)	0.33(.919)	0.18(.680)	2.424
정서학대	1.08(1.237)	1.13(1.285)	1.09(1.316)	7.442***
방임	0.21(.643)	0.41(1.022)	0.25(.620)	2.508

* $p < .05$, ** $p < .01$, *** $p < .001$

'전혀 없었음(=0), 몇 번 있었음(=1), 자주 있었음(=2)'

19) 아동학대 설문 문항

- 신체학대 : ①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③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나의 엉덩이나 신체의 일부를 때리셨다
- 정서학대 : 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하셨다 ② 소리를 지르거나 고향을 질렀다
③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거나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 방 임 ①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②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다
③ 술에 취해 있으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지 않으셨다

다음으로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 갈등과 온라인 폭력피해 경험이 가구 소득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²⁰⁾ 초등 고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98>을 살펴보면 체벌, 가정폭력 목격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 갈등은 가구소득 감소 1회 가정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감소 지속 가정, 소득감소 비해당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폭력피해는 소득감소가 지속된 가정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감소 1회 가정, 소득감소 비해당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체벌과 온라인 폭력피해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가정 내에서 체벌이나 아동이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아동과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폭력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 98>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폭력 이슈(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 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오프라인	체벌	0.14(0.346)	0.21(0.406)	0.19(0.392)	3.148** (a<b)
	가정폭력 목격	0.28(0.448)	0.38(0.486)	0.32(0.468)	1.904
	인터넷 스마트폰갈등	0.49(0.501)	0.58(0.495)	0.51(0.502)	2.402
온라인	온라인 폭력피해	0.52(0.992)	0.52(0.950)	0.73(1.253)	4.033**

* p < .05, ** p < .01, *** p < .001
'0=예, 1=아니오'

20) 온·오프라인 폭력 이슈

- 체벌 :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 가정폭력 목격 :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 인터넷 스마트폰 갈등 : 인터넷 게임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 경험
- 온라인 폭력피해 : 온라인상에서 ① 온라인상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봤다 ②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③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또는 SNS에 계속 찾아와 글이나 사진을 남겼다 ④ 내 동의 없이 나의 개인정보가 퍼뜨려진 적이 있다

2) 돌봄 공백 여부에 따른 폭력

가정 내 학대가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99〉). 초등 고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들에게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이 혼낼 때 상황을 조사한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돌봄 공백 1회 가정(신체학대 0.29점, 정서학대 1.17점)이 가장 높았고, 방임은 돌봄 공백 지속 가정(0.38점)이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 방임은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은 아동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높이는 위험요인이 되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99〉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가정 내 학대피해(초등 고학년생 이상)

(단위: 점, 2점 만점)

구 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신체학대	0.13(0.600)	0.29(0.898)	0.21(0.712)	2.033
정서학대	1.00(1.121)	1.17(1.305)	1.11(1.329)	8.600***
방임	0.09(0.429)	0.25(0.671)	0.38(0.903)	5.177** (a<c)

* $p < .05$, ** $p < .01$, *** $p < .001$

'전혀 없었음(=0), 몇 번 있었음(=1), 자주 있었음(=2)'

다음으로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 갈등과 온라인 폭력피해 경험이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초등 고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00〉을 살펴보면 체벌은 돌봄 공백 1회 가정과 돌봄 공백 지속 가정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돌봄 공백이 없던 가정에서는 체벌 경험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목격 경험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돌봄 공백이 장기간 지속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돌봄 공백 1회로 응답한 가정, 돌봄 공백 비해당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했을 때 가정 내 체벌이 발생하거나 아동이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아동과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폭력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가구 소득변화에 따른 폭력 이슈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가족과의 갈등, 체벌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상황, 온라인에서의 피해 등은 청소년기 심리정서적인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0〉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폭력 이슈(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 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오프라인	체벌	0.08(0.276)	0.20(0.404)	0.20(0.400)	6.860*** (a<b, a<c)
	가정폭력 목격	0.22(0.418)	0.34(0.476)	0.35(0.477)	3.657* (a<b, a<c)
	인터넷 스마트폰갈등	0.45(0.499)	0.50(0.502)	0.56(0.498)	3.364* (a<c)
온라인	온라인 폭력피해	0.45(0.957)	0.55(1.088)	0.67(1.092)	3.507*

* p < .05, ** p < .01, *** p < .001
'0=예, 1=아니오'

4 코로나19와 교육격차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교육과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신영미, 권순범, 2021). 등교·등원이 제한되고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되면서, 도입 초반 많은 혼란이 불가피하였다. 본 장에서는 가구 소득변화와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가구 소득변화에 따라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에 격차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표 101〉). 수업만족도를 보면²¹⁾, 등교수업 만족도(6.98점)와 온라인수업 만족도(5.64점)는 소득감소 비해당 가정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등교수업 만족도는 소득감소 지속 가정(6.96점), 소득감소 1회 가정(6.87점) 순이었으나, 온라인수업 만족도는 소득감소 1회 가정(5.14점), 소득감소 지속 가정(5.04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 학교성적, 학습부진 심화정도, 대면·비대면 수업변동 불편정도를 보면, 소득감소 비해당 가정의 아동이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즉,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학교성적이 양호하며 온라인 수업실시로 인한 학습부족 정도가 낮았고(학습부진 심화정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 진행되는 과정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대면·비대면 수업변동 불편정도). 반대로 소득감소가 지속된 가정의 아동은 학교성적이 낮고, 학습부진 심화정도가 높으며, 대면·비대면 수업변동 불편정도는 높았다.

〈표 101〉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수업 만족도	등교	6.98(1.924)	6.87(1.686)	6.96(1.773)	2.904*
	온라인	5.64(1.889)	5.14(2.037)	5.04(1.843)	4.451** (a)b, a)c)
학교성적		3.52(.819)	3.46(.769)	3.41(.840)	7.397***
학습부진 심화정도		1.44(.689)	1.58(.603)	1.63(.645)	7.432*** (a)b, a)c)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에 따른 불편함 정도※		1.58(.717)	1.46(.688)	1.45(.774)	4.577**

* $p < .05$, ** $p < .01$, *** $p < .001$

※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 불편 정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수업 변동에 따른 불편함이 높음을 의미

21)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

- 수업만족도 : 최근 3개월 동안 등교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0=매우 불만족, 10=매우 만족)
- 학교성적 : 현재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떠한 것 같나요?(1= 매우못함. 5=매우잘함)
- 학습부진 심화정도 : 온라인 수업 실시로 인해 학습 부진(부족)이 심해졌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 불편정도 :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표 102〉는 가구 소득변화에 따라 아동의 온라인 수업준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며²²⁾ 아동의 학업 여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가 없었던 가정의 아동이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전용 학습도구를 가진 비율이 높았고(학습기 전용수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도 높았으며(온라인 수업준비 가능성도),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고 응답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다는 비율(성인 보호자 존재)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반면, 소득감소 1회 가정 아동과 소득감소 지속가정 아동은 온라인 수업 준비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02〉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아동의 온라인 수업 준비 정도(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 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학습기 전용수준	2.43(.656)	2.34(.669)	2.24(.729)	3.582* (a>c)
온라인 수업준비 가능도	2.42(.616)	2.40(.612)	2.35(.595)	0.547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2.09(.747)	2.01(.699)	2.01(.762)	0.770
성인 보호자 존재	1.40(.942)	1.38(.861)	1.42(.905)	5.215**

* $p < .05$, ** $p < .01$, *** $p < .001$

22) 온라인 수업 준비 정도

- 학습기 전용수준 :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전용 학습도구(노트북, 컴퓨터 등)가 있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준비 가능성도 :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 성인 보호자 존재 :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온라인 수업환경의 적절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03〉). 온라인 수업환경의 적절함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지(온라인 수업 부모·가족 도움), 학교 선생님께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지(온라인 수업 선생님 도움), 온라인으로 수업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컴퓨터, 인터넷, 공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온라인 도구·환경 구비),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홈페이지 등에 접속이 잘 되었고 동영상의 버벅거림이 없었는지(온라인 접속·연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는 않았는지(온라인 수업 질문·소통), 온라인 수업에서의 숙제 양은 적절한지(온라인 숙제 양), 온라인으로 숙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온라인 숙제 제출 수월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가 없었던 가정의 아동은 이 8가지 모든 항목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감소가 1회 이상 있었던 가정의 아동들은 모든 항목에서 소득감소가 없었던 가정의 아동들보다 저조했다. 즉, 가구의 소득변동은 아동의 온라인 수업환경 적절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아동의 학습준비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03〉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온라인 수업환경(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분	소득감소			F(p)
	비해당(a)	1회(b)	지속(c)	
온라인 수업 부모·가족 도움	2.04(.715)	1.91(.683)	1.94(.721)	3.602**
온라인 수업 선생님 도움	1.92(.597)	1.84(.611)	1.90(.618)	3.644*
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1.87(.652)	1.82(.643)	1.72(.726)	5.716* (a)c)
온라인 도구·환경 구비	2.34(.607)	2.24(.623)	2.24(.606)	2.510**
온라인 접속·연결	1.88(.695)	1.79(.649)	1.85(.669)	2.736
온라인 수업 질문·소통	1.72(.672)	1.62(.667)	1.63(.657)	2.516
온라인 숙제 양	1.74(.625)	1.61(.573)	1.63(.688)	2.319 (a)b)
온라인 숙제 제출 수월성	1.96(.571)	1.83(.552)	1.78(.653)	3.714* (a)b, a)c)

* p < .05, ** p < .01, *** p < .001

2) 돌봄 공백에 따른 교육격차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에 격차가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표 104〉),²³⁾ 수업만족도 외에 학교성적, 학습부진심화정도, 대면·비대면 수업변동 불편 정도 등 모든 항목에서 앞서 살펴본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차이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돌봄 공백이 지속될수록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낮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학습 부진이 심화되고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며, 결과적으로 학교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대로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없었던 아동은 모든 면에서 양호한 상황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돌봄은 아동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격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 104〉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수업 만족도 및 학업성취(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 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수업 만족도	등교	7.08(2.114)	6.79(1.765)	6.95(1.673)	3.277*
	온라인	5.74(2.091)	5.56(2.004)	5.04(1.740)	5.104** (a)c, b)c
학교성적		3.59(0.809)	3.45(0.838)	3.43(0.798)	7.313***
학습부진 심화정도		1.38(0.683)	1.50(0.697)	1.62(0.616)	7.358*** (a)c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에 따른 불편함 정도※		1.67(0.763)	1.60(0.679)	1.39(0.708)	7.871*** (a)c, b)c

* p < .05, ** p < .01, *** p < .001

※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 불편 정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수업 변동에 따른 불편함이 높음을 의미

23) 수업만족도 및 학업성취

- 수업만족도 : 최근 3개월 동안 등교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0=매우 불만족, 10=매우 만족)
- 학교성적 : 현재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떠한 것 같나요?(1= 매우못함, 5=매우잘함)
- 학습부진 심화정도 : 온라인 수업 실시로 인해 학습 부진(부족)이 심해졌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 불편정도 :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

〈표 105〉는 돌봄 공백 정도에 따라 아동의 온라인 수업준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이며²⁴⁾ 아동의 학업여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이 없었던 가정의 아동은 학습기 전용수준, 온라인 수업준비 가능성,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성인 보호자 존재 모든 면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반대로 돌봄 공백이 지속된 가정의 아동은 모든 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아동은 형제자매와 학습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학습기 전용수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온라인 수업준비 가능성),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한 비율이 높았다(성인 보호자 존재).

〈표 105〉 돌봄 공백에 따른 아동의 온라인 수업준비 사항(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 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학습기 전용수준	2.54(0.656)	2.32(0.735)	2.27(0.652)	5.510** (a)b, a)c)
온라인 수업준비 가능성	2.48(0.605)	2.43(0.627)	2.33(0.598)	2.475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2.16(0.797)	2.09(0.689)	1.97(0.722)	3.025* (a)c)
성인 보호자 존재	2.01(0.930)	1.49(0.785)	1.00(0.741)	53.946*** (a)b)c)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돌봄 공백 지속여부에 따라 온라인 수업환경의 적절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06〉). 이는 앞서 〈표 105〉에 이어 아동의 학업여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온라인 접속·연결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돌봄 공백이 없었던 가정의 아동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온라인 수업준비 정도

- 학습기 전용수준 :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전용 학습도구(노트북, 컴퓨터 등)가 있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준비 가능성 :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
- 온라인 수업 정보 이용도 :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 성인 보호자 존재 :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다

돌봄 공백이 지속된 가정의 아동이 모든 면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이 아동들은 수업을 들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으며,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컴퓨터, 인터넷, 공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수업을 듣기 위한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함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온라인 진행되는 수업진도를 잘 따라가거나 숙제 양을 소화하고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105>에서 온라인 수업준비 정도도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의 학업여건의 차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표 106> 돌봄 공백에 따른 온라인 수업환경(초등 고학년생 이상)

구분	돌봄 공백			F(p)
	비해당(a)	1회(b)	지속(c)	
	M(SD)	M(SD)	M(SD)	
온라인 수업 부모·가족 도움	2.29(0.698)	2.05(0.654)	1.76(0.672)	21.214*** (a)b>c)
온라인 수업 선생님 도움	2.04(0.634)	1.93(0.569)	1.79(0.589)	8.163*** (a)c, b>c)
온라인 수업 진도 수월성	2.03(0.640)	1.78(0.662)	1.72(0.670)	9.699*** (a)b, a>c)
온라인 도구·환경 구비	2.45(0.603)	2.29(0.630)	2.20(0.592)	5.818** (a)b, a>c)
온라인 접속·연결	1.93(0.708)	1.96(0.649)	1.75(0.661)	5.463** (a)c, b>c)
온라인 수업 질문·소통	1.80(0.686)	1.70(0.666)	1.58(0.646)	4.480** (a)c)
온라인 숙제 양	1.74(0.642)	1.72(0.659)	1.63(0.609)	1.561
숙제 제출 수월성	2.00(0.610)	1.91(0.615)	1.81(0.562)	3.717* (a)c)

* p < .05, ** p < .01, *** p < .001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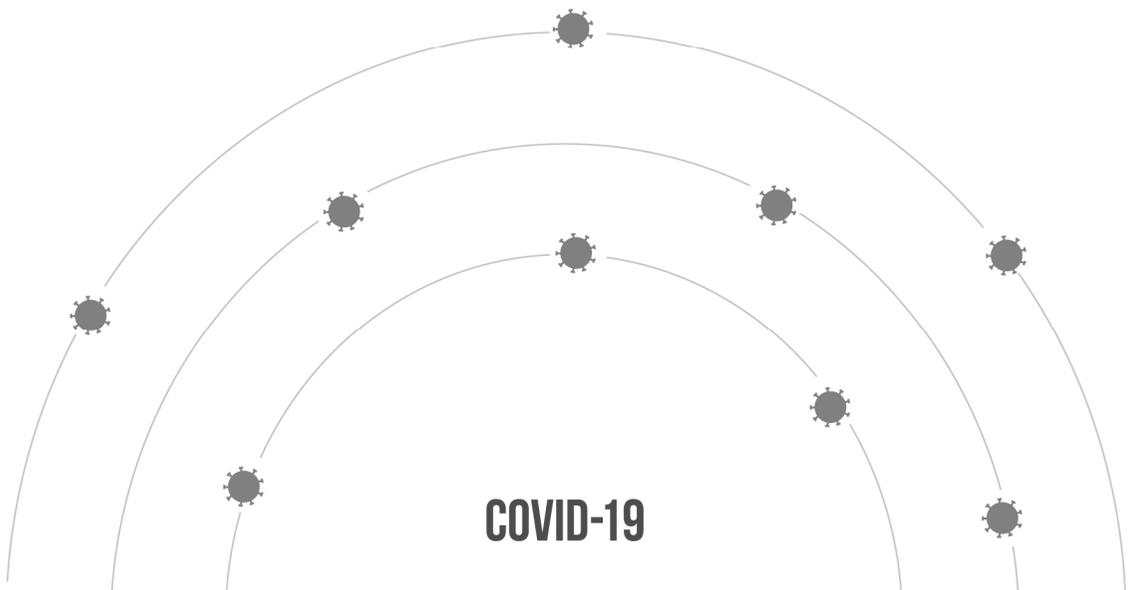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감염에 대한 우려와 방역정책 시행 등으로 사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동시에 재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된 휴교·휴원 조치,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과 야외 체험활동 감소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기능과 역할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돌봄 공백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나타난 일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정서 및 학업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이 아동의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가구 소득변화와 돌봄 공백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한 1차 연구「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의 후속연구이다. 1차 연구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초기에 당면한 일상의 변화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 연구는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삶의 변화와 격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4대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가구 소득수준 변화와 돌봄 공백 발생 여부에 따라 아동의 심리정서, 교육, 학대·방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1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아동 삶의 변화

1) 코로나19와 아동 4대 권리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삶의 변화와 발달상황을 아동 4대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식생활은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 아동의 식습관과 결식률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그 정도가 해소되지 않고 2021년에도 지속

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먹는 아동의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50.1%이었으나 2020년 35.3%로 14.8%p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1년에도 37.5%로 여전히 낮았다. 코로나 19 이후 10명 중 6명의 아동은 제대로 된 식사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우유 섭취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보다 2020년과 2021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코로나19 이후 부정적으로 변한 식품관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는 2018년 4.7%에서 2020년 6.0%, 2021년 5.9%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 잡힌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을 기준으로 등교 수업기간과 미등교 수업기간으로 구분해 보면, 등교 기간(아침 20.3%, 점심 1.9%, 저녁 1.3%)보다 미등교 기간(아침 32.6%, 점심 2.5%, 저녁 1.6%)에 결식률이 높았다. 결식 이유로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끼니를 거르거나(등교 기간 5.1%, 미등교 기간 8.2%)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게 되었다(등교 기간 1.5%, 미등교 기간 2.8%)는 응답이 나타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미등교 기간에 아동이 결식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아동 결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등교/미등교 기간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결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식생활 실태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발달권 측면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교육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 환경 및 학습 수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수업(5.3점)이 등교 수업(6.9점)보다 수업 만족도가 낮았다.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아동은 2020년 20.3%에서 2021년 14.3%으로 6.0%p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수업에 따른 집중력 저하(2021년 22.0%)를 호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 온라인 수업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12.4%(2021년)는 진도와 학업 성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초등 고학년생(46.5점), 중학생(50.8점), 고등학생(54.4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부진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며,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됨

에 따른 불편함도 증가하였다(초등 고학년생 47.4점, 중학생 49.9점, 고등학생 52.8점). 따라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연령을 중심으로는 학습 불안을 낮추고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결과, 코로나19 이후 가구 소득변화와 돌봄 공백 발생 여부에 따라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 수업준비정도, 수업환경 등에서 격차가 발생한 점도 주목된다. 코로나19 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가정의 아동은 소득 감소가 없었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학업성취가 낮고, 반대로 학습부진이 심해진 정도와 대면·비대면 수업 변동에 따른 불편함 정도는 높았다. 온라인 수업 준비정도와 온라인 수업환경도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정의 아동의 어려움이 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구의 소득과 돌봄 상황에 따라 아동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변화도 발달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면(2018년 7.6시간, 2020년 8.3시간, 2021년 8.3시간)은 코로나19 이후에 0.7시간 증가하였고, 놀이 및 휴식시간(2020년 2.8시간, 2021년 3.0시간)도 2020년보다 2021년에 0.2시간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수면과 놀이·휴식시간이 다소 증가하여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아동의 일상생활은 시간 뿐 아니라 활동 유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동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모든 연령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는 집안 일 돕기, 방과 후 교실 가기, 스포츠 및 신체활동과 같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신체를 활용한 동적인 영역의 활동은 감소하였고, 그 대신 교육 프로그램 시청, TV 및 유튜브 시청, 드라마 보기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하거나 학원, 과외 등에서 공부하기와 같이 움직임이 제한되는 정적인 활동은 증가하였다. 동시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47.4%→2021년 48.8%). 이는 감염 우려와 방역정책 시행으로 가정 외 체험학습의 기회와 친구들과의 교류가 감소하면서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여가 활동 대안이 마련되

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시간만큼 아동의 스마트폰/인터넷 활용 의존도 증가와 가족 내 갈등, 대인관계 발달 저하 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아동은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관광활동(46.4%),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는 활동(40.3%)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광, 야외학습과 같은 감염우려가 적은 활동을 중심으로 놀이중심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권의 측면에서 가정 내 학대와 방임, 온라인 상 사이버 폭력 등 안전한 돌봄 환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에는 발생 전인 2018년과 비교하여 신체학대는 감소하고 정서학대와 방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이봉주 외, 2020), 2021년의 학대 피해 수준은 2020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문항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살펴보면,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신체학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신체학대), 도구 이용해 엉덩이 및 신체 때리기(신체학대),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기(정서학대), 혼자두지 말아야 할 때 혼자두기(방임),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방임)’ 문항에서 2020년 대비 2021년에 0.5%p 내외로 상승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정서학대, 방임의 피해 경험이 높는데 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내 체벌 경험(2020년 23.9%, 2021년 25.2%)과 가정폭력을 목격 경험(2020년 31.6%, 2021년 37.0%) 모두 2020년보다 2021년에 증가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의 피해 경험이 높아 주목된다. 종합하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가정 내 학대와 방임, 체벌, 가정폭력 목격 경험 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심리정서와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학대예방과 조기 발견, 대응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방임 피해와 체벌, 가정폭력 목격의 증가는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연구결과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모든 아동 연령대에서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등교·등원 하지 않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응답이 81.3%로 등교·등원 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응답(1.7%)보다 월등히 높아 주목된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 부진과 학습 결손이 심해지는 것(14.0%),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한 자녀와의 논쟁(20.0%), 부모로서 자녀의 돌봄과 교육역량에 한계가 느껴지는 것(20.0%), 지속되고 가중되는 자녀 돌봄 부담(17.9%)과 같이 자녀의 발달 상황이나 자녀-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이거나, 혹은 악화되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9.7%), 돌봄 공백을 메울 지원이나 자원이 부족한 것(7.8%)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지되는 자녀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 부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심층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구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 증가가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만큼 양육스트레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 내 폭력 외에도 아동의 모바일 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폭언, 악플을 받아본 경험(2020년 20.0%, 2021년 23.9%)과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험(2020년 10.3%, 2021년 13.4%) 모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증가하였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야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도 2020년 12.7%에서 2021년 15.4%로 2.7%p 상승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 활용의 증가로 인터넷 매체 이용 시간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폭력과 유해매체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통해 학교부적응과 자퇴충동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손한결, 김은혜, 2021)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 아동이 생각하는 '재난 상황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아동 권리'가 무엇인지 의견을 조사하였고,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중·고등학생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교육 외에도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신체적/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폭력/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등 안정적이고 평안한 돌봄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아동이 발달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과 돌봄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중요한 만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과 돌봄 환경 요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 가구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고 있는 대상은 '부모님이나 가족(29.7%),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27.3%), 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27.3%)였다. 아동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집하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주관적 건강과 심리정서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건강이 약화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 정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는 7.7점이었으나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6.0점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 간 지속된 2021년에는 6.1점인 것으로 나타나, 2020년과 큰 차이 없이 재난으로 인해 낮아진 행복 수준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21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따뜻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감소하였고 대신 불안/걱정, 우울,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증가하였다. 최근 코로나블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데, 초등학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 고학년생 4.4점, 중학생 4.8점, 고등학생 5.2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로나블루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자살생각 비율과 증가율이 높았는데, 초등 고학년생은 2020년 3.0%에서 2021년 1.9%로 감소했고, 중학생은 2020년 2.9%에서 2021년 1.7%로 감소했지만, 고등학생은 2020년 4.5%에서 2021년 5.2%로 오히려 0.7%p 상승하였다. 고등학생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연령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령층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존중되어야 하는 아동권리 가운데 평등하게 교육받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지만 동시에 존중받지 못했다는 인식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된 교육상황과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별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마음이 힘들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26.9%),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보기, SNS 활동하기(26.4%)를 통해 주로 해소하고 있었다. 반면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 이야기하기(11.5%),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11.5%),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하기(5.5%)와 같이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기분을

환기 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감염우려와 방역정책으로 대인관계와 외부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미디어 활용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미디어 의존과 중독,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도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 이상 아동들에게서 심리적 어려움이 크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초등고학년생 42.3점, 중학생은 44.1점, 고등학생은 47.4점으로 특히 고등학생에게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다.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희망하는 상담은 부모님(1.9%)이나 가족(0.2%)보다는 친구, 선배 등 또래(21.3%)나 학교의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24.2%), 온라인 채팅과 메신저 상담(15.3%), 사설 기관의 전문가나 의사(7.8%)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보다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하고 아동과 보호자가 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남에 따라 아동의 주보호자인 부모의 정서 상태는 아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보호자의 행복은 2020년 4.9점에서 2021년 5.4점으로 0.5점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외에 불안/걱정(22.2%), 무기력(13.5%), 짜증(15.1%), 우울(8.8%) 등 부정적인 감정이 희망(3.2%), 감사(4.8%), 따뜻함(3.0%)과 같은 긍정적 감정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대변하듯 보호자의 상담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아동(44.5점)보다 보호자(53.7점)가 상담에 대한 욕구가 컸고, 상담을 이용해봤다는 응답 비율도 아동(7.1%)보다 보호자(10.4%)가 많았다. 부모가 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은 친구, 친인척, 지인(20.6%), 온라인 메신저 상담(17.8%), 기관의 상담 전문가나 의사(14.4%)였고, 자녀의 학교 내 상담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4.9%)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선생님에게 상담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다는 비율도 18.0%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상담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1)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 건강회복 지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익숙해질 만큼 오랜 기간 심리정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의 행복한 감정은 코로나19로 낮아진 이후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대인관계나 신체적 활동을 통해 해소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으로 해소하려는 경향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내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부모와의 갈등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 고립, 우울과 같은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고 개입되어야 한다.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 청소년이 많아짐에 따라 1388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건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건수는 2021년 8월까지 14만1464건으로 월 평균 1만7683건에 달했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매일경제, 2021.9.28.).

팬데믹 재난상황에서 아동 및 사회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상담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상담 이외에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 및 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원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난에 따른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고, 이 외에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쉼센터 등 여러 민·관 기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자살위험과 같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진 후 실제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내와 연계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상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가중시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

해 위험을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담기관에서 종합적인 회복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인력과 자원,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등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담기관 간의 협력 외에도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아동 돌봄이나 가족 지원과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는 그동안 여러 연구와 정책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주제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관 간 업무 협약(MOU)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관 소개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하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신체적·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아동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과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보다 특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아동 심리 문제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내 상담기관, 지역 돌봄 관련 기관 등은 실행기관이 되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심리정서 어려움과 돌봄 공백 등 지역별 현안 문제 해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는 아동과 부모에게 있어서 심리적 접근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1차적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학교의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의 역할 과중으로 예방과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심리·정서 문제 발견 시 경중에 따라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학교-지역사회 마음건강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와 함께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심리정서 문제와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민·관 상담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이 넓게 확산되는 만큼 보다 다양한 상담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에서 낙인감이나 기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채팅, 문자, 전화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방법을 확대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연령별로 희망하는 상담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욕구에 맞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상담 이

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유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은 감소하고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입시와 대인관계 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과업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전문 상담사 인력풀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부모의 감정이 양육태도와 아동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성정혜, 김춘경, 2018),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못지않게 보호자인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과 가구 소득 수준, 돌봄 수준에 따라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정도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코로나블루 수준, 양육스트레스 수준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휴교·휴원 조치, 온라인 수업 시작, 가정 내에서 아동과 보내는 시간 증가, 돌봄 공백 등 다양한 변화를 한 번에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결과로 추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험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개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특성을 고려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자의 우울과 불안,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 발생 시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확보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지역 접근성이 높은 보건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소통창구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 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개입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가정이나 온라인과 같이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공간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3.7%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율이 2020년 2.1%로 감소했으나(보건복지부, 2021) 이는 실제로 아동학대의 감소를 의미한다기보다 학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휴교·휴원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최아라, 2020). 오히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 양육자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에서(보건복지부, 2021)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력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 발견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이봉주, 장희선, 2021a). 실제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아동이 숨진

뒤에야 해당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한겨레, 2021.11.29.). 본 연구결과에서도 기존연구(이봉주, 장희선, 2018)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아동학대 경험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가 지속된 2021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기,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기,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기 등 일부 아동학대 관련 문항에 대한 경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낮은 경제적 상태, 부부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 부적절한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진주, 2008).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휴원·휴교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 방향은 주로 학대정황 발견 시 개입 절차와 사례종결,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방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다.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병원기록과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2018년 도입되었으나(YTN사이언스, 2018.1.3.)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고 지자체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급감하는 등 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가 작동되지 않기도 하였다(KBS NEWS, 2020.06.16.).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대부분이 은밀하게 발생하는 암수(暗數)범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도리어 현장조사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미국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가정조사가 감소하여 아동복지 프로그램 등록 아동의 모니터링이 제한되었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20-70% 감소하였다(AAP news, 2021.3.1.).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기간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Guidance COVID-19'를 통해 대면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과 온라인을 통한 가상 방문이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의 직무가 명시된 재난상황 업무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침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가정방문 시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방문에 대한 가이드, 필요 시 보호 장비 지급 규정, 재난 상황에서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휴식·보상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체벌과 학대 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지난 15년 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부모가 주 학대행위자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김나영, 2021). 본 조사결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보다 2021년 가정 내 체벌이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체벌과 학대도 증가하였다. 체벌과 아동학대는 경계가 모호하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장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되어 온 민법 915조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10명 중 8명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고 10명 중 6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아동복지연구소, 2021; 국민일보, 2021.1.7; BabyNews, 2021.4.19) 체벌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디어와 지역사회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여 민법 915조의 징계권 삭제를 이슈화하고, 징계권 삭제가 의미하는 것, 부모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정선옥, 2021)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의 증가는 스마트폰 의존도와 인터넷 의존도를 높일 수 있고 사이버 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현실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탁하연, 조규판, 2021), 공격성과 우울과 같은 정서(전상민, 2015; 주지영, 2021)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강경미 외, 2014; 이창훈, 김현수, 2021)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외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와 취미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그간 실효성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온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이용의 증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정 내 갈등 해결과 아동의 디지털 미디어 의존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 내 상담센터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센터, 스마트쉼센터 등을 연계하여 미디어 의존과 중독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도록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교육은 아동이 미래사회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재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이 병행되었는데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 만족도가 등교수업 만족도보다 낮았고, 아동과 보호자 모두 재난 상황에서 학습과 교육에 관련된 인력과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도가 높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을 우려하여 교육회복과 심리정서·사회성·신체건강 회복을 위해 2022년까지 집중적이고 총력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예고하였다(교육부, 2021).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지원, 등교 확대를 통한 학교일상회복과 또래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성 발달 등이다. 온라인 수업 지속으로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과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 교육 여건 개선,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 집중 지도를 통해 학습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방향은 아동의 학습결손과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고무적이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아동을 위해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미래역량을 습득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과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과 질적 정보획득 역량(디지털 리터러시)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주요한 수업 방식의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방식이 아동에게 미칠 장·단기적 영향을 예상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부진 현상을 더 크게 체감하고,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에 따른 불편함 정도와 한계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연령별 학습부진 감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아동은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는 것’을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존중받지 못한 아동권리 중 하나로 여기기도 했다. 평등하게 교육 받는다는 것은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아동이 이를 가장 보장받지 못했다고 선택했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아동이 스스로 체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 동안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과 돌봄 격차를 줄이는 데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가정의 역할

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적 측면에서 격차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존재한 사안으로, 코로나19 이전 교육방식으로 회귀 즉, 학교에 매일 등교하는 방식으로의 회복이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볼 수 없으며(정선욱, 2021),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에서 격차를 유발하는 영향 요인을 살피고, 특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재정과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는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결손 보완에서 진로지도까지 전반적인 교육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교육부, 2021).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기회와 교육과정에서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정과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아동이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나 도움, 학습 수행 과정 및 수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학습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빈곤가정 등 환경적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재난 발생으로 사회활동이 제약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다. 코로나19 확산은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을 4.4%, 지출을 11.1% 감소시켰는데(이승호, 홍민기, 2020),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득 감소 비율은 높고 반대로 지출 증가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20). 당초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란, 2020).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이승호, 홍민기, 2020)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소득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부정적 정서 증가와 교육격차, 환경의 불안정성이 보다 더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과 코로나19 이후 소득 저하가 지속되는 가정의 아동들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발달 지연과 문제

를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 가정에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은 아동 발달과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목적성 바우처 지원과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거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연구결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는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양육을 위한 별도의 경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 아동의 식습관과 결식률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그 정도가 해소되지 않고 2021년에도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습관을 보호받고 있는지 돌봄 공백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구의 소득상실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탈북, 장애,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정환경에 의해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아동과 가정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교 혹은 지역사회 기관의 실무자를 통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 학교적응의 어려움, 질병에 대한 불안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여 맞춤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의 접근성과 질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취약계층의 문화적 특성, 사회적·물리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어 문해력 및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비대면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등,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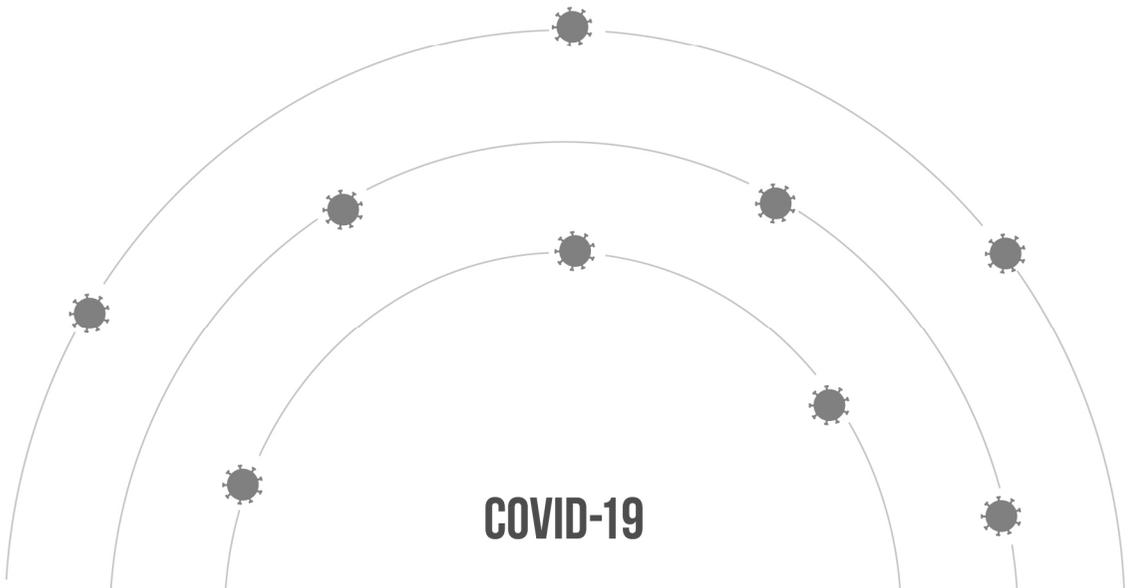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강경미·장정임·김성봉(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395-416.
- 교육부(2021).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51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국민일보(2021.1.7). 63년만에 자녀체벌권 삭제된다...민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03441&code=61111111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6.28).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86>.
- 김광혁(2019).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1-27.
- 김나영(2021).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육아정책 Brief, 제89호.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미(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수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2), 479-494.
- 김위정(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241호.
- 김은설·도남희(2012).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2012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공동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가정과삶의질학회.
- 김주리·최혜진·강지원(2021).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1(2), 178-197.
- 김지우·김나영·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 김태완·이주미(2020).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2020(12), 20-33.
- 김효선(2002).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8.10). '2학기 온라인·대면수업 병행...평가 간소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714>.
- 대한적십자사[웹사이트].(2022.2.20).https://www.redcross.or.kr/voluntary/recovery_support.do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보도자료(2021.12.23). 서울특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코로나19 등 재난경험자 대상 무료 심리상담 지원. https://www.redcross.or.kr/seoul/news_local.do?action=detail&brdctsn=253893&pagenum=1&search_jisacode=&search_businessdeptcode=&search_option=&search_keyword=
- 매일경제(2021.9.28). 코로나19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9/923168/>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병선·배성우·박경진·서미경·김혜지(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http://covid19seoulmind.org/information/2910/>(2020.5.20. 추출)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http://covid19seoulmind.org/information/2985/>(2020.5.20. 추출)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http://covid19seoulmind.org/information/3276/>(2020.5.20. 추출)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http://covid19seoulmind.org/prescription/3553/>(2020.5.20. 추출)
- 성정혜·김춘경(2018),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육아정책연구, 12(1), 99-123.
- 손한결·김은혜(2021).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자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225-232.
- 신영미, 권순범(2021).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변화와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25(2). 227-245.
- 심민영(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 대한내과학회지, 95(6), 360-363.
- 아동권리보장원(2020). 우리 모두 함께해요! 온라인 개학 보호자편(수업준비 체크리스트).
- 아동복지연구소(2021). 이슈리서치6.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그 이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엄상민·정규철(2021).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경제전망, 38(2). 한국개발연구원.
- 여진주(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경상북도 동부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28(1), 3-26.

- 우유라·노총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육아정책연구소·한국발달심리학회(2020).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④(아이의 일상생활 적응 체크).
- 윤혜미·남영옥(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 이데일리(2021.10.21). 코로나 '비대면'의 그늘, 지난해 아동학대사범 최고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44966629215216&mediaCodeNo=257>
- 이봉주(2021). “코로나19 발생 1년, 아동 일상 변화 추이와 개선과제.”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 아동, 다시 일상으로! (pp. 13-35)』. 굿네이버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 이봉주·장희선(2021a).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1), 147-180.
- 이봉주·장희선(2021b. 7). 코로나19 시대, 아동청소년 결식실태: 우리아이들, 밥은 잘 먹고 있나요?. 교육부 <행복한 교육>.
- 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2020).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굿네이버스.
- 이봉주·장희선·신원영(2018).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 이소희(2021).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2021년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pp. 85-92)』.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이승호(2020). 코로나 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노동리뷰, 7-20.
- 이승호·홍민기(2020). 코로나19 확산과 가계 지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숙·김성재(2009). 유아기 신체 건강과 관련한 일상생활습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30(3), 177-196.
- 이창훈·김현수(202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3), 145-168.
- 이현정(2011). 아동이 지각한 분노정서와 가족관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정은희·김문길·전지현(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림(2016).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임웅·김상국(2012). 미디어노출, 생활습관, 신체활동 청소년의 미디어중독 및 BMI의 관계. 국민건강증진연구논집 6, 23-34.
- 임현주(2019).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 차이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4), 93-114.

- 임혜정. (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전상민(2015).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디지털 융복합연구, 13(10), 471-482.
- 전수완(2021).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토론문 II”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굿네이버스 산학세션: 재난 속 아동 삶의 진단과 개선과제(pp.68-70)』. 굿네이버스.
- 정선영(2020). 가구소득 수준이 아동이 인식한 방임 및 학대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2), 121-146.
- 정선욱(2021). “2021 아동 재난대응 포럼 토론문 I” 『2020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굿네이버스 산학세션: 재난 속 아동 삶의 진단과 개선과제(pp.65-67)』. 굿네이버스.
- 정익중·이수진·강희주(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조상현·정병수(2021). 코로나19 시대 범죄 관련 이슈와 시사점.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207-220.
- 조숙인(2021).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포럼.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5153/2/PF6803.pdf>
- 조신행(2020)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육아정책포럼 정책동향. <https://repo.kicce.re.kr/bitstream/2019.oak/5047/2/PF6504.pdf>
- 주석진(2020).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가 아동과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0년 부산 지역 아동의 정신건강증진 토론회』. 굿네이버스.
- 주지영(2021).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공격성의 상호 관계 검증: 남녀 아동의 모형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73-79.
- 최아라(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21, 11(4), 1379-1389.
- 최윤경(2020.12).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 최혜정·김형관(2021).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와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83-105.
- 탁하연·조규판(2021).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현실 및 사이버 비행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율성지 지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8(4), 113-134.
- 통계청 보도자료(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한겨레(2021.6.14). ‘온라인 수업’의 역설 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293.html
- 한겨레(2021.11.29). "1년여 어린이집 안 와"... 코로나 장기화 뒤편 3살 아이 학대사망(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1262.html).

한정민(2021). 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KIET 산업경제 특집.

AAP news(2021.3.1.), ED visits for child abuse drop during pandemic; hospitalizations increase. <https://publications.aap.org/aapnews/news/8933>

Ahorsu, D. K., Lin, C. Y., Imani, V., Saffari, M., Griffiths, M. D., & Pakpour, A. H(2020). The fear of COVID-19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9.

BabyNews(2021.4.19). 아동 80%, 부모가 체벌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모른다. https://www.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98&replyAll=&reply_sc_order_by=1

Germany(2020). Project You-Co: survey on the views of young people in times of Corona

Israel(2020). Perceptions and feelings of children and youth regarding the Coronavirus

KBS NEWS(2020.06.16.).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2월부터 중단됐다...현장조사도 멈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71793&ref=A>

Kousky, C(2016).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3-92.

N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20.4.3.). Child Protective Services Guidance COVID-19. <https://covid19.ncdhhs.gov/media/256/open>

The voice for healthcare(2021.1.7).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 의무화...입법추진.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4>

YTN사이언스(2018.1.3). 3월부터 아동학대 예방에 '빅데이터 활용'. https://m.science.ytn.co.kr/viaw.php?s_mcd=0082&key=201801031154569418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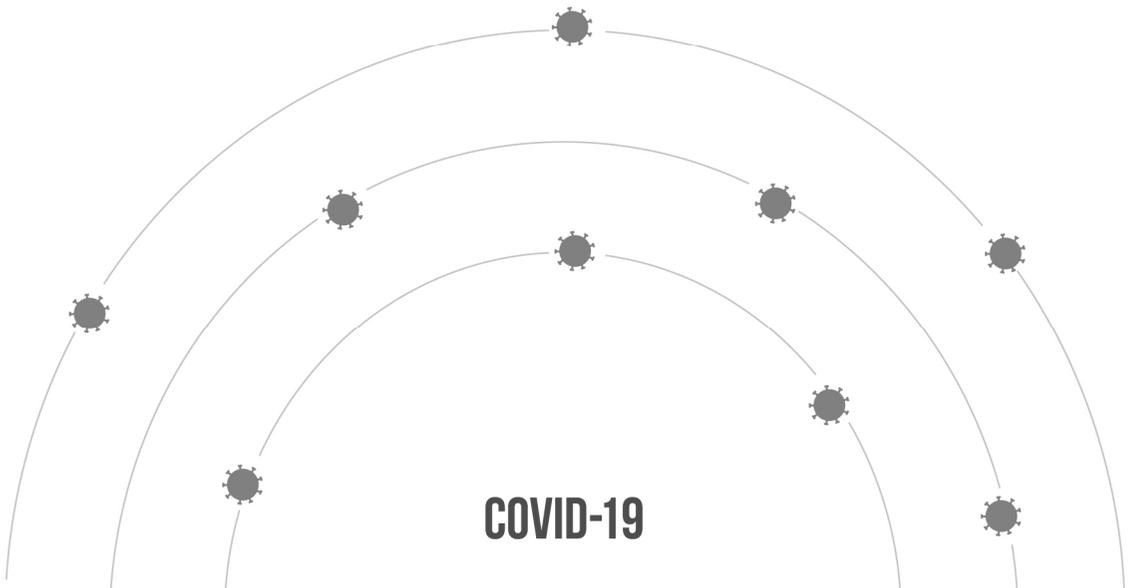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부록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아동: 초등고학년, 중고등)



〈조사개요〉

- 샘플 수 : 1,800명
- 지역 : 전국 6개 권역 거주자
- 조사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교 자녀

자녀 연령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총 합
	600	600	600	180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1) 남자 2) 여자

SQ2. 현재 몇 **학년**이신가요? [1개 선택]

- | | |
|-------------|---------------------------|
| 1) 초등 4학년 | 2) 초등 5학년 |
| 3) 초등6학년 | 4) 중학교 1학년 |
| 5) 중학교 2학년 | 6) 중학교 3학년 |
| 7) 고등학교 1학년 | 8) 고등학교 2학년 |
| 9) 고등학교 3학년 | 10) 위 보기에 해당되지 않음 → 조사 중단 |

A.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 인식 평가

A1.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여러분의 각 영역별 생활은 최근 3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한 것 같나요?

[행별1개씩 선택]

구분	부정적으로 변함 0	1	2	3	4	변화하지 않았음 5	6	7	8	9	긍정적으로 변함 10
1) 일상생활	0	1	2	3	4	5	6	7	8	9	10
2) 건강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3) 취미 및 개인 활동	0	1	2	3	4	5	6	7	8	9	10
4) 시간활용	0	1	2	3	4	5	6	7	8	9	10

A2. 다음은 최근 3개월동안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떠
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각 내용을 읽고 1주일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고 해당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 규칙적인 식사	1	2	3	4
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	1	2	3	4
3) 고기 반찬	1	2	3	4
4) 우유	1	2	3	4
5)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등)	1	2	3	4
6) 배달 음식	1	2	3	4

A6. 최근 3개월 동안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날에 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다음의 [보기]중 1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개 선택]

- 1) 주로 혼자 있었음
- 2) 주로 성인인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음
- 3) 주로 만 18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음
- 4)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와 함께 있었음
- 5) 주로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부모님 두 분 모두와 함께 있었음
- 6)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성인 친척(이모, 삼촌, 고모, 큰 아버지 등등)과 함께 있었음
- 7) 주로 과외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과 함께 있었음
- 8) 주로 돌봄 선생님 또는 가사도우미(집안 살림을 도와주시는 어른)와 함께 있었음

A7.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 머무를 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다음의 [보기] 중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3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평일 성인 보호자없이 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어야 하는 것
- 2)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
- 3)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진도와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
- 4) 온라인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되는 것
- 5)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
- 6)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 활동, TV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또는 성인 가족)과 갈등이 생기는 것
- 7)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 것
- 8)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변화되는 것
- 9) 부모님 사이에 혹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것
- 10)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
- 11) 집안에서의 오랜 생활로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 되는 것

A8.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이 마음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아래의 [보기] 중 어떠한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 했나요? [1개 선택]

- 1)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음
- 2)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 하기
- 3)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
- 4)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 활동 하기
- 5)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
- 6)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 하기
- 7)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 받기
- 8)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및 고민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 9)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기
- 10) 기타 (직접 작성: _____)

A9. 다음은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현재 여러분이 다음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4)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A10. 다음은 여러분의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전용 학습 도구(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가 있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2)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	1	2	3	4
3)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4)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성인보호자가 늘 함께 있다.	1	2	3	4

A11.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의 환경**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1	2	3	4
2)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 선생님께서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	1	2	3	4
3) 온라인 수업으로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1	2	3	4
4)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컴퓨터, 인터넷)나 환경(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홈페이지 등에 접속은 잘 되었고 동영상의 버벅거림 등은 없다	1	2	3	4
6)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	1	2	3	4
7) 온라인 수업에서의 숙제 양은 적절하다	1	2	3	4
8) 온라인으로 숙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1	2	3	4

A12-1. 최근 3개월 동안 등교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등교 수업	0	1	2	3	4	5	6	7	8	9	10
2) 온라인 수업	0	1	2	3	4	5	6	7	8	9	10

A12-2. 현재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떠한 것 같나요? [1개 선택]

- 1) 매우 못함 2) 못함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A12-3.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학업 상황은 어떠한 것 같나요?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 수업 실시로 인해 학습 부진(부족)이 심해졌다	1	2	3	2
2)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 진행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1	2	3	4

A13-1. 다음의 [보기]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루 중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한 활동을 활동 양이 많았던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3순위까지 필수 선택]

구 분	많이 하는 활동 1순위	많이 하는 활동 2순위	많이 하는 활동 3순위
1) 온라인 수업을 할 때	1	2	3
2) 등교 수업을 할 때	1	2	3

- 1) 집안일 돕기
- 2)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 3)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 4) 학교 정규수업 외의 공부(학원 및 과외 등)하기
- 5)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 6)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예,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등)
- 7)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
- 8)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 9) SNS 활동하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 10)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 11) 친구들 만나기
- 12)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등

A13-2. 최근 3개월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음의 활동을 평일 하루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했나요? [행별 1개씩 선택]

구 분	전혀 하지 않음	하루에 몇 분 미만	하루에 몇 분~1시간 미만	하루에 1시간~4시간 미만	하루에 4시간 이상
1)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 하기	1	2	3	4	5
2)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하기	1	2	3	4	5
3)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유튜브 등 보기	1	2	3	4	5
4)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1	2	3	4	5
5) SNS 활동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1	2	3	4	5

A14.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이 여러분을 혼낼 때,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내용을 읽고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 분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1)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1	2	3
2)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1	2	3
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나의 엉덩이나 신체의 일부를 때리셨다	1	2	3
4)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하셨다	1	2	3
5)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1	2	3
6)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거나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1	2	3
7)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8)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지 않으셨다	1	2	3
9) 술에 취해 있으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지 않으셨다	1	2	3

**A15.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온라인 상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행별 1개씩 선택]**

구 분	예	아니오
1)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 상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봤다	1	2
2)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 있다(원하지 않는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보내는 것 포함)	1	2
3) 채팅/게시판/게임/SNS 활동 등 온라인 상에서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또는 SNS에 계속 찾아와 글이나 사진을 남겼다	1	2
4) 채팅/게시판/게임/SNS 활동 등 온라인 상에서 내 동의 없이 나의 개인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가 퍼뜨려진 적이 있다	1	2
5) 컴퓨터/스마트폰/잡지 등을 통해 아동(야한 동영상)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	1	2

A16. 최근 3개월 동안 가정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예	아니오
1)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2)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1	2

A17-1. 최근 3개월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의 수면시간/스마트폰, 인터넷 게임/놀이 및 휴식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인가요?

- 1) 수면 시간(낮잠 포함 총 수면 시간) : ()시간 ()분
- 2)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학습 위한 사용 시간 제외) : ()시간 ()분
- 3) 놀이 및 휴식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 제외) : ()시간 ()분

A17-2. 최근 3개월동안 등교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의 수면시간/스마트폰, 인터넷 게임/놀이 및 휴식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인가요?

- 1) 수면 시간(낮잠 포함 총 수면 시간) : ()시간 ()분
- 2)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학습 위한 사용 시간 제외) : ()시간 ()분
- 3) 놀이 및 휴식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 제외) : ()시간 ()분

A18.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인터넷 게임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A19. 코로나 19가 끝나면, 여러분은 다음 중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1개 선택]

- 1) 관광 활동 (여행, 캠핑, 소풍, 놀이공원/식물원 가기 등)
- 2)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 (배드민턴/탁구/수영/요가, 경기장 가기 등)
- 3)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관람 (미술활동, 악기연주, 영화 및 연극 보기, 박물관 가기 등)
- 4)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놀거나 시간 보내기
- 5) 기타: _____

A20.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의 각 감정 수준은 어떠한 수준이었던 것 같나요?

[각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낮았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았음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3)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A21. 최근 3개월 동안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슬픔이 계속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A22. 다음 감정 중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골라주세요. [3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불안/걱정
- 2) 우울
- 3) 외로움
- 4) 무기력
- 5) 화/분노
- 6) 짜증
- 7) 두려움/공포
- 8) 충격
- 9) 절망
- 10) 평온
- 11) 관심
- 12) 침착함
- 13) 따듯함
- 14) 희망
- 15) 감사
- 16) 초조함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화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A23-1.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코로나 블루’는 어느 정도였나요?

매우 낮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음 10
0	1	2	3	4	5	6	7	8	9	10

A23-2.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여러분의 ‘코로나블루’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에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되나요?

[1개 선택]

- 1)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코로나블루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졌다.
- 2) 코로나블루 수준이 때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다.
- 3)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다.
- 4)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정도였다
- 5)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다.
- 6) 코로나블루 수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다. (현재 가장 높음)

A24. 여러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요?

[각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코로나가 가장 무섭다	1	2	3	4	5
2) 나는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하다	1	2	3	4	5
3) 코로나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난다	1	2	3	4	5
4)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렵다	1	2	3	4	5
5)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접할 때 긴장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다	1	2	3	4	5
7)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내 심장이 뛰고 두근거린다	1	2	3	4	5

A25.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나요? [1개 선택]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종류〉

예시 :

- 1) 게시판 상담,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전화 상담,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
- 2)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 3)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 4)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A26-1-1.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기> 의 상담을 이용해 본 경험

이 있으신가요? [1개 선택]

- 1) 아니오 2) 예

A26-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이용 정도가 높았던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선택]

- 1) 게시판 상담
- 2)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 3) 전화 상담
- 4)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
- 5)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 6)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 7)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 8) 해당 없음

A26-1-3.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용했던 상담으로 선택한 상담 종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순위 선택	0	1	2	3
2순위 선택	0	1	2	3
3순위 선택	0	1	2	3

A26-2.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이용해야 할 때, <보기> 중 희망하는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필수 3순위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게시판 상담
- 2)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 3) 전화 상담
- 4) 친구 및 선후배 등 또래에게 상담
- 5)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 선생님에게 상담
- 6)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 7)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 8) 기타 (직접 작성: _____)

A27. 최근 3개월 동안 다음의 각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응답해 주세요.

[각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전혀 힘들지 않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이 힘들 10
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5) 가정의 경제적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6) 코로나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A28. 최근 3개월 동안 여러분은 다음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응답해 주세요.

[각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집안 분위기	0	1	2	3	4	5	6	7	8	9	10
2) 부모님과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3) 친구들과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4) 친구들과의 연락	0	1	2	3	4	5	6	7	8	9	10

A29. 여러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는 대상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필수 3순위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1) 부모님이나 가족들
- 2)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 3) 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
- 4) 정부(국가) 및 정치인
- 5) 교육기관(학교, 대학교 등)

A30-1.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와 지역에서 지원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0	1	2	3
2)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0	1	2	3
3)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0	1	2	3
4)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0	1	2	3
5)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	0	1	2	3
6)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0	1	2	3
7)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0	1	2	3
8)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0	1	2	3
9) 가족관계 강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0	1	2	3
10)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0	1	2	3

A30-2.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3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1)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 2)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 3)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 4)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 5)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
- 6)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 7)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 8)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 9) 가족관계 강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 10)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A31-1.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존중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받지 못한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필수 3순위까지 선택]

A31-2. 여러분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 권리에 대해 신경 써야 할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필수 3순위까지 선택]

구분	A31-1 존중 받지 못한/침해된 권리	A31-2 신경 써야 할 권리
1)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	1	1
2) 나이/성별/성적/종교/사는 곳/피부색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기	2	2
3)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하기	3	3
4) 생명, 생존, 발달 존중하기	4	4
5)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5	5
6) 정보를 쉽게 안내 받고 이용하기	6	6
7)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7	7
8) 입양/난민/장애/가정 밖 아동도 다른 아동처럼 동일하게 보호받기	8	8
9)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9	9
10)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10	10

A32. 최근 3개월 동안 코로나19 발생 관련 아동 이슈 및 정책에 여러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기회가 얼마나 있었나요? (예, 등교 및 등원 일정이나 코로나19 관련 아동 정책 등)
[1개 선택]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약간 있었음	매우 많았음
1	2	3	4

A33-1.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러분에게 좋게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33-2.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러분에게 나쁘게 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33-3.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아동: 미취학, 초등저학년)



〈조사개요〉

- 샘플 수 : 1,800명
- 지역 : 전국 6개 권역 거주자
- 조사 대상 :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연령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총 합
	900명	900명	1800

A. 미취학~초등학교 저학년 인식 평가

A1. 코로나 19 발생 이후 현재 각 영역별 자녀분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행별1개씩 선택]

구분	부정적으로 변함 0	1	2	3	4	변화하지 않았음 5	6	7	8	9	긍정적으로 변함 10
1) 일상생활	0	1	2	3	4	5	6	7	8	9	10
2) 건강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3) 취미 및 개인 활동	0	1	2	3	4	5	6	7	8	9	10
4) 시간활용	0	1	2	3	4	5	6	7	8	9	10

A2. 다음은 최근 3개월 동안 등교나 등원하지 않고 **자녀분이 집에 머무를 때, 자녀분의 식습관이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각 내용을 읽고 1주일을 기준으로 자녀분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고 해당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 규칙적인 식사	1	2	3	4
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	1	2	3	4
3) 고기 반찬	1	2	3	4
4) 우유	1	2	3	4
5)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등)	1	2	3	4
6) 배달 음식	1	2	3	4

A3. 다음은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또는 등교 수업이 진행될 때 **자녀분이 하루 3끼를 주로 챙겨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내용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등교 및 등원할 때	
	주로 먹는다	주로 먹지 않는다	주로 먹는다	주로 먹지 않는다
아침	0	1	0	1
점심	0	1	0	1
저녁	0	1	0	1

A5. 현재 자녀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	1	2	3	4	5
2)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도와주는 사람(어른)이 항상 있다.	1	2	3	4	5

A6.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이 등교 및 등원하지 않는 날에 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다음의 [보기]중 1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1) 주로 혼자 있었음
- 2) 주로 성인인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음
- 3) 주로 만 18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음
- 4)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와 함께 있었음
- 5) 주로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부모님 두 분 모두와 함께 있었음
- 6)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성인 친척(이모, 삼촌, 고모, 큰 아버지 등등)과 함께 있었음
- 7) 주로 과외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과 함께 있었음
- 8) 주로 돌봄 선생님 또는 가사도우미(집안 살림을 도와주시는 어른)와 함께 있었음

A7. 다음은 자녀분의 온라인 수업 준비 및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현재 자녀분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행별 1개씩 선택]

이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형제자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만의 전용 학습 도구(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가 있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2)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를 어른의 도움 없이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다.	1	2	3	4
3)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성인보호자가 늘 함께 있다.	1	2	3	4

A8.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이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등교 및 등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의 환경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마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는 편이다	1	2	3	4
2)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 선생님께서 도움을 잘 받는 편이다	1	2	3	4
3) 온라인 수업으로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다	1	2	3	4
4)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컴퓨터, 인터넷)나 환경(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홈페이지 등에 접속은 잘 되었고 동영상의 버벅 거림 등은 없는 것 같다	1	2	3	4
6)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 하는 것 같다	1	2	3	4
7)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숙제 양은 적절한 것 같다	1	2	3	4
8) 온라인 수업으로 숙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다	1	2	3	4

A9.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의 학업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등교 및 등원을 하지 못해 학습 부진(부족)이 심해졌다	1	2	3	2
2) 등교 및 등원을 하거나 등교 및 등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갈아 진행되는 데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1	2	3	4

A10. 다음은 자녀분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등교 및 등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자녀분은 다음 [보기]의 활동 중 하루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활동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순위 필수 선택].

	많이 하는 활동 1순위	많이 하는 활동 2순위	많이 하는 활동 3순위
1)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1	2	3
2) 등교 및 등원할 때	1	2	3

[보기]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1. 집안일 함께 하기(요리, 식사 차리기 등)	1. 집안일 돕기
2.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2.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3.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시청	3.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4. 사적인 교육 활동(학원, 과외 등)	4.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5. 영유아 교육 외 내용의 TV 및 유튜브 시청하기	5.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6.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예, 퍼즐 맞추기 등)	6.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예, 퍼즐 맞추기 등)
7. 성인과 함께 놀이활동 하기	7. 스포츠 및 신체활동 하기
8.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8.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9. 돌봄교실 및 센터, 방과 후 교실 가기	9. SNS 활동하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10.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0.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A11. 최근 3개월 동안 가정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자녀분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예	아니오
1) 부부 혹은 성인 가족이 자녀를 체벌한 경험	1	2
2) 부부 간,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한 경험	1	2

A12-1.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이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자녀분의 수면시간/스마트폰, 인터넷 게임/놀이 및 휴식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였는지 숫자를 작성해 주십시오.

- 1) 수면 시간(낮잠 포함 총 수면 시간) : ()시간 ()분
- 2)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학습 위한 사용 시간 제외) : ()시간 ()분
- 3) 놀이 및 휴식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 제외) : ()시간 ()분

A12-2.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이 등교 및 등원할 때, 자녀분의 수면시간/스마트폰, 인터넷 게임/놀이 및 휴식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였는지 숫자를 작성해 주십시오.

- 1) 수면 시간(낮잠 포함 총 수면 시간) : ()시간 ()분
- 2)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학습 위한 사용 시간 제외) : ()시간 ()분
- 3) 놀이 및 휴식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 제외) : ()시간 ()분

A13.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의 인터넷 게임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1개 선택]

- 1) 예
- 2) 아니오

A14.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의 각 감정 수준은 어떠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까?

[각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낮았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았음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3)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A15. 코로나 19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자녀분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각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전혀 힘들지 않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이 힘들 10
1) 코로나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A16-1.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존중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받지 못한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3순위까지 선택]

A16-2. 자녀분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 하는 아동 권리에 대해 신경 써야 할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3순위까지 선택]

구분	A16-1. 존중 받지 못한/침해된 권리	A16-2. 신경 써야 할 권리
1) 모두 평등하게 교육 받기	1	1
2) 나이/성별/성적/종교/사는 곳/피부색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기	2	2
3)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하기	3	3
4) 생명, 생존, 발달 존중하기	4	4
5)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5	5
6) 정보를 쉽게 안내 받고 이용하기	6	6
7)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7	7
8) 입양/난민/장애/가정 밖 아동도 다른 아동처럼 동일하게 보호받기	8	8
9) 휴식/놀이/여가 누리기	9	9
10) 신체적/심리적 평안하고 안정적이기	10	10

A17. 최근 3개월 동안 코로나19에 관련한 아동 이슈 및 정책에 자녀분과 같은 아동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기회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등교 및 등원 일정이나 코로나19 관련 아동 정책 등) [1개 선택]

전혀 없었음	거의 없었음	약간 있었음	매우 많았음
1	2	3	4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보호자)



〈조사개요〉

- 샘플 수 : 3,600명
- 지역 : 전국 6개 권역 거주자
- 조사 대상 : 미취학~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

자녀 연령	미취학~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총 합
	1800	600	600	600	360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무엇입니까? [출생연도 입력]

- 1) 만 20세 미만 → 조사중단 2) 만 20~24세 → 조사중단
 3) 만 25~29세 → 조사중단 4) 만 30~34세
 5) 만 35~39세 6) 만 40~44세
 7) 만 45~50세 8) 만 51세 이상

SQ3-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1개 선택]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4-5. 첫째 자녀의 학년은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 | | |
|--------------|--------------|--------------|
| 1) 만 4세 | 2) 만5세 | 3) 만6세 |
| 4) 초등 1학년 | 5) 초등 2학년 | 6) 초등 3학년 |
| 7) 초등 4학년 | 8) 초등 5학년 | 9) 초등6학년 |
| 10) 중학교 1학년 | 11) 중학교 2학년 | 12) 중학교 3학년 |
| 13) 고등학교 1학년 | 14) 고등학교 2학년 | 15) 고등학교 3학년 |

SQ5. 귀하께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1) 어머니 2) 아버지 3) 할머니 4) 할아버지
 5)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 등) 6) 기타: _____

SQ6. 귀하께서는 현재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구분	자녀 수
1) 만 0~3세의 영아	()명
2) 만 4~6세의 유아	()명
3) 만 7~9세의 초등학생 저학년	()명
4) 만 10~12세의 초등학생 고학년	()명
5) 만 13~15세의 중학생	()명
6) 만 16~18세의 고등학생	()명
7)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성인	()명
총 자녀수	총()명

A. 부모님 인식 평가

A1. 코로나19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귀하의 **각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행별1개씩 선택]

구분	부정적으로 변함 0	1	2	3	4	변화하지 않았음 5	6	7	8	9	긍정적으로 변함 10
1) 일상생활	0	1	2	3	4	5	6	7	8	9	10
2) 건강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3) 시간활용	0	1	2	3	4	5	6	7	8	9	10

A2-1. 코로나 19 발생 이후, 가정에서 경험했을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해 최근 3개월 동안 귀하의 어려움 정도는 어떠했는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

시오.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1) 자녀의 돌봄 공백 (자녀를 맡기고 부탁할 자원이 충분치 않음)	1	2	3	4
2) 자녀의 매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	1	2	3	4
3) 재택 근무 중 양육과 회사 업무의 병행	1	2	3	4
4) 자녀의 놀이 욕구 해결	1	2	3	4
5)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TV 시청 통제	1	2	3	4
6)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숙제 점검	1	2	3	4
7) 자녀와의 의견 대립	1	2	3	4
8) 가정의 경제적 상황	1	2	3	4
9) 부부(성인 가족들) 간의 의견 대립 및 갈등	1	2	3	4
10)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	1	2	3	4

A2-2. 코로나 19 발생 이후 현재 귀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3순위 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3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A3-1. 최근 3개월 동안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있거나 자녀들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은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였습니까? [1개 선택]

- 1) 성인 보호자가 늘 함께 있었음
- 2) 일주일에 1~2일 정도
- 3) 일주일에 3~4일 정도
- 4) 주말을 제외한 5일 내내
- 5)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 6) 기타: _____

A3-2. 최근 3개월 동안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있거나 자녀들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1개 선택]

- 1) 해당 없음(자녀는 늘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있었음)
- 2)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비해 최근 3개월 동안 증가함
- 3)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최근 3개월 동안 비슷함
- 4)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비해 최근 3개월 동안 감소함

A3-3. 다음의 [보기] 중 최근 3개월 동안 자녀가 1)등교 및 등원할 때와 2)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비중이 높았던 사람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행별 1개씩 필수 3순위까지 선택]

	등교 및 등원할 때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1) 아동 홀로	1	1
2) 성인인 아동의 형제 자매	2	2
3)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형제 자매	3	3
4) 아동의 어머니	4	4
5) 아동의 아버지	5	5
6) 아동의 할머니/할아버지	6	6
7) 아동의 친인척(이모, 삼촌, 고모, 큰아버지 등)	7	7
8) 이웃 또는 친한 학부모	8	8
9) 과외 및 학원 선생님	9	9
10) 아이 돌봄 선생님 또는 가사 도우미 (개인적으로 고용)	10	10
11) 방과 후 교실 및 돌봄 시설 선생님 (정부 및 지역 지원과 자원 활용)	11	11
12) 해당 없음	12	12

A3-4. 다음의 [보기] 중 최근 3개월 동안 자녀가 1)등교 및 등원할 때와 2)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자녀 양육 담당자의 평일 1일 동안의 평균 돌봄 시간을 작성해 주십시오.

1) 등교 및 등원할 때

자녀 돌봄 담당자	등교 및 등원할 때 (평일 1일 기준 돌봄 시간)
1순위 선택	()시간 ()분
2순위 선택	()시간 ()분
3순위 선택	()시간 ()분

2) 등교 및 등원을 하지 않을 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자녀 돌봄 담당자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온라인 수업 할 때) (평일 1일 기준 돌봄 시간)
1순위 선택	()시간 ()분
2순위 선택	()시간 ()분
3순위 선택	()시간 ()분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 가질 수 있는 마음들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A4-1. 최근 3개월 동안 자녀가 등교 및 등원하지 않는 동안, 귀하께서 느낀 양육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입니까? [1개 선택]

매우 낮았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았음 10
0	1	2	3	4	5	6	7	8	9	10

A4-2. 최근 3개월 동안 자녀가 등교 및 등원할 때와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귀하가 느낀 양육 스트레스는 언제 더 높았습니까? [1개 선택]

- 1)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음
- 2) 비슷했음
- 3) 등교 및 등원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음

A4-3.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귀하의 양육스트레스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1개 선택]

- 1)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졌다.
- 2) 스트레스 수준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다.
- 3)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다.
- 4)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정도였다.
- 5) 스트레스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다.
- 6) 스트레스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다. (현재 가장 높음)

A4-4. **최근 3개월 동안** 귀하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1) 자녀 돌봄 부담이 지속되고 가중되는 것
- 2) 부모로서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역량 관련하여 한계가 느껴지는 것
- 3) 돌봄 공백을 메울 지원이나 자원이 부족한 것
- 4) 실직이나 소득 감소, 휴직 등에 의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는 것
- 5)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 6)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 7) 자녀의 인터넷/게임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논쟁하는 것
- 8)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부진이나 학습 결손이 심해지는 것
- 9) 우울 등 부정적 심리가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
- 10) 기타: ()

A5.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함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때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녀와의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께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자녀에게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던 것 같습니까?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1) 아이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렸다	1	2	3
2)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아이의 엉덩이나 신체의 일부를 때렸다	1	2	3
4)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했다	1	2	3
5)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쳤다	1	2	3
6) 아이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거나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했다	1	2	3
7)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8)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지 못했다	1	2	3
9) 술에 취하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	1	2	3

A6. 다음은 귀하의 심리상태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귀하께서 다음 감정을 어느 정도 느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전혀 느끼지 않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많이 느낌 10
1) 행복한	0	1	2	3	4	5	6	7	8	9	10
2) 불안한	0	1	2	3	4	5	6	7	8	9	10
3) 지루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로운	0	1	2	3	4	5	6	7	8	9	10

A7. 다음의 감정 중 최근 3개월 동안 귀하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골라주십시오. [3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 1) 불안/걱정 | 2) 우울 | 3) 외로움 | 4) 무기력 |
| 5) 화/분노 | 6) 짜증 | 7) 두려움/공포 | 8) 충격 |
| 9) 절망 | 10) 평온 | 11) 관심 | 12) 침착함 |
| 13) 따듯함 | 14) 희망 | 15) 감사 | 16) 초조 |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변화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A8-1. 최근 3개월 동안 귀하의 ‘코로나 블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매우 낮음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높음 10
0	1	2	3	4	5	6	7	8	9	10

A8-2.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귀하의 ‘코로나블루’ 수준은 다음 중 어떠한 형태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1개 선택]

- 1)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코로나블루 수준이 가장 높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낮아졌다.
- 2) 코로나블루 수준이 때에 따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다.
- 3)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높았다.
- 4)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중간 정도였다.
- 5) 코로나블루 수준이 대체로 계속 낮았다.
- 6) 코로나블루 수준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높아졌다. (현재 가장 높음)

A9.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행별 1개씩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코로나가 가장 무섭다	1	2	3	4	5
2) 나는 코로나를 생각하는 게 불편하다	1	2	3	4	5
3) 코로나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난다	1	2	3	4	5
4)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을 잃게 될까 두렵다	1	2	3	4	5
5)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관련 뉴스와 이야기를 접할 때 긴장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다	1	2	3	4	5
7) 코로나에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내 심장이 뛰고 두근거린다	1	2	3	4	5

A10.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약간 그렇지 않다
- 3) 약간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종류〉

예시:

- 1) 게시판 상담,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전화 상담,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
- 2)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에게 상담
- 3)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 4)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A11-1.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기>의 상담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개 선택]

- 1) 아니오
- 2) 예

A1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이용 정도가 높았던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선택]

- 1) 게시판 상담
- 2)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 3) 전화 상담
- 4)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
- 5)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에게 상담
- 6)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
- 7)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 8) 해당 없음

A11-3.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기>의 상담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용 정도가 높았던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고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0	불만족 1	만족 2	매우 만족 3
1순위 선택	0	1	2	3
2순위 선택	0	1	2	3
3순위 선택	0	1	2	3

A11-4.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을 이용해야 할 때, <보기> 중 희망하는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1개, 최대 3개까지 선택]

1순위(), 2순위(), 3순위()

- 1) 게시판 상담
- 2) 온라인 채팅 및 메신저 상담
- 3) 전화 상담
- 4) 친구 및 친인척, 이웃 등 지인에게 상담
- 5) 자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 등에게 상담
- 6) 직접 돈을 내고 기관이나 시설, 의료센터 등에 방문하여 전문가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
- 7) 국가지원(바우처)이나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 8) 기타 (직접 작성: _____)

A12-1.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지역사회 지원	0	1	2	3	4	5	6	7	8	9	10
2) 국가(정부) 지원	0	1	2	3	4	5	6	7	8	9	10

A12-2.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와 지역 사회에서 지원한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0	불만족 1	만족 2	매우 만족 3
1)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0	1	2	3
2)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0	1	2	3
3)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0	1	2	3
4)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0	1	2	3
5)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	0	1	2	3
6)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0	1	2	3
7)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0	1	2	3
8)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0	1	2	3
9) 가족관계 강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0	1	2	3
10)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0	1	2	3

A12-3.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3순위까지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호물품 지원 등 포함)
- 2) 급식 및 도시락 지원 (급식 카드 및 상품권, 키트, 도시락 제공 포함)
- 3) 학습 및 교육 관련 인력 및 시스템, 프로그램 지원
- 4) 휴식 및 놀이 관련 도구, 프로그램, 장소 등 지원
- 5)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
- 6) 아동 대상의 재난 교육 시행
- 7)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 8) 돌봄 공백 완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 9) 가족관계 강화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 10) 경제적 어려움 완화 위한 재정적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별 특별 지원금 포함)

A13. 최근 3개월 동안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각 행별 1개씩 선택]

구분	매우 불만족 0	1	2	3	4	보통 5	6	7	8	9	매우 만족 10
1) 집안 분위기	0	1	2	3	4	5	6	7	8	9	10
2) 자녀와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3) 부부간의 관계	0	1	2	3	4	5	6	7	8	9	10
4) 가정의경제적 상황	0	1	2	3	4	5	6	7	8	9	10

A14.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이슈들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각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1	2	3	4
2) 부모로서의 역할이 많아져 더 힘들었다	1	2	3	4
3)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1	2	3	4
4)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1	2	3	4
5) 가족들끼리 싸움이나 갈등이 더 많아졌다	1	2	3	4
6) 자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1	2	3	4
7) 자녀가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1	2	3	4
8)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부진이 더 심화되었다	1	2	3	4
9) 시간 부족으로 할 수 없었던 취미와 특기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자녀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1	2	3	4

A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교육 관련하여 다음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각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아니오	예
1)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자녀의 사교육 이용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더 많아졌다	1	2
2) 가정형편때문에 자녀의 학원 및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 이용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	1	2

B. 자녀 관련 평가

다음은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녀에 대한 답변은 본 설문에 함께 참여하는 자녀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B1. 다음은 자녀가 등교 및 등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녀의 온라인 수업 및 활동과 관련한 상황을 묻는 문항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상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각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받을 장소와 공간을 집 안에 마련해 두었다.	1	2	3	4
2)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학습 기기(TV, 컴퓨터, 노트북, 스피커, 화상 카메라 등)를 준비해 두었다.	1	2	3	4
3) 자녀의 수업 시간표 및 교구, 학습(가정)통신문 등을 미리 또는 매일매일 확인하였다.	1	2	3	4
4)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활용했다. (예, 긴급돌봄, 학교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	2	3	4
5)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적 자원을 활용했다. (예, 지인 부탁, 돌봄 선생님 및 학습 선생님 지원 등)	1	2	3	4
6) 온라인 수업 이용방법 및 진행 관련 문의사항 등이 생겼을 때 문의를 하거나 정보를 얻기가 편했다.	1	2	3	4

B2. 귀 닥의 자녀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의 증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각 행별 1개씩 선택]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감정 반응(불안, 우울, 무력감)	1	2	3	4
2) 신체 반응(불면, 식욕저하, 두통)	1	2	3	4
3) 인지 반응(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	1	2	3	4
4) 행동 반응(과한 의심과 경계심, 대인관계회피 등)	1	2	3	4

B3-1. 최근 3개월 동안 귀 닥의 자녀가 가장 많이 보인 행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1)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 함
- 2) 악몽을 자주 꿈
- 3) 말로 표현하기를 어려워 함
- 4) 대소변 실수, 변비, 이뇨 증상을 보임
- 5) 식욕이 변화함 (증가 또는 감소)
- 6) 떼쓰기, 징징대기, 매달리기 행동 증가
- 7) 위의 행동들을 보이지 않았음

B3-2. 최근 3개월 동안 귀 닥의 자녀가 가장 많이 보인 행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1) 과민성, 징징거림, 공격 행동을 보이거나 이 행동들이 심해졌음
- 2) 집착이나 악몽이 심해짐
- 3) 신체적 증상(두통, 복통 등)을 보임
- 4) 또래집단 및 주변사람들과 멀어지는 성향 보임
- 5) 좋아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잃음
- 6)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함
- 7) 온라인/학습 수업 거부 및 집중력이 저하됨
- 8) 위의 행동들을 보이지 않았음

B3-3. 최근 3개월 동안 귀 닥의 자녀가 가장 많이 보인 행동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1) 신체적 증상(두통, 복통 등)이 나타남
- 2) 수면과 식욕 장애를 보임
- 3) 안절부절 못하거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무관심 성향이 증가함
- 4)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음
- 5) 또래집단 및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성향 보임
- 6) 낙인 또는 비난 등에 대해 걱정함
- 7) 온라인/학원 수업 거부 및 집중력이 저하됨
- 8) 위의 행동들을 보이지 않았음

C. 보호자

C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1개 선택]

- | | | | |
|-------|---------|-------|-------|
| 1) 무학 | 2) 초졸 | 3) 중졸 | 4) 고졸 |
| 5) 대졸 | 6) 대학원졸 | | |

CQ2. 귀하 가정의 가족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개 선택]

- 1) 양부모 가정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가정)
- 2) 조손 가정 (아동의 아버지/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3) 한부모 가정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을 지칭)
- 4) 재혼 가정
- 5) 친인척 가정 (아동의 아버지/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6) 기타: _____

CQ3-1. 코로나 19 발생 전후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보호자의 근로 상태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각 행별 1개씩 선택]

코로나19 발생 이전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형태	아동의 아버지	아동의 어머니	근로형태	아동의 아버지	아동의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외벌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근로 <input type="checkbox"/> 휴직 <input type="checkbox"/> 비근로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근로 <input type="checkbox"/> 휴직 <input type="checkbox"/> 비근로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외벌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근로 <input type="checkbox"/> 휴직 <input type="checkbox"/> 비근로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근로 <input type="checkbox"/> 휴직 <input type="checkbox"/> 비근로

CQ3-2.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아동을 제외한 성인은 몇 명입니까? () 명

CQ3-3.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성인은 몇 명입니까? () 명

CQ4-1. 귀 닥의 경제 수준은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 1) 하위권 2) 중하위권 3) 중위권 4) 중상위권 5) 상위권

CQ4-2. 코로나 19발생 이전, 귀 닥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너스,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1) 200만원 미만 2) 200~400만원 미만 3) 400~600만원 미만
 4) 600~800만원 미만 5) 800만원 이상

CQ4-3. 현재 귀 닥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너스,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 1) 200만원 미만 2) 200~400만원 미만 3) 400~600만원 미만
 4) 600~800만원 미만 5) 800만원 이상

CQ5. 코로나 19 발생 이후, 귀 닥의 월평균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개 선택]

- 1) 감소함 2) 동일함 3) 증가함

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Ⅱ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응 철
편 집 인 김 미 호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 화 02-6424-1693
이 메 일 crt@gni.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디 자 인 명문인쇄공사(Tel. 02-2079-9200~2)

I S B N 979-11-977040-0-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Ⅱ

